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교육학석사 학위논문

중등 음악교사의 국악 내용 관련
내용 교수 지식(PCK)에 대한 인식
조사 연구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2017년 2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협동과정 음악교육전공
김 승 연

중등 음악교사의 국악 내용 관련
내용 교수 지식(PCK)에 대한 인식
조사 연구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지도교수 Hilary V. Finchum-Sung

이 논문을 교육학석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6년 12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협동과정 음악교육전공
김 승 연

김승연의 석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2017년 1월

위 원 장 오 희 숙 (인)

부위원장 권 덕 원 (인)

위 원 Hilary V. Finchum-Sung (인)

국문초록

교육과정에서 국악이 점차 많은 비중을 차지하게 되면서 음악 교사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국악에 대한 교수능력을 갖추는 것이 필수요건이 되었다. 하지만 음악 교사들은 국악 교수능력의 부족으로 인해 교육과정의 전달자와 개발자의 역할을 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는 곧 국악 교육의 질 저하로 이어지고 있다. 그러므로 국악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교사가 가지고 있는 국악에 대한 교수능력의 수준을 진단해보고, 이를 향상시키고자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중등음악교사의 국악에 대한 교수능력을 내용 교수 지식(PCK)의 관점으로 살펴봄으로써 국악 PCK를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여 국악교육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데에 연구 목적이 있다.

본 연구에서 국악 PCK 구성요소는 교과내용지식, 교수방법지식, 평가지식, 학생이해지식, 환경상황이해지식으로 구분하였다. 이를 토대로 국악 PCK에 대한 인식 조사 도구를 개발하였으며, 서울, 경기, 인천의 수도권 지역의 중등음악교사 123명을 대상으로 인식 조사를 실시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국악 PCK의 구성요소별 전반적인 인식수준을 알아보기 위해 기술통계 분석을 사용하였으며, 교사의 배경(교직경력, 국악을 교육 받은 기간)에 따른 국악 PCK 구성요소별 인식수준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t-검정을 사용하여 결과를 분석하였다. 인식 조사 후에는 조사를 통해 얻어진 결과를 토대로 연구 문제를 심층적으로 탐구하기 위해 중등음악교사 6명을 대상으로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인터뷰 결과는 모두 전사한 후, '국악 PCK의 형성과정'을 중심으로 분석하여 연구 결과를 도출해 냈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중등음악교사의 국악 PCK 인식 수준은 국악 이론, 감상 영역이 국악 가창, 실기 영역보다 높은 것으로 드러났고, 많은 교사들이 자신의 국악 교수능력에 대한 자신감이 부족해 국악 수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교육과정 재구성에 의해 중등

음악교사들의 국악 교수학습경험에 차이가 발생하게 됨으로써 교직경력은 국악 PCK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국악을 교육 받은 기간은 국악 PCK 구성요소 중 교과내용지식의 형성에 직접적으로 기여함으로써 중등음악교사의 국악 PCK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상의 연구 결과를 토대로 국악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중등음악교사의 국악 PCK 향상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교사양성 과정에서 질 높은 국악 교육을 통해 국악 PCK의 구성요소 중 교과내용지식을 우선적으로 갖추도록 해야 한다. 둘째, 교사 연수와 재교육과정을 통해 국악 교육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실제적인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한다. 셋째, 국악 연수와 재교육과정에 교사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넷째, 교과재구성 과정에서 국악 수업을 의무적으로 편성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기준을 제공해야 한다. 다섯째, 국악 전공 교사를 비롯한 국악 PCK 수준이 높은 교사들을 중심으로 국악의 영역별 주제별 PCK 사례를 나눌 수 있는 장을 마련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국악 교육에 대한 현장 경험이 풍부한 선배 교사들이 후배 교사들의 국악 수업을 컨설팅 하도록 함으로써 실제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주요어 : 국악, 내용 교수 지식, PCK, 중등음악교사

학 번 : 2011-21500

목 차

I. 서론	1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1
2. 연구 문제	3
3. 연구의 제한점	4
II. 이론적 배경	5
1. 내용 교수 지식(PCK)	5
2. 음악과에서의 내용 교수 지식(PCK)	26
3. 국악 교육에 대한 교사 인식 조사 연구	36
4. 국악 내용 교수 지식(PCK)	40
III. 연구 방법	42
1. 연구 대상 및 연구 방법	42
2. 연구 도구 및 내용	44
3. 분석 방법	48
IV. 연구 결과	50
1. 중등음악교사의 국악 PCK에 대한 인식 조사 도구	50
2. 질적 연구 결과	77
V. 논의 및 결론	87
1. 논의	87
2. 결론 및 시사점	92

참고문헌	95
부록	101
Abstract	108

표 목 차

〈표 II-1〉 내용 교수 지식(PCK)의 정의 및 구성요소	8
〈표 II-2〉 PCK의 통합 모형과 변형 모형의 관점	11
〈표 II-3〉 내용 표현(Content Representation:CoRe) 기준	20
〈표 II-4〉 교사의 PCK 평가를 위한 루브릭의 예	22
〈표 II-5〉 교사의 PCK에 대한 학생의 인식 조사 도구	24
〈표 II-6〉 음악과 PCK의 정의 및 구성요소	29
〈표 II-7〉 음악과의 내용 교수 지식 요인	32
〈표 II-8〉 국악 내용 교수 지식(PCK) 구성요소	41
〈표 III-1〉 설문 조사 대상	43
〈표 III-2〉 인터뷰 대상 구분	43
〈표 III-3〉 인터뷰 대상 세부 내용	44
〈표 III-4〉 국악 내용 교수 지식에 관한 설문조사 내용	46
〈표 III-5〉 구성요소별 신뢰도	47
〈표 III-6〉 인터뷰 내용	48
〈표 IV-1〉 국악 PCK의 구성요소별 인식 수준	51
〈표 IV-2〉 교직 경력에 따른 인식 차이 집단통계분석	52
〈표 IV-3〉 국악을 교육받은 기간에 따른 인식 차이 집단통계 분석	53
〈표 IV-4〉 교과내용지식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 수준	55
〈표 IV-5〉 교과내용지식에 대한 교직 경력에 따른 인식차이	57
〈표 IV-6〉 교과내용지식에 대한 국악을 교육 받은 기간에 따른 인식 차이	59
〈표 IV-7〉 교수방법지식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 수준	61
〈표 IV-8〉 교수방법지식에 대한 교직경력에 따른 인식차이	63
〈표 IV-9〉 교수방법지식에 대한 국악을 교육 받은 기간에	

따른 인식 차이	65
〈표 IV-10〉 평가지식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 수준	66
〈표 IV-11〉 평가지식에 대한 교직 경력에 따른 인식 차이	67
〈표 IV-12〉 평가지식에 대한 국악을 교육 받은 기간에 따른 인식 차이	68
〈표 IV-13〉 학생이해지식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 수준	69
〈표 IV-14〉 학생이해지식에 대한 교직경력에 따른 인식차이	70
〈표 IV-15〉 학생이해지식에 대한 국악을 교육 받은 기간에 따른 인식 차이	71
〈표 IV-16〉 환경상황이해지식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 수준	73
〈표 IV-17〉 환경상황이해지식에 대한 교직경력에 따른 인식 차이	74
〈표 IV-18〉 환경상황이해지식에 대한 국악을 교육 받은 기간 에 따른 인식 차이	76

그 립 목 차

〈그림 II-1〉 교수를 위한 교사지식기반	12
〈그림 II-2〉 TPACK 모델과 구성요소	12
〈그림 II-3〉 교수를 위한 PCK 육각형 모델	15
〈그림 II-4〉 개인적 PCK와 표준적 PCK	17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넘어설 수 없다는 말이 있다. 교사는 그 자체가 교육과정일 수 있을 만큼 교육목표의 달성을 위해 필요한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국가수준의 교육과정을 마련하여 제공함으로써 전국에 있는 모든 학교에서 이를 기준으로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음악과도 국가수준의 교육과정이 마련되어 있으며, 이는 일종의 ‘법’과 같은 것으로서 모든 음악교육은 반드시 음악과 교육과정의 방향과 내용을 따라야 한다(권덕원, 2009). 다양한 음악 활동을 통해 음악의 아름다움을 경험하고, 음악성과 창의성, 음악의 역할과 가치에 대한 안목을 키우도록 하여 결국 삶 속에서 음악을 즐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현재 우리 음악교육의 목표이다. 음악 교과는 음악적 정서와 표현력을 계발하고, 문화의 다원적 가치를 인식하여 타인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창의적 인재를 육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여 이를 통해 우리 문화 발전에 기여하고 세계 시민으로서 문화적 소양을 지닌 전인적 인간이 되는데 기여하도록 하는 역할을 한다(2009 개정 음악과 교육과정, p.2).

학교에서 음악 교육을 통해 교육과정에 고시된 음악과의 목표가 달성되도록 학생들을 안내하고 돕는 존재는 바로 교사이다. 그렇다면 음악 교사의 역할은 무엇인가? 음악교사의 역할은 교육과정 전달자, 교육과정 개발자의 두 가지 차원으로 살펴볼 수 있다. 교육과정 전달자로서 교사의 역할은 음악 교과 자체의 성격과 본질에 맞도록 음악 지식을 학생들에게 전달하는 것이고, 교육과정 개발자로서의 음악 교사의 역할은 자신이 이해한 교육과정을 학생들에게 자신의 창의적인 방법으로 새롭게 계획하고 재구성하여 실행하는 역할이라 할 수 있겠다(이경언, 최승현, 2007). 따라서 음악 교사들은 학생들이 학교의 음악 교육을 통해 음악 교육에서 추구하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의 내용을 깊이 숙지하여 교사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함으로써 질 높은 음악 교육을 제공하도록 노력해야 할 의무가 있다.

우리나라의 음악교육과정은 국악과 서양음악으로 양분화 되는 특유의 맥락이 존재한다. 본래 교육과정이 시작될 때에는 서양음악 위주로 음악교육이 이루어졌으나, 점차 국악교육의 중요성이 대두되면서 6차 교육과정부터는 국악의 비중이 점점 늘어나 현재는 교과서의 3-40%를 차지하고 있다.¹⁾ 이처럼 교육과정에서 국악이 점차 많은 비중을 차지하게 되면서 음악 교사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국악에 대한 교수능력을 갖추는 것이 필수요건이 되었다. 하지만 음악교사의 대부분은 서양음악 전공자로 국악 수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학생들조차 국악에 대한 교사의 지식 부족을 국악 교육의 문제로 지적하고 있는 실정이다(장근주, 2007). 이와 같이 아무리 교육과정과 교과서에 국악 관련 내용이 양적으로 늘어난다하여도 국악에 대한 교수능력이 뒷받침이 되지 않는다면, 교사들이 교육과정의 전달자 및 개발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러한 교사의 국악 교수능력의 부족은 결국 국악 교육의 질 저하로 이어지게 된다. 그러므로 국악 교육의 양적 팽창이 질적 팽창으로도 이어지고 있는가에 대해 교사의 교수능력 관점에서 고민할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고민은 국악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노력으로 이어져야 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악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술만(Shulman, 1986;1987)이 제시한 내용 교수 지식²⁾(Pedagogical Content Knowledge, 이하 PCK)의 관점에서 중등음악교사의 국악 교수능력을 살펴보고자 한다. PCK는 교사의 고유한 영역으로 교과내용과 교육학의 특별한 결합물로서

1)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2013)의 연구에 따르면, 교과서에 제시되어 있는 국악 내용의 분석을 통해 초등3학년~고등학교 1학년의 음악 시수 중 국악 수업 적정 시수의 비중을 29.4%~38.2%로 제시하고 있다.

2) 교육 대백과 사전(1998)에 따르면 PCK에 대해 교수를 목적으로 변형된 내용 지식으로 정의하고 있다. 연구자에 따라 PCK는 교육학적 내용 지식, 교과교육학 지식, 교수 내용적 지식, 교수법적 내용 지식, 교수내용지식 등으로 번역된다. 본 연구에서는 이경언과 최승현(2007)의 연구에서 사용된 '내용 교수 지식'을 PCK의 번역어로 사용하였다.

특정한 주제, 문제, 이슈들을 다양한 관심과 능력을 가진 학습자들이 수용하도록 조직화하여 나타내는 방식에 대한 이해이다.(Shulman, 1987) 이러한 술만의 정의를 기초로 하여 음악과의 PCK는 “음악과 내용을 학생들이 이해할 수 있는 형태로 전환하는 교사의 지식으로 특정 학년에 적절한 개념을 학생들이 최대한 이해할 수 있도록 지식을 표상하는 방법”으로 정의하고 있다(이경언, 최승현 2007, p.42). 이처럼 교사의 PCK는 수업 상황에서 발견되는 교사의 고유한 지식이므로 교사의 교수능력을 알아보기 위한 중요한 지표가 될 수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중등음악교사의 국악에 대한 교수능력을 내용 교수 지식(PCK)의 관점으로 살펴봄으로써 중등음악교사의 국악 PCK를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에 대해 고찰해 보고자 한다.

2. 연구 문제

본 연구는 중등음악교사의 국악에 대한 교수능력을 내용 교수 지식(PCK)의 관점으로 살펴봄으로써 국악 PCK의 향상 방안을 제시하여 국악 교육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것을 연구의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1. 중등음악교사의 국악 내용 교수 지식(PCK)의 인식수준은 어떠한가?
2. 중등음악교사의 국악 내용 교수 지식(PCK)의 인식수준은 교사의 배경(경력, 국악을 교육 받은 기간)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3. 중등음악교사의 국악 내용 교수 지식(PCK)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은 무엇인가?

3. 연구의 제한점

본 연구의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중등음악교사의 국악 PCK의 수준을 알아보고자 교사가 스스로 자신이 인식하는 PCK의 수준에 대해 평가하도록 하는 자기 보고식 설문도구를 사용하였다. 따라서 객관적으로 자기보고의 정확성을 검증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둘째, 본 연구는 서울, 인천, 경기 지역의 중등음악교사 일부를 대상으로 하여 국악 PCK에 대한 인식 조사를 실시하였다. 따라서 전체 중등음악교사의 국악 PCK에 대한 인식 조사 결과로 일반화시키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II. 이론적 배경

1. 내용 교수 지식(PCK)

가. 내용 교수 지식(PCK)의 개념

교육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교육과정을 전달하고 개발하는 역할은 교사의 몫이며, 교육의 결과는 교사의 능력에 따라 그 성패가 좌우된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아무리 훌륭한 교육과정, 교수법이 개발된다 하여도 결국 교사에게 의해 교육이 실행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많은 교육자들과 연구자들은 성공적이고 효과적인 교육의 목적 달성을 위해 교사의 교수 전문성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진행해오고 있다. 특히 교사의 교수 전문성에 관한 연구는 교사의 교과지식이 상황과 맥락이 각기 다른 교실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어떻게 발현되는가에 관심을 두고 있다.

1986년부터 미국은 교육활동과 교직 개혁을 위해 교직의 전문직화(teaching professionalism)에 관심을 가져왔다. 전문적인 개혁에 대한 지지자들은 ‘교수를 위한 지식 기반(knowledge base for teaching)’이 그것이 나타나고 소통할 수 있는 방법으로 존재한다는 믿음에 근거하여 그들의 신념을 전개해나갔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교수 전문성의 핵심으로써 교사의 고유한 전문적인 지식의 개념인 PCK를 제시한 사람이 바로 술만(1986;1987)이다. 술만(1986)은 교사의 지식을 교과내용지식(subject matter content knowledge), PCK(pedagogical content knowledge), 교육과정지식(curricular knowledge)으로 분류하였다. 여기에서 PCK는 교과의 내용을 학생들이 이해할 수 있는 적절한 형태로 제시하고 조직화하는 방법에 관한 지식으로 본다. 이것은 음악가와 음악교사의 차이로 설명할 수 있다. 즉 음악적인 지식, 연주기술이 뛰어난 음악가가 모두 음악을 학생들에게 ‘잘 가르

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음악교사로서 역할을 소화하기 위해서는 음악에 관한 지식과 기술과 더불어 이를 학생들에게 ‘잘 가르칠 수 있는 지식’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언급한 ‘잘 가르칠 수 있는 지식’은 포괄적인 개념으로써 교과 내용 지식과 교육학 지식이 융합되어 새롭게 생성되는 지식이라 할 수 있다. PCK는 교과영역에서 다루는 내용을 다른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가장 유용한 형식을 사용하여 표현하는 것으로, 효과적인 유추(analogy), 실례(illustration), 예시(example), 설명(explanation), 시범(demonstration)을 포함한다(Shulman, 1986). 이러한 PCK는 각 교사가 가지고 있는 지식 기반이 융합된 결과로써 다양한 형태로 존재할 수 있으므로, 개인의 경험이나 노력과 연구를 통해 형성된다.

이후 술만(1987)은 교사의 지식에 관한 범주를 1986년에 비하여 더욱 세분화하였다. 그는 기존의 교사의 지식으로 분류했던 세 가지 지식인 교과 내용 지식, PCK, 교육과정 지식에 일반 교육학 지식(general pedagogical knowledge), 학습자에 관한 지식(knowledge of learners and their characteristics), 교육적 상황에 대한 지식(knowledge of educational contexts), 교육의 철학적, 역사적 목적에 대한 지식(knowledge of educational purpose)을 더하여 총 7가지 영역으로 교사의 지식기반을 구분하였다. 또한 그는 다음과 같이 PCK의 정의를 더욱 명확히 언급하였다. “PCK는 교사의 독특한 영역으로 교과내용(content)과 교육학(pedagogy)의 특별한 결합물(amalgam)이며, 교사들의 전문적 이해에 관한 고유하고 특별한 형식이다.” 또한 “PCK는 교과내용과 교육학 지식이 섞여 특정한 주제, 문제, 이슈들을 다양한 관심과 능력을 가진 학습자들이 수용하도록 조직화하고 나타내는 방식에 대한 이해를 나타낸다.” (Shulman, 1987, p.8) 그러므로 술만이 언급한 PCK는 교사가 교육 전문가로서 다른 직업과 구별되는 교사의 고유한 지식에 대한 연구자들의 관심을 촉구했다고 할 수 있겠다.

이처럼 술만이 제안한 PCK의 개념은 각 교과영역에서 필요한 교수 지식에 대한 연구자들의 관심을 불러일으켰으며, 이후 교사의 지식을 주제로 하는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도록 하는 데에 크게 기여하였다. 술만은 PCK를 7가지 지식 기반 중 하나의 하위요소로써 교과의 내용 지식과 교육학 지식

을 혼합한 지식 기반으로 정의하였으나, 이후 PCK 관련한 연구들은 술만이 제시한 PCK의 정의와 영역을 토대로 하면서, 더욱 세분화하여 범주를 나누어 다양한 모델을 제시함으로써 PCK의 개념과 특성을 밝히고자 하였다.

그로스만(Grossman, 1990)은 전문성의 핵심으로 교사의 지식기반을 술만(1986)이 제시한 일반 교수법 지식, 교과내용지식, PCK에 상황지식을 추가로 제시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네 가지 지식기반 중 PCK는 교사의 수업 행동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라고 하였다. 그는 PCK의 하위요소를 교수 목표에 대한 인식, 학생의 이해에 대한 지식, 교육과정 지식, 교수 설계에 대한 지식으로 나누어 제시하였다. 또한 PCK의 개발과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다음과 같이 네 가지로 보았다. : 1) 수업에 대한 관찰, 2) 특정 목적이나 주제에 대한 개인적인 선호에 영향을 주는 교육, 3) 교사교육 과정에서 공부한 특정 과목, 4) 실제 수업경험.

마그누손 등은(Magnusson et al., 1999) 그로스만(1990)의 PCK 모델을 수정하여 변형모델을 제시하였다. 그들은 교과내용 지식과 신념(subject matter knowledge and beliefs), 교육학 지식과 신념(pedagogical knowledge and beliefs), 상황에 대한 지식과 신념(knowledge and beliefs about context) 세 가지 지식 기반에 의해 영향을 받는 교사의 지식 기반으로 PCK를 설명하였으며, PCK를 교과지식을 포함한 여러 가지 유형의 지식이 교수를 위해 변형된 것으로 교사의 지식에 대한 고유한 영역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하였다. 또한 이러한 기본 개념을 바탕으로 과학 교수 활동을 위한 PCK의 구성요소를 5가지로 개념화하였다. PCK의 5가지 구성요소는 과학 교수활동에 대한 방향, 과학교육과정에 대한 지식과 신념, 특정한 과학 주제에 대한 학생들의 이해와 관련한 지식과 신념, 과학 내용에 대한 평가와 관련한 지식과 신념, 과학교수활동에서의 교수전략에 대한 지식과 신념을 포함한다. 그들은 PCK의 가치를 인식 가능한 고유한 구조로 제시함으로써 발전된 PCK의 모델을 제시하였다.

한편 코란 등은(Cohran et al., 1993) 구성주의 관점에 입각하여 PCK 개념을 발전시켰다. 구성주의 관점에서 지식은 우리의 경험에 의해 세계의 순서와 조직이 구성되어지므로, 특정 맥락에서의 교수(teaching)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그들은 이러한 관점을 가지고 Knowledge를 대신하여 Knowing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교사의 지식을 Pedagogical Content Knowing (PCKg)이라고 칭하였고, 이것을 교사들의 교육학지식, 내용지식, 학생지식, 학습의 환경적 상황의 맥락의 4가지 요소를 통합하는 지식으로 보았다. 이러한 PCKg의 발달은 4가지 요소들이 관계되는 맥락 속에서 각각의 요소의 발달과 함께 이루어진다고 보았으며, 수업 전체에 걸쳐 계속적으로 일어난다고 하였다. 이처럼 연구자들은 교실 수업 상황에 있어 교사의 지식의 핵심인 PCK가 무엇인지 규명하기 위해 연구를 통해 <표 II-1>과 같이 PCK에 대한 정의와 구성요소들을 밝히고자 노력해오고 있다.

<표 II-1> 내용 교수 지식(PCK)의 정의 및 구성요소³⁾

연구자	내용 교수 지식(PCK)의 정의 및 구성요소
Shulman(1986)	교과영역에서 다루는 내용을 다른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가장 유용한 형식을 사용하여 표현하는 것으로, 효과적인 유추(analogy), 실례(illustration), 예시(example), 설명(explanation), 시범(demonstration)을 포함하는 지식
Shulman(1987)	교사의 독특한 영역으로 교과내용(content)과 교육학(pedagogy)의 특별한 결합물(amalgam)이며, 교사들의 전문적 이해에 관한 고유하고 특별한 형식. 교과내용과 교육학 지식이 섞여 특정한 주제, 문제, 이슈들을 다양한 관심과 능력을 가진 학습자들이 수용하도록 조직화하고 나타내는 방식에 대한 이해를 나타냄
Grossman(1990)	교수 목표에 대한 인식, 학생의 이해에 대한 지식, 교육과정 지식, 교수 설계에 대한 지식으로 구성된 지식
Cohran et al. (1993)	Pedagogical Content Knowing(PCKg): 교사들의 교육학지식, 내용지식, 학생지식, 학습의 환경적 상황의 맥락의 4가지 요소를 통합하는 지식
Tuan(1996)	교육학 지식, 표상적 지식(representational knowledge), 내용에 대한 지식, 교육과정 지식, 평가 지식, 학생 지식, 사회적 상황적 지식이 통합된 지식

3) 표<II-1>의 *는 조희형, 고영자(2008)의 p.623 참고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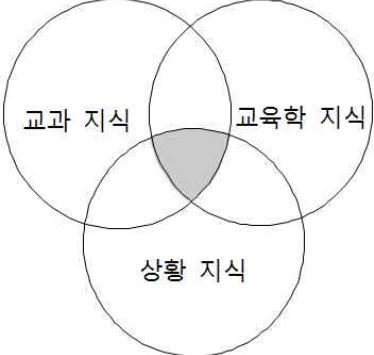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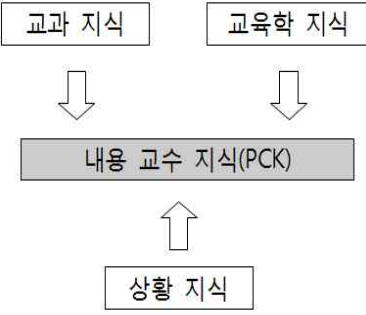
Van Driel et al. (1998)*	학습을 촉진시킬 상황에서의 교과 지식에 대한 교사의 해석과 변형
Magnusson et al. (1999)	교과지식을 포함한 여러 가지 유형의 지식이 교수를 위해 변형된 것으로 교사의 지식에 대한 고유한 영역을 나타냄. 과학 교수활동에 대한 방향, 과학교육과정에 대한 지식과 신념, 특정한 과학 주제에 대한 학생들의 이해와 관련한 지식과 신념, 과학 내용에 대한 평가와 관련한 지식과 신념, 과학교수활동에서의 교수전략에 대한 지식과 신념으로 구성됨.
Veal & Makinster (1999)*	학습 환경의 상황적·문화적·사회적 한계를 이해하면서 수업 및 평가의 다양한 전략과 방법을 이용하여 교과를 환연하는 능력
Baxter & Lederman(1999)	여러 지식이 복합적인 형태로 통합된 지식으로서 쉽게 측정될 수 없는 개념으로, 교사 안에 내재하는 지식이 무엇인지, 지식전달자로서 교사의 지식이 어떠한 행동을 통해 외적으로 표현되는지, 또한 그러한 행동을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관한 내적, 외적 구인
Loughran et al. (2001)	학습자가 특정 과학 내용을 이해하는 데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교수 상황을 제공하기 위해 교사가 사용하는 지식
임청환(2003)	교과 내용을 학생들이 학습하는데 어떻게 도움을 줄 것인가에 대한 교사의 이해로서, 자질 있는 교사가 갖추어야 할 핵심적인 구인으로써, 교과를 가르치는 것에 대한 관점, 교육과정에 대한 지식과 신념, 특수한 교과 주제에 대한 학생들의 이해에 관한 지식과 신념, 평가에 관한 지식과 신념, 교수를 위한 수업전략에 관한 지식과 신념으로 구성됨
조희형, 고영자 (2008)	과학교사 양성 교육과정 또는 현직 과학교사 연수 프로그램을 이수하거나 중·고등학교의 실제 과학 교수 경험을 통해 획득하여 중·고등학교 과학 교수에 그대로 적용 가능한 지식과 기능
Park & Oliver (2008)	상황적, 문화적, 사회적 제약이 작용하는 학습 환경 속에서 다양한 교수 전략과 표현, 평가를 사용하여 학생들이 교과의 특정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교사의 이해와 실행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교사의 지식 기반의 요소인 PCK에 대한 연구는 <표 II-2>와 같이 통합 모형 (Integrative model)과 변형 모형 (Transformative model)의 두 가지 관점으로 구분하여 살펴볼 수 있다 (Gess-Newsome, 1999). 제스-뉴스섬(1999)은 교사의 지식기반과 PCK에 대한 연구를 통합 모형의 경우 PCK는 교사의 지식의 영역으로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았으며, 교과 내용 지식, 교육학 지식, 상황에 대한 지식은 각각 분리되어 개발되고, 교수 상황 속에서 통합된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교수 전문성에 대해 교사들이 가르치는 주제에 대한 지식의 기반을 적극적으로 통합함에 있어서 유동적이라고 보았다. 또한 지식의 기반들은 각각 분리되거나 통합되어 학습될 수 있으며, 통합하는 기술은 길러질 수 있는 것이라고 보았으므로 교사 교육에 있어 교수 경험과 반성을 통해 각각의 지식의 기반을 개발, 선택, 통합, 사용할 수 있도록 강화시켜야 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통합 모형에서는 교사의 지식이 가장 좋은 방법으로 길러질 수 있도록 지식을 어떻게 통합하고 변형해야 하는가에 대해 중점을 두고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였다.

반면 변형 모형의 경우는 통합 모형과는 달리 PCK를 교사의 지식의 고유한 영역으로 분류하였으며, 교수 상황에서 각 지식이 사용됨으로써 PCK로 변형된다고 보았다. 또한 교수 전문성 관점에서 PCK를 중요하게 여기며, 교사들은 자신이 가르치는 모든 주제에 대한 PCK를 가지고 있다고 보았다. 지식의 기반들은 통합된 방식으로 있을 때 가장 잘 학습될 수 있으므로, 교사 교육에 있어서 교수 경험들을 통해 PCK의 개발, 선택, 사용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PCK의 예시들과 PCK를 활용하기 위한 조건들을 구체화하고, 가장 적절한 PCK의 예시와 선택의 기준을 학습할 수 있도록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았다. 교사의 지식기반인 교과지식, 교육학 지식, 상황 지식은 각각 <그림 II-1>과 같이 몇 가지 하위요소 구성되어 있으며, 이 세 가지 지식기반에 영향을 받는 교사지식인 PCK도 마찬가지로 학생이해 지식, 교육과정 지식, 교수 전략 지식, 교과에 대한 학생들의 학습 평가 지식, 교수활동에 대한 방향과 같은 요소로 구성된다 (Park & Oliver, 20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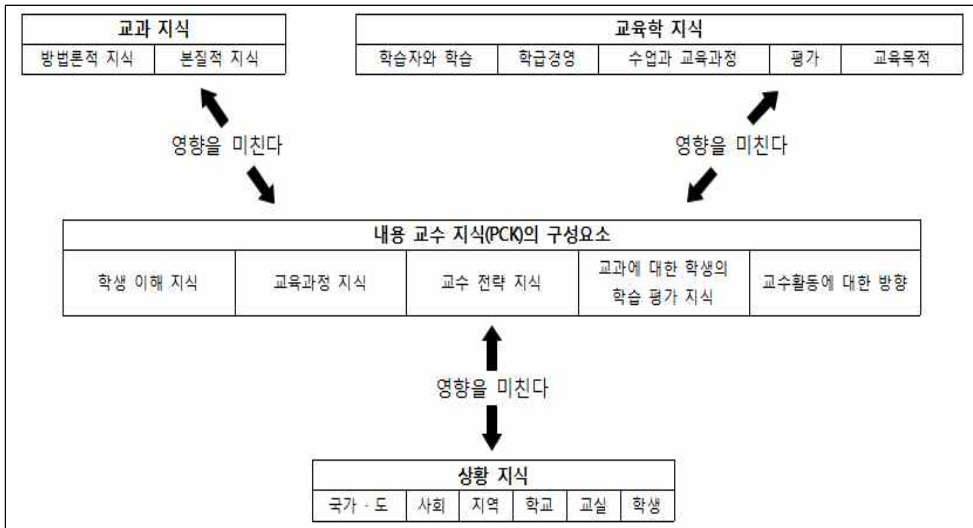
<표 Ⅱ-2> 교사의 지식기반과 PCK에 대한 통합 모형과

변형 모형의 관점

구분	통합(Integrative) 모형	변형(Transformative) 모형
모형		
<p style="text-align: center;">■ : 교수(teaching)에 필요한 지식</p>		
지식의 영역	<p>교과 내용 지식, 교육학 지식, 상황에 대한 지식은 각각 분리되어 개발되고, 교수 상황 속에서 통합된다. 각각의 지식의 기반은 쉽게 연구 가능하며 잘 구조화 되어 있다.</p>	<p>각각 분리되거나 통합되어 개발되는 교과 내용 지식, 교육학 지식, 상황에 대한 지식은 교수 상황에서 사용되는 지식 기반으로 PCK로 변형된다. PCK는 쉽게 연구 가능하며 잘 구조화 되어 있다.</p>
교수 전문성	<p>교사들은 가르치는 주제에 대한 지식의 기반을 적극적으로 통합함에 있어서 유동적이다.</p>	<p>교사들은 가르치는 모든 주제에 대한 PCK를 가지고 있다.</p>
교사 교육의 시사점	<p>지식의 기반들은 각각 분리되거나 통합되어 학습될 수 있다. 통합하는 기술은 길러질 수 있는 것이다. 교수 경험과 반성은 각각의 지식의 기반을 개발, 선택, 통합, 사용할 수 있도록 강화시킨다.</p>	<p>지식의 기반들은 통합된 방식으로 있을 때 가장 잘 학습될 수 있다. 교수 경험들은 PCK의 개발, 선택, 사용을 강화한다.</p>
연구의 시사점	<p>교사 교육에 대해 구체화한다. 교사의 지식이 가장 좋은 방법으로 길러질 수 있도록 어떻게 통합하고 변형해야 하는가?</p>	<p>PCK의 예시들과 PCK를 활용하기 위한 조건들을 구체화한다. 어떻게 하면 가장 적절한 PCK의 예시와 선택의 기준을 학습할 수 있는가?</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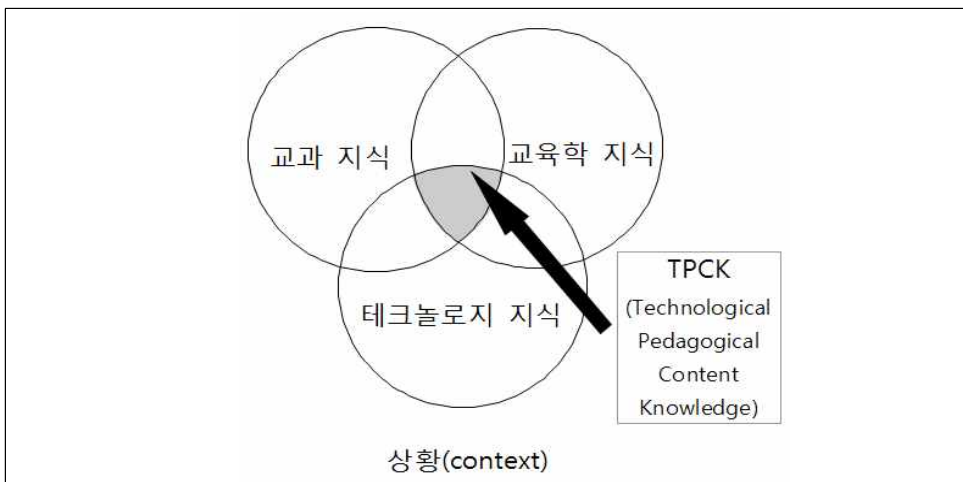
출처: Gess-Newsom, J. (1999). Pedagogical content knowledge: An introduction and orientation. In Gess- Newsome, J. & Lederman, N. G. (Eds.), *Examining pedagogical content knowledge* (3-17). Dordrecht, The Netherlands: Kluwer Academic Publishers. 재구성.

<그림 Ⅱ-1> 교수를 위한 교사지식 기반 (그로스만(1990)의 변형모형)



출처: Park, S. & Oliver, S. (2008). Revisiting the conceptualization of pedagogical content knowledge (PCK): PCK as a conceptual tool to understand teachers as professionals. *Research in Science Education*, 38, 263.

<그림 Ⅱ-2> TPCK 모델과 구성요소



출처: Koehler, M. J. & Mishra, P. (2008). Introducing TPCK. In AACTE Committee on Innovation and Technology (Eds.), *Handbook of Technological Pedagogical Content Knowledge(TPCK) for educators* (3-29). New York: Routledge Publishers. 재구성.

최근에는 지식 기반 사회로 접어들면서 교육 현장에서 교사와 학생 모두에게 테크놀로지 문해력(Technology Literacy)이 필수적으로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시대의 흐름을 반영하여 PCK는 TPCK까지 그 영역이 확대되었다. TPCK는 <그림 II-2>와 같이 내용 지식, 교육학 지식, 테크놀로지 지식의 세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효과적인 교수를 위해 테크놀로지 지식과 PCK의 상호작용을 통해 생성되는 지식이다. 이는 술만이 제안한 교사 지식의 영역인 PCK를 토대로 하여 현대의 교육 현장에서 교사가 갖춰야 할 지식인 테크놀로지 지식을 추가한 것이다(Koehler & Mishra, 2008). 이처럼 PCK는 교사의 전문성의 핵심으로써 술만이 처음 그 개념을 제시한 이후 TPCK까지 확대되며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연구자들을 통해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나. 내용 교수 지식(PCK)의 특성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살펴본 교사의 지식 기반의 핵심인 PCK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갖는다. 첫째로, PCK는 교사의 전문성과 관련된 고유한 지식 영역이다(Shulman, 1987; Magnusson et al., 1999). PCK에 대해 술만(1987)은 교사의 전문적 이해에 관한 고유하고 특별한 형식이라고 하였으며, 마그누손 등은(1999) 교사의 지식에 대한 고유한 영역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함으로써 교사의 전문성과 관련된 고유한 지식으로서 PCK의 특성을 드러내고자 하였다. 따라서 교사의 고유한 지식인 PCK는 자질있는 교사가 갖추어야 할 핵심적인 구인으로서(임청환, 2003), 교과와 관련된 다른 직업(예; 음악가, 과학자 등)과 구별시켜주는 교사의 전문성의 지표라고 할 수 있다.

둘째로, PCK는 실제 교수 상황에서 표현되는 실천적 지식이며, 교수 경험을 통해 개발되는 경험적 지식이다(Van driel et al., 1998; Baxter & Lederman, 1999; Loughran et al., 2001; 2004; Park & Oliver, 2008; 조희형, 고영자, 2008). 여러 학자들은 PCK에 대해 ‘학습을 촉진시키는 상황에서 나타나는 교과지식에 대한 교사의 해석과 변형’(Van driel et a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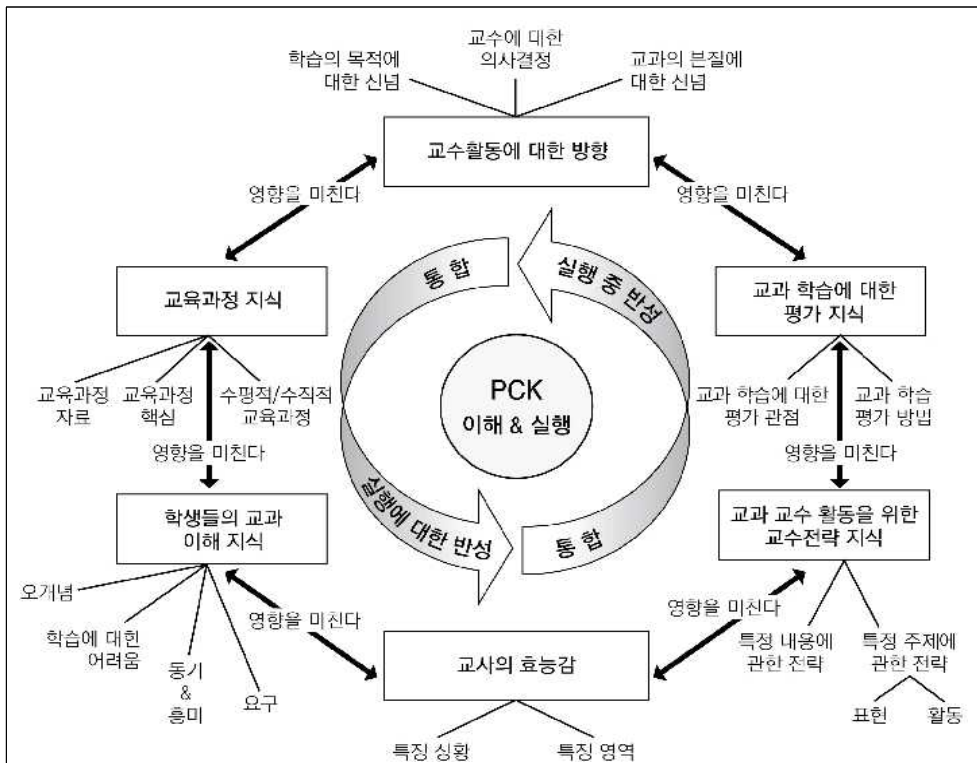
1998)’, ‘교수 상황에서 학습자가 특정 교과 내용을 이해하도록 돕기 위해 교사가 사용하는 지식(Loughran et al., 2001)’, ‘실행 속에 특유한 방식으로 존재하는 지식(Park & Oliver, 2008)’ 등으로 정의하며 교수 상황에서 표현되는 실천적 지식으로서 PCK의 특성을 강조하였다. 또한 PCK는 교수 경험을 통해 개발되는 경험적 지식으로 실제 교과 교수 경험을 통해 교수 상황에 그대로 적용 가능한 지식과 기능이다(조희형, 고영자, 2008). 따라서 해당 교과의 영역과 주제에 대한 교수 경험이 없다면 PCK가 거의 없는 것으로 간주하며, 교사의 실천 속에 드러나는 암묵적인 지식으로서 교수 경험이 쌓이면서 오랜 시간을 통해 점진적으로 발달한다(Loughran et al, 2004).

셋째로, PCK는 교수 상황에서의 실행 중 교사의 반성과 실행에 대한 교사의 반성을 통해 발전된다(Park & Oliver, 2008). 앞서 밝힌바와 같이 PCK는 교수 경험을 통해 발현되고 개발되는 실천적 지식이자 경험적인 지식이라는 특성이 있다. 교사는 수업을 통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교과 지식, 교육학 지식을 결합하여 수업 상황에 적절한 방식으로 표현을 함으로써 자신의 PCK를 표상하게 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교사는 수업 전에는 예상하지 못했던 시행착오와 마주하게 되며, 학생들로 하여금 수업에 대한 피드백을 받게 된다. 그러므로 <그림 II-3>과 같이 교사는 수업 상황에서의 실행 과정 속에서, 또한 수업이 끝난 후 자신의 수업에 대해 반성의 과정을 갖게 됨으로써 자신의 PCK를 발전시킬 수 있게 된다.

넷째로, PCK는 교사 지식기반을 구성하는 여러 요소들에 의해 통합적으로 영향을 받는다(Shulman 1986; 1987; Grossman, 1990; Cohran et al., 1993; Tuan, 1996; Baxter & Lederman, 1999; Park & Oliver, 2008). 여러 학자들은 교과지식, 교육학 지식, 상황 지식, PCK 등을 교사의 지식기반을 구성하는 요소들로 보았다. 이 중 PCK는 교사 지식기반의 다른 요소들을 완전히 포함하지는 못하지만, 교사 지식의 여러 영역에 의해 통합적으로 영향을 받는 지식으로 보았다. PCK는 교실 수업 상황에서 교사가 자신이 가진 교과지식을 학생들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과정에서 발현되는 지식이다. 이에 따라 학생들에게 가르쳐야 하는 수업 주제와 내용을 중심으로 교사가 가지고 있는 교과지식, 학생에 대한 이해 지식, 교육학 지식, 상황에

대한 이해 지식 등이 결합되고 변형됨으로써 드러나므로, 교사 지식기반의 여러 요소들에 의해 통합적으로 영향을 받는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PCK를 개발시키기 위해서는 교사의 지식기반을 구성하는 여러 요소들에 대한 지식이 우선적으로 갖추어져야 한다.

<그림 II-3> 교수를 위한 PCK의 육각형 모델 (hexagon model)



출처: Park, S. & Oliver, S. (2008). Revisiting the conceptualization of pedagogical content knowledge (PCK): PCK as a conceptual tool to understand teachers as professionals. *Research in Science Education*, 38, 27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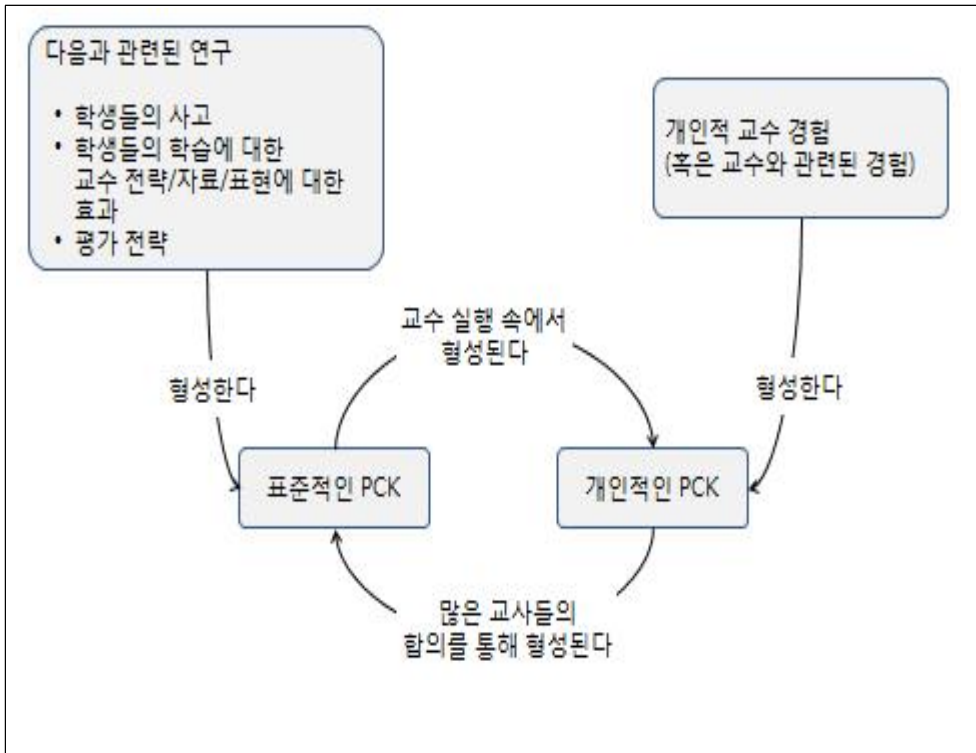
다섯째로, PCK는 교육과정지식, 교수전략지식, 학생이해지식, 평가지식, 교육목적에 대한 지식 등 다양한 요소로 구성되어 있으며, PCK를 구성하는 한 가지 요소의 발달은 다른 요소들의 발달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궁극적으로 전체적인 PCK를 강화한다(Park & Oliver, 2008). 박순혜와 올리버는

(2008) PCK를 효과적인 교수를 위해 매우 복잡한 방식 속에서 교사지식에 대한 모든 관점을 통합하는 것으로 보고, PCK의 구성 요소들이 <그림 II-3>과 같이 유기적으로 영향을 미치며 발전한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구성 요소간의 연관성이 부족하다면 개인의 PCK 발달에 문제가 발생할 것이며, 한 가지 구성요소에 대한 지식의 증가만으로는 실제상황에서 즉각적인 변화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여섯째로, PCK는 주제와 내용에 따라 달라진다(조희형 외, 2006; Van Driel et al., 2001; 이경언, 최승현, 2007). 앞서 밝힌 바와 같이 PCK는 교사가 가지고 있는 개별적인 지식이므로 PCK에 영향을 미치는 교사의 지식 기반에 대해 각 교사가 가지고 있는 지식의 정도에는 차이가 존재한다. 즉, 교사마다 각 교과에 속하는 다양한 주제와 내용에 대해 가지고 있는 교과내용지식의 수준과 범위, 학생들의 선지식과 오개념 등에 대한 이해, 수업 상황 등과 같은 지식에는 개별적인 차이가 있다. 그러므로 PCK는 각 교사가 가지고 있는 지식 기반의 차이로 인해 주제와 내용에 따라 달라진다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PCK는 개인적인 지식이면서 표준적인(canonical) 지식이기도 하다. PCK는 교사 개인 안에 고유하게 존재하는 개인적인 지식으로써 상황 의존적이며, 특정한 목적을 위해 특정 학생들을 대상으로 특정 내용을 교수하기 위해 교수를 준비하는 과정, 교수 과정, 교수에 대해 반성하는 과정을 통해 형성된다(Loughran et al., 2004). 이와 같이 PCK는 개인적인 지식이라는 특징을 갖지만 교수 실행에 대한 연구와 전문가의 총체적인 지식을 통해 폭넓게 합의됨으로써 표준적인 교과 내용, 표준적인 PCK를 형성하게 된다. 표준적인 PCK는 <그림 II-4>와 같이 교수를 위한 준비 과정, 교수 과정, 교수에 대해 반성하는 과정과 적용을 통해 개인적인 PCK가 된다. 또한 개인적인 PCK는 교수 경험을 통해 표준적인 PCK로부터 전적으로 분리되어 발전하고, 많은 교사들의 교수 경험을 통해 축적됨으로써 표준적인 PCK가 된다(Smith & Banilower, 2015).

<그림 II-4> 개인적 PCK와 표준적(canonical) PCK



출처: Smith, P. S. & Banilower, E. R. (2015). Assessing PCK. In Berry, A., Friedrichsen, P. and Loughran, J. (Eds.) *Re-examining Pedagogical Content Knowledge in Science Education* (88-103). New York: Routledge Publishers.

다. 내용 교수 지식(PCK)에 대한 선행 연구

교사의 전문성의 핵심인 PCK가 무엇인지 그 실체를 밝혀내고 규명해내는 것은 교육의 발전을 위해 중요한 일이지만, 매우 어려운 일이기도 하다. 카간(Kagan, 1990)은 교사의 지식을 평가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을 구체화하며, PCK는 교사의 내적 구인(internal structure)의 한 부분으로 정확히 관찰될 수 없는 것이라고 하였다. PCK는 특정한 주제를 학생의 지식수준에 맞게 가장 잘 표현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교사의 이해로서 드러나는 것이

기 때문에, 수업에서 다루지는 교과내용에 대하여 부분적인 지식만을 관찰할 수 있다. 이때에 교사의 판단에 의해 사용되지 않은 지식들은 관찰할 수 없으며, 교사가 수업에 사용하는 수업자료, 방법들을 선택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알 수 없으므로 교사들로 하여금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에 대해 설명할 수 있도록 해야 할 필요가 있다(Baxter & Lederman, 1999). 이처럼 PCK는 교수 상황에서 교사의 실행 속에 분명히 존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PCK가 정확히 무엇인지 어떻게 측정하고 규명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어려움이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특정교수 상황에서 PCK가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서는 PCK를 측정하는 도구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Magnusson et al., 1999).

이러한 필요에 의해 여러 연구자들은 설문지법, 개념 지도, 그림을 이용한 묘사, 인터뷰, 다면 평가 등의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여 PCK를 연구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백스터와 레더만은(Baxter & Lederman, 1999) PCK를 여러 지식이 복합적인 형태로 통합된 지식으로서 쉽게 측정될 수 없는 개념으로, 교사 안에 내재하는 지식이 무엇인지, 지식전달자로서 교사의 지식이 어떠한 행동을 통해 외적으로 표현되는지, 또한 그러한 행동을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관한 내적 외적 구인으로 보았다. 그들은 PCK 측정에 관한 여러 연구를 1) 수렴적, 추론적 기술(convergent and inferential techniques), 2) 개념 지도(concept mapping), 카드 분류(card sorts), 그림을 이용한 묘사(pictorial representation), 3) 다면 평가(multi-method evaluation)의 세 가지로 나누어 그에 대한 연구 방법을 살펴보았으며, 각각의 특성과 문제점을 분석해 보았다. 그들은 연구에 영향을 미치는 근본적인 PCK 구인의 중요한 전제를 교사의 지식과 신념이 수업 실제에 영향을 준다는 점으로 보았다. 이에 따라 연구자들이 수업 관찰에 앞서 교사의 지식을 평가하는 경우 수업 관찰을 통해 그들이 보기 원하는 것들을 중심으로 보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편견이 발생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줄이기 위해 그들은 PCK 측정 연구에 대한 몇 가지 제안을 했다. 첫째로, 교실 수업 관찰을 통해 각 교사의 지식에 대한 개별적인 측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로, 인터뷰를 포함하지 않는 설문조사를 통한 PCK 측정 연구에서는 수업 관찰에

앞서서 연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한 명의 연구자로도 연구가 가능하다. 셋째로, 만약 한 명의 연구자가 연구를 수행할 경우 교실 관찰이 끝날 때까지 교사 지식에 대한 모든 평가를 보류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그들은 여러 연구자들이 연구에 참여하면 넓은 범위의 정보 수집이 가능하므로 여러 연구자들의 연구 참여를 권장하였다.

이처럼 교사의 PCK에 대해 분석하고 측정하기 위한 연구는 다양한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연구 방법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로, 교사의 PCK를 분석하기 위한 분석도구를 개발하여 적용한 연구가 있다. 로란 등은(Loughran et al., 2001) PCK를 학습자가 특정 과학 내용을 이해하는 데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교수 상황을 제공하기 위해 교사가 사용하는 지식으로 보고, 과학 교사의 PCK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과학 교수 상황에서 특정한 과학 내용과 관련한 ‘내용 표현(Content Representation: CoRe)’ 기준과 교수실제와 관련한 ‘교수 경험 레퍼토리(Professional and Pedagogical experience Repertoire: PaP-eRs)’라는 분석도구를 개발하였다(Loughran et al., 2001; 2004). 이후 로란 등은(2004) 그들이 개발한 분석도구를 활용하여 개별적 인터뷰, 수업 관찰, 소그룹 워크숍 등을 통해 과학교사의 PCK를 분석하는 연구를 수행하였다. CoRe는 교과와 내용과 상관없이 일반적인 방식으로 교사의 지식을 설명할 수 있도록 돕고, 이것을 통해 과학 교사들이 자신의 교수 활동 대해 반응하고 인식하게 함으로써 수업 내용에 대한 중요한 특징을 확인하도록 한다. PaP-eRs는 교수 경험 레퍼토리로써 교사의 수업 실제에서 나타난다. 또한 특정한 내용 영역으로써 결국 그 내용을 통해 발현된다. 하나의 PaP-eRs로는 PCK를 설명할 수 없으며, 다양한 PaP-eRs를 통해 PCK의 여러 관점을 밝혀낼 수 있다. PaP-eRs는 결국 CoRe와 관련되며 특정한 내용의 이해와 실제 교수 상황을 연결시킬 수 있도록 돕는다. 이러한 PaP-eRs과 CoRe의 연결은 학습자들이 학습 내용을 좀 더 잘 이해 할 수 있도록 하는 교사 행동의 기반을 보여준다.

<표II-3> 내용 표현 (Content Representation: CoRe) 기준

내용	중요한 과학 내용/ 개념		
	Big Idea 1	Big Idea 2	Etc.
1. 이 내용에 대해 학생들이 무엇을 학습하기 원합니까?			
2. 학생들이 이것을 아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3. 이 내용에 외에 당신이 알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당신이 아직 학생들에게 가르치지 않으려는 것)			
4. 이 내용과 관련한 교수에 있어서 어려움/제한점은 무엇입니까?			
5. 이 내용에 대한 교수에 영향을 미치는 학생들의 지식은 무엇입니까?			
6. 이 내용에 대한 교수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요인들은 무엇입니까?			
7. 교수 절차는 무엇입니까? (이 내용에 이러한 교수 절차를 사용한 특별한 이유는?)			
8. 이 내용에 대한 학생들의 이해나 혼동을 확인하는 특별한 방법은 무엇입니까? (예상 가능한 반응 등을 포함하여)			

출처: Loughran, J., Mulhall, P. & Berry, A. (2004). In search of pedagogical content knowledge in science: Developing ways of articulating and documenting professional practice. *Journal of Research in Science Teaching*, 41(4), 376.

둘째로, 다중 사례 연구(multiple case study) 방법을 사용하여 PCK를 분석한 연구가 있다. 박순혜와 올리버(Park & Olive, 2008)는 PCK에 대한 개념을 재고해 봄으로써 연구를 통해 발견된 PCK에 대한 새로운 개념이 전문성을 가진 교사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다중 사례 연구(multiple case study)를 수행하였다. 연구자들은 세 명의 숙련된 화학 교사를 대상으로 수업 관찰, 반구조화된 인터뷰, 수업 계획, 교사의 수업 반성 일지, 학생들의 작품 사례, 연구자들의 연구 노트 등의 다양한 자료를 수집하여 분석하였

다. 수집된 자료는 1) 일관된 비교 방법, 2) 열거 방법(enumerative approach) 3) 명백한 PCK에 대한 깊이 있는 분석의 세 가지 접근법을 사용하여 분석함으로써 결과를 도출해 냈다. 연구결과는 첫째, PCK는 교수 상황에서의 실행 중 교사의 반성과 실행에 대한 교사의 반성을 통해 발전된다. 둘째, 교사 효능감은 PCK에 영향을 준다. 셋째, 학생들은 PCK의 개발에 중요한 영향력을 가진다. 넷째, 학생들이 가지는 오개념은 교사의 PCK를 정교화 하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마지막으로 PCK는 실행 속에 특유한 방식으로 존재한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는 전문성을 가진 교사에 대한 이해를 돕는 데에 기여한다.

셋째로, 루브릭을 사용하여 교사의 PCK를 평가하고자 한 연구가 있다 (Lee et al., 2007). 이 연구는 24명의 초임 중등 과학 교사를 대상으로 루브릭의 사용과 인터뷰를 통해 진행되었다. 루브릭은 학생의 학습에 대한 이해와 교수 전략에 대한 지식 두 가지 카테고리를 중심으로 개발되었다. 첫째로, 학생의 학습에 대한 지식과 개념에는 선행 지식, 학생들이 학습으로 다가가도록 하는 다양한 방법들, 특정 과학 개념에 대해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어려움을 포함한다. 둘째로, 교수 전략과 표현에 대한 지식은 과학 내용에 대한 특정한 전략(과학적 연구), 내용 표현을 포함한다. 루브릭은 두 가지 카테고리에 속하는 5가지 요인을 중심으로 하여 <표 II-4>와 같이 3가지 수준(제한적, 기본, 능숙)의 단계로 구성되었으며, 교사의 PCK를 평가하는 도구로 사용되었다. 연구 결과 교사의 PCK 수준은 65%가 제한적, 34%는 기본적, 1%가 능숙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남으로써, PCK에 대해 교사들이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따라서 이 연구는 PCK에 대한 교사 교육의 필요성을 드러내고 있다.

<표 II-4> 교사의 PCK 평가를 위한 루브릭의 예

요인	수준		
	제한적	기본	능숙
1. 선행 지식	교사는 학생들의 선행 지식에 대해 가지고 있지 않거나, 혹은 인식하고 있지만 수업 계획에 고려하지 않는다.	교사는 학생들의 선행지식에 대해 인식하고 제한적인 방식으로 수업에 적용한다.	교사는 학생들의 선행지식을 이용하고, 이를 바탕으로 수업을 구성한다.

출처: Lee, E., Brown, M. N., Luft, J. A., & Roehring, G. H. (2007). Assessing beginning secondary science teachers' PCK: pilot year results. *School Science & Mathematics, 107*(2), 59.

넷째로, 교사의 PCK를 측정하기 위해 선다형 문항(multiple-choice)을 제작한 연구도 있다. 스미스와 바닐로워는(Smith & Banilower, 2015) 본 연구를 위해 교사의 지식을 1) 내용에 대한 학생 이해 지식, 2) 학생들의 개념적 이해를 돕는 특정 내용에 관한 교수 전략 지식, 3) 교과 내용 지식의 세 가지 영역으로 구분하였다. 그들은 일차적으로 과학 수업에서 다루는 주제와 내용을 선정하여 이에 따른 교사의 PCK를 측정할 수 있도록 개념에 대한 학생들의 생각과 교수(teaching)와 관련한 개방형 질문(open-ended questions)을 제작하였다. 이는 선다형 문항의 선택지를 일반화하기 위한 선행 작업으로써 교사들이 작성하는 내용과 작성하지 않는 내용들을 통해 교과 내용에 대한 교사의 생각을 알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이후 개방형 질문의 결과를 토대로 선다형 문항을 제작하였다. 선다형 문항은 1) 과학 내용에 대한 지식, 2) 학생의 생각을 분석함으로써 교사의 내용지식을 평가, 3) 교수 전략에 대한 의사 결정을 통한 교사의 교과 지식을 평가와 같이 세 가지 유형으로 개발되었으며, 각각은 실제 교수 상황을 설정하여 제작되었다.

다섯째로, 교사의 PCK를 측정하기 위해 교사의 PCK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을 조사하는 연구가 있다.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사의 PCK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는 연구로는 장 등의(Jang et al., 2009) 연구와 투안 등의(Tuan et al., 2000) 연구가 있다. 장 등은(2009) <표 II-5>와 같이 PCK의 구성요소를 교과내용지식(SMK), 교수적 표현과 전략(IRS), 교수 주제와 상황(IOC), 학생의 이해에 대한 지식(KSU)으로 나누어 각 범주에 해당하는 질문을 제시함으로써 교사의 PCK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을 측정하고자 하였다. 이후 장(Jang, 2011)은 앞서 개발된 PCK 측정 도구를 사용하여 과학 교사의 PCK 발달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을 조사하는 사례연구를 수행하였다. 연구자는 대학의 신참 교사들을 대상으로 PCK에 대한 이해, 의미, 중요성을 설명하고, 교수 효율성과 PCK를 강화시키기 원하는 교사들을 모았다. 이후 신청자들을 대상으로 PCK 워크숍을 개최하여, 교사들의 교수에 있어서의 문제점을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으며, 워크숍에 참석한 신참 교사들이 가르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기 중간과 학기 말 두 차례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워크숍의 내용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었다. 1) PCK와 PCK 관련 이론, 연구에서 사용하는 PCK 측정도구에 대한 소개 2) 학기 중간에 실행되는 설문 조사의 4가지 범주에 대한 설명 3) 학기 중간에 실시된 설문 조사에 대한 각 교사에 해당하는 PCK 분석과 이에 따른 교사의 교수를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논의 4) 숙련된 교사를 초빙하여 효과적인 교수 전략과 평가 방법을 제공하고 공유하기 5) 학기 말 설문 조사 실시 6) 각 교사의 PCK 사례의 차이에 대해 평가하고 반성하기. 연구 결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두 차례 실시한 설문조사는 SMK와 IRS 두 범주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임으로써 교사의 워크숍 참여와 스스로의 반성이 교사의 PCK 발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조직화된 워크숍은 학생들의 교과에 대한 선행 개념과 어려움에 대해 교사들이 더욱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돕고, 적절한 교수 전략의 사용을 촉진시킨다고 밝혔다. 또한 투안 등은(2000) 교사의 PCK를 측정하기 위해 학생들의 인식을 조사하는 도구로 SPOTK 측정도구를 개발하였다. SPOTK는 교수전략 지식에 대한 레퍼토리(Instructional Repertoire), 표상적 지식에 대한 레퍼토리(Representational Repertoire), 내용에 관한 지식(Subject Matter

Knowledge), 학생의 이해에 대한 평가 지식(Knowledge of Students' Understanding)의 4개의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표 II-5> 교사의 PCK에 대한 학생의 인식 조사 도구

1. SMK (Subject Matter knowledge)	2. IRS (Instructional Representation and Strategies)
1) 교사는 그가 가르치는 내용을 알고 있다.	1) 교사는 교과내용과 관련된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 적절한 예시를 사용한다.
2) 교사는 교과 내용을 명확하게 설명한다.	2) 교사는 교과내용과 관련된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 친숙한 비유를 사용한다.
3) 교사는 교과의 이론과 원리가 어떻게 발전되어 오고 있는지 알고 있다.	3) 교사의 교수 방법은 교과에 대해 흥미를 갖도록 한다.
4) 교사는 학생들을 위해 적절한 내용을 선택한다.	4) 교사는 수업 중에 학생들의 의견을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5) 교사는 교과와 관련한 학생의 질문에 대한 답을 알고 있다.	5) 교사는 주된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 시범을 보인다.
6) 교사는 사회에 교과가 미치는 영향을 설명한다.	6) 교사는 교과지식을 이해할 수 있는 지식으로 변환시키기 위해 다양한 교수 방법을 사용한다.
7) 교사는 교과내용지식의 전체적인 구조와 방향을 알고 있다.	7) 교사는 교과의 개념을 표현하기 위해 멀티미디어나 기술을(예, 파워포인트) 사용한다.
3. IOC (Instructional Objective & Context)	4. KSU (Knowledge of Students' Understanding)
1) 교사는 학생들이 수업 주제에 대해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1) 교사는 수업 전 학생들의 사전 지식을 파악하고 있다.
2) 교사는 적절한 상호작용이나 좋은 분위기를 제공한다.	2) 교사는 수업 전 교과와 관련한 학생들의 학습에 대한 어려움을 파악하고 있다.
3) 교사는 수업 중 학생들의 반응에 관심을 기울이고, 교수태도에 반영한다.	3) 교사의 질문은 주제에 대한 나의 이해를 평가한다.

4) 교사는 학습을 위해 학생들의 흥미를 높이기 위한 학급 환경을 만든다.	4) 교사의 평가방법은 교과에 대한 나의 이해를 평가한다.
5) 교사는 추가적인 교수 자료를 준비한다.	5) 교사는 내가 이해하는지에 대해 파악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사용한다.(예, 질문, 토의 등)
6) 교사는 교실의 상황에 적절하게 대응한다.	6) 교사는 교과에 대한 나의 이해를 촉진시킬 수 있는 과제를 제시한다.
7) 교수에 있어서 교사의 신념이나 가치는 활발하고 적극적이다.	7) 교사의 테스트는 학습 상황에 대해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준다.

출처: Jang, S. J. (2011). Assessing college students' perceptions of a case teacher's pedagogical content knowledge using a newly developed instrument. *High Educ*, 61, 676.

마지막으로 교사가 스스로 자신의 PCK를 측정하도록 하는 연구로서 자신의 PCK의 수준에 대한 자성적 인식을 묻는 연구가 있다. 박성혜(2003)는 과학교사의 PCK를 측정하기 위해 투안 등이(2000) 개발한 SPOTK를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그는 PCK의 구성요인을 교수법에 관한 지식, 내용표현의 지식, 내용에 관한 지식, 평가에 관한 지식, 학생에 관한 지식, 교육과정에 관한 지식, 환경상황에 관한 지식으로 구조화하여 교사의 PCK를 측정하는 도구로 제시하였다. 또한 임청환(2003)은 과학 교사의 PCK의 발달이 과학 교수 실제와 교수 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마그누손 등의 (1999) PCK 구성요소를 근거로 하여 측정도구를 개발하였다. 그는 “교과 내용을 학생들이 학습하는데 어떻게 도움을 줄 것인가에 대한 교사의 이해로서, 자질 있는 교사가 갖추어야 할 핵심적인 구인”으로 PCK를 정의하였다(p.260). PCK의 구성요소는 교과를 가르치는 것에 대한 관점, 교육과정에 대한 지식과 신념, 특수한 교과 주제에 대한 학생들의 이해에 관한 지식과 신념, 평가에 관한 지식과 신념, 교수를 위한 수업전략에 관한 지식과 신념으로 구분하였다.

2. 음악과에서의 내용 교수 지식(PCK)

가. 음악과의 내용 교수 지식(PCK)의 정의와 구성요소

음악과에서의 PCK는 음악 교과의 고유의 성격으로 인해 다른 교과의 PCK와는 구분된다. 컨웨이(Conway, 1999)는 “음악과의 PCK는 악기 학습과 관련된 문제와 성공적으로 악기를 가르치기 위한 전략에 대한 이해를 포함하는 것”이라고 하였다(p.344). 이는 음악교육에서는 다른 교과와 달리 실기 능력을 교사 전문성의 중요한 요소로 갖추어야 함을 뜻하는 것이다. 이처럼 음악 교사에게 요구되는 PCK는 일반 교과에서 요구되는 PCK와 일반적인 특성은 같지만 음악지식에 연주능력, 지휘, 청각적 인지 능력 등의 음악적 기능(musical skills)이 포함된다는 점에서 음악과 PCK의 고유한 특성이 존재한다(김희숙, 2010). 따라서 국내외 연구자들은 이러한 음악 교과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술만의 정의를 토대로 음악과 PCK의 정의와 구성요소를 밝히고자 하였다.

발렌타인과 파커는(Ballantyne & Packer, 2004)는 술만(1987)의 교사의 지식 기반 요소와 레옹(Leong, 1996)의 음악교사에게 요구되는 역량에 대한 카테고리를 토대로 하여 음악교사의 전문성을 판단하는 요소를 음악지식과 기술(Musical Knowledge and Skills), PCK와 기술(Pedagogical Content Knowledge and Skills), 비교육학적인 전문지식과 기술(Non-pedagogical Professional Knowledge and Skills), 일반교육학적 지식과 기술(General Pedagogical Knowledge and Skills)의 네 가지 범주로 분류하였다. 첫째로, 음악지식과 기술에는 연주 능력, 음악적 창의성, 지휘능력, 청각적 인지 능력, 작곡 능력과 음악사에 대한 지식이 해당된다. 둘째로, PCK와 기술은 음악 교수법에 대한 지식, 학생들이 의미 있는 방식으로 음악과 관계를 맺도록 돕기, 음악교육과정을 효율적으로 실행하기, 음악에 대한 다양한 관점으로 학생들의 능력을 평가하기, 음악적 개념을 설명하고 시범을 보이는 것을 포함한다. 셋째로, 일반교육학적 지식과 기술은 학습자와 그들의 특성에 대

한 지식, 교육의 목적과 가치에 대한 지식, 학생들의 필요를 만족시킬 수 있는 능력, 효과적인 학습을 위해 계획을 세우는 능력, 학습 환경을 조직화하는 능력, 다양한 교수 전략을 활용하는 능력을 포함한다. 마지막으로 비교육학적 지식과 기술에는 교육과정 외의 음악 활동 조직 능력, 법적 문제를 다루는 능력, 음악 예산 관리 능력, 직원들과의 협력, 지역 사회와의 소통, 동료와의 소통, 학생과 학부모들과의 소통이 해당된다.

밀리칸(Millican, 2008)은 술만(1986;1987)의 교사 지식의 영역을 음악 교육 상황에 적용하고자 하였다. 그는 교사의 지식 영역을 내용지식, 교육과정지식, 일반교육학 지식, 학습자의 특성에 대한 지식, PCK, 교육적 상황지식, 관리학적 지식의 7가지 범주로 분류하였고, PCK는 내용지식, 교육과정지식, 일반교육학지식, 학습자의 특성에 대한 지식 4가지 영역이 겹쳐지는 지점에 있는 지식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배열은 다른 지식들과의 조합을 통해 PCK가 기능하는 방식을 나타낸다. 연구자는 음악과 PCK에 대해 술만의 PCK에 대한 정의를 기초로 하되, 음악 교사가 가지고 있는 학습자에 대한 지식과 음악적 지식 및 기술, 음악적 개념의 효과적인 소통을 위해 교사의 사전적 경험들이 결합할 수 있도록 음악적 지식에 대해 음악가와는 다른 관점을 가져야 한다고 하였다.

이경언과 최승현(2007)은 음악과 PCK를 “음악과 내용을 학생들이 이해할 수 있는 형태로 전환하는 교사의 지식으로, 특정 학년에 적절한 개념을 학생들이 최대한 이해할 수 있도록 지식을 표상하는 방법”이라고 정의하고 있다(p.42). PCK는 이미 그 개념 속에 음악 교사의 전문성으로서의 다른 기준들을 부분적으로 포함하고 있으며, 음악 수업에서 교사에 의해 표출되는 것이므로, PCK는 음악교사의 전문성을 판단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PCK는 학생이해지식, 교육과정 지식, 교수전략 지식으로 구성된다고 하였다. 첫째로 ‘학생 이해 지식’은 교육 내용에 대한 학생의 이해에 대한 지식으로, 학생들이 쉽거나 어려워하는 개념에 대한 이해, 특정 개념에 대한 학생들의 선개념과 오개념에 대한 이해를 포함하는 지식으로 보았다. 두 번째로 ‘교육과정 지식’은 교수를 위해 교과 내용을 선별하고 조직하는 방법과 교과를 지도하는데 이용되는 교육과정 재

료로 교육과정에 대한 지식과 결합된 교사의 음악 레퍼토리와 교수전략으로 판단될 수 있는 지식으로 보았다. 또한 특정 학년 수준을 위해 설계된 음악 개념과 기술에 대한 분류로, 특정 학교급과 학년에서 음악 내용의 폭과 선택해야 할 재료에 대한 과다, 교과 내용에 주어진 제한된 시간과 관련하여 특별히 중요한 지식이라고 하였다. 마지막으로 ‘교수전략 지식’은 교사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내용 지식과 교수 상황의 다양성에 적응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들에 대한 지식을 결합하고, 조직하는 것에 대한 지식으로 구분하였다.

장근주(2011)는 그로스만(1990)이 제작한 PCK 인식조사도구를 토대로 하여 음악 PCK의 구성요소를 교과내용지식, 학생이해지식, 교육학지식, 상황지식으로 구분하였다. 연구자는 음악과 PCK의 구성요소를 음악지식과 음악기능을 포함한 ‘교과내용지식’, 교육 심리, 철학과 교육방법에 대한 지식을 포함한 ‘교육학지식’, 세분화된 학습내용에 대한 학생의 반응을 이해하는 ‘학생이해지식’, 실제 교수환경에 직접적 혹은 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적, 외적 지식인 ‘상황지식’의 4가지 요소로 나누었다. 또한 ‘교과내용 지식’에는 음악과 목표와 교육내용에 대한 지식을, ‘교육학지식’에는 음악과 교수방법 및 평가에 대한 지식을 포함시켰다.

박정철(2013)은 음악과 PCK를 “교사가 학생들에게 음악과 교육과정 내용을 음악과의 성격과 구조에 부합되게 가르치기 위하여 학생들의 경험을 고려하고 교사 자신의 내면적 지식을 수업 실천 상황에서 적용하여 음악과 내용을 교육 상황에 맞게 변환하는 교사의 실천적 지식”으로 정의하였다(p.36). 또한 PCK의 구성요소를 교과내용지식, 교수법지식, 학습자에 대한 지식, 교육 맥락적 지식으로 구분하였다.

마지막으로 투안 등(2000)의 PCK개념에 근거하여 박성혜(2003)가 제작한 과학 PCK 검사 도구를 음악교과에 맞게 수정하여 음악교사의 PCK 수준을 파악하고자 한 연구에서는 음악과 PCK의 구성요소를 교수법에 관한 지식, 표현에 관한 지식, 내용에 관한 지식, 평가에 관한 지식, 학생에 대한 지식, 교육과정에 관한 지식, 환경 상황에 관한 지식으로 구분하였다(주희선, 2014; 정연지, 2015; 이지희, 2016). ‘교수법에 대한 지식’은 교과의 특정 주제와 내용을 가르칠 때 그 내용에 합당한 교수-학습 방법에 대한 지

식, ‘내용 표현의 지식’은 교사들이 교과와 특정 주제와 내용을 가르칠 때 학생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내용을 표현할 수 있는 교사지식, ‘내용에 관한 지식’은 교사들이 교과를 가르치기 위한 내용, 개념, 원리, 사실 등에 대한 교사지식, ‘평가에 대한 지식’은 학생들이 교과를 학습한 것에 대해 얼마나 이해했는지 평가하는 것에 대한 교사 지식, ‘학생에 대한 지식’은 가르치고 있는 각 학생들의 차이점, 능력, 학습스타일, 발달수준, 태도, 동기, 교과에 대한 선지식 등에 대한 교사지식, ‘교육과정에 대한 지식’은 교육과정 구성, 교육과정 자료, 학습설계, 교육과정 실행과 결과, 교육과정 연계성에 대한 교사 지식, 마지막으로 ‘환경상황에 관한 지식’은 교수-학습에 영향을 주는 교사들의 내적 환경상황에 관한 교사 지식이다(박성혜 2003, p.114 재구성).

<표 II-6> 음악과 내용 교수 지식(PCK) 정의 및 구성요소

연구자	음악과 내용 교수 지식(PCK) 정의 및 구성요소
Conway(1999)	악기 학습과 관련된 문제와 성공적으로 악기를 가르치기 위한 전략에 대한 이해를 포함하는 지식
Ballantyne & Packer(2004)	음악교수활동의 기술, 의미 있는 방식으로 학생들이 음악에 참여하도록 하는 것, 음악교육과정을 효과적으로 실행하는 것, 음악의 능력을 다양한 관점으로 평가하는 것, 음악적 개념을 설명하고 시범을 보이는 것 에 대한 지식
Millican (2008)	내용지식, 교육과정지식, 일반교육학 지식, 학습자의 특성에 대한 지식이 겹쳐지는 곳에 있는 지식
이경언, 최승현 (2007), 최윤경(2012)	학생이해지식, 교수전략지식, 교육과정 지식으로 구성된 지식
장근주(2011), 주희선(2015)	교과내용지식, 학생이해지식, 교육학지식, 상황지식으로 구성된 지식

박정철(2013)	교사가 학생들에게 음악과 교육과정 내용을 음악과의 성격과 구조에 부합되게 가르치기 위하여 학생들의 경험을 고려하고 교사 자신의 내면적 지식을 수업 실천 상황에서 적용하여 음악과 내용을 교육 상황에 맞게 변환하는 교사의 실천적 지식으로 교과내용지식, 학습자에 대한 지식, 교수법 지식, 교육 맥락적 지식으로 구성됨
윤성원(2014)	교수전략 지식, 학생이해 지식, 교육과정 지식, 평가 지식, 환경 및 상황 지식, 교과 내용 지식, 교육목적 지식, 교육학 지식, 자료와 자원 지식으로 구성된 지식
윤성원(2015)	교수전략 지식, 학생이해 지식, 교육과정 지식, 평가 지식, 환경 및 상황 지식, 교과내용 지식으로 구성된 지식
주희선(2014)	교수법에 대한 지식, 표현에 대한 지식, 교과내용에 대한 지식, 평가에 대한 지식, 학생에 대한 지식, 교육과정에 대한 지식, 환경상황에 대한 지식으로 구성된 지식
정연지(2015)	
이지희(2016)	

나. 음악과의 내용 교수 지식(PCK)에 대한 선행 연구

음악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는 교실이라는 특정한 상황에서 교사의 지식이 어떻게 학생들에게 효과적으로 전달되는가에 관한 연구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음악교사의 전문성을 나타내는 지표인 PCK는 음악 수업상황에서 교사가 가지고 있는 교과와 내용적, 교육학적 지식이 학생들에게 전달되는 과정에서 발현되는 지식이므로, 음악교육의 발전을 위해서는 PCK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음악과에서의 PCK 연구는 다른 분야의 PCK 연구에 비해 아직 미비한 실정이다. 국외의 음악과 PCK 연구는 예비교사와 현직교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로, 예비교사 교육에 있어 PCK의 중요성을 강조한 연구는 다음과 같다. 발렌타인과 파커(2004)는 예비교사교육 프로그램의 효과성에 대한 초임 음악교사의 인식을 조사하는 연구를 수행하였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연구자들은 술만(1987)의 교사 지식 기반 요소와 레옹(1996)의 음악교사에게 요구되는 역량 카테고리를 토대로 음악교사의 전문성을 판단하는 요소를 음악지식과 기술(Musical knowledge and skills), PCK와 기술(Pedagogical content knowledge and skills), 일반교육학적 지식과 기술(General pedagogical knowledge and skills), 비교육학적 전문지식과 기술(Non-pedagogical professional knowledge and skills)의 4가지 범주로 구분하였다. 연구자들은 이처럼 4가지 범주에 따라 구성된 질문지를 바탕으로 설문조사와 인터뷰를 실시하였고, 연구에 참여한 교사들은 각자 네 가지 범주에 속한 24가지 항목에 대해 수행과 중요성 순위를 매겼다. 이 연구에서 교사들은 PCK와 기술의 범주를 가장 중요하게 보았으며, PCK와 기술에 대한 더 많은 훈련을 받기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발렌타인(Ballantyne, 2006)은 파커와 함께 진행한 연구(2004)를 바탕으로 하여 초임 음악 교사들을 대상으로 그들의 교사 양성과정의 효과성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는 연구를 수행하였다. 설문조사와 인터뷰를 통해 수행된 이 연구를 통해 초임 교사들은 예비 교사 양성과정의 많은 코스들이 일반 교육학 지식과 기술, 음악지식과 기술에 치우쳐져 있다고 하며, PCK와 기술을 훈련시키는 데에 더욱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음악 교사의 실제적인 역할을 고려하여 상황과 맥락을 고려한 학습이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하였다. 이처럼 위의 두 연구는 음악교사 양성과정에 있어 PCK의 중요성을 뒷받침 하고 있다. 해슨과 레옹(Haston & Leon-Guerrero, 2008) 역시 예비음악교사들의 PCK에 대해 연구를 실시하였으며, 예비음악교사들이 PCK를 획득하는 데 영향을 주는 요인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 연구에서 그들은 학생과 예비 교사의 상호작용 속에서 PCK의 적용을 알아볼 수 있는가, 견습 기간 동안의 관찰, 방법론 수업, 교사와의 협력이나 직관력 등의 요소 중 어떤 것이 예비교사의 PCK 적용에 영향을 주는가에 대한 연구문제를 가지고 예비교사의 수업에 대한 비디오 녹화자료 수집 및 분석과 인터뷰를 통해 예비교사의 PCK 형성에 대해 연구하였다.

둘째로, 현직교사를 대상으로 PCK의 중요성과 요인을 밝히고자 한 연구는 다음과 같다. 앞선 연구가 예비교사의 교육에서의 PCK의 중요성을 강조

한 연구들이라면 밀리칸(Millican, 2008;2013)의 연구들은 현직교사를 대상으로 하여 PCK의 중요성을 밝히고, PCK의 요인을 탐색하고자 하였다. 밀리칸(2008)은 음악 교사 214명 대상으로 술만이 제시한 PCK의 일곱 가지 지식 기반 중 무엇을 중요하게 인식하는지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교사들은 PCK, 내용지식, 일반교수지식 순으로 중요하게 인식하고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곧 음악교사들에게 PCK가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후 밀리칸(2013)은 인터뷰를 통해 PCK의 요인을 기준으로 음악교사들의 생각을 분석하는 연구를 수행하였다. 인터뷰 과정에서 학생의 연주 동영상을 시청하도록 하면서 교사들의 의견과 지도 내용을 중심으로 인터뷰를 진행하였으며, <표 II-7>에서 제시한 PCK의 요인을 토대로 인터뷰 내용을 분석하였다. 교사들은 연구에서 학생들의 수행을 통해 무엇을 보고 듣기 원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이미지를 보여주었으며, 학생들의 지적 능력을 발달시키기 위해 모델링, 비교, 질문 등의 방법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7> 음악과의 내용 교수 지식 요인

Pedagogical Content Knowledge 요인
교사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미지나 모델과 비교하여 학생들의 수행을 평가한다.
교사들은 학생들의 수행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변수를 이해한다.
교사들은 학생들의 작품을 이해하기 위해 특정한 자료를 모으고 해석한다.
교사들은 학생들의 수행을 돕기 위해 특정한 규칙, 절차, 지침을 개발한다.
교사들은 학생들에 대한 지도가 연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결정을 내리고, 설명이 필요한 문제들을 우선적으로 처리한다.
교사들은 학생의 문제들을 미리 예측한다.
교사들은 학생들이 자신의 연주를 교사와 동료로 모델로 하여 비교해보도록 한다.
교사들은 학생들이 음악을 만드는 신체적인 과정에 대해 인지할 수 있도록 신중한 질문을 사용한다.
교사들은 학생들의 음악적 개념에 대한 이해를 돕는 표현방법을 사용한다.

교사들은 일반적으로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오개념과 잘못된 표현들에 대해 이해한다.

출처: Millican, J. S. (2013). Describing instrumental music teachers' thinking: implications for understanding pedagogical content knowledge. *National Association of Music Education*, 31(2), 48.

국내의 음악과 PCK 연구는 PCK의 분석 및 개발에 관한 연구, PCK를 기준으로 한 내용 분석 연구, PCK와 다른 변인과의 관계를 알아보는 연구, PCK에 대한 인식 조사를 통해 교사의 PCK 수준을 알아보고자 한 연구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로, 교사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PCK를 분석하고 개발하고자 진행된 연구는 다음과 같다. 이경언과 최승현(2007)은 2007 교육과정 개정에 따른 음악과 내용 교수 지식의 의미를 정립하고, 음악과 PCK의 연구 틀과 분석, 개발 틀을 설정하였다. 또한 이에 따라 다양한 유형의 PCK 사례를 분석 및 개발함으로써 음악교사의 수업 전문성의 특징을 규정하고, 교사들의 전문성 신장에 기여하고자 하였다. 김희숙(2010)은 자진모리장단에 대한 초등 교사의 PCK 실태를 반구조적 면담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였다. 음악교사에게 요구되는 PCK를 음악지식, 음악 기능, 음악 교수법으로 제시하고 이를 토대로 장단지도에 요구되는 PCK를 설정한 후, 구체적인 장단지도 관련 제재, 내용, 문제 선정의 과정을 통해 질문을 구성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분석결과 초등 교사들은 매우 초보적인 수준에서 장단을 이해하고 있었고, 교육과정에 제시된 국악 용어도 잘 알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교사의 장단 연주 수준은 음악 수업에서 반주의 기능을 하기에 충분하지 못하였으며, 본시 목표 도달을 위한 교수 학습 방법 지식 및 교육과정 지식의 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윤경(2012)은 이경언과 최승현(2007)의 음악 PCK 구성요소인 교육과정 지식, 학생 이해지식, 교수 전략 지식을 토대로 초등학교 음악 창작 수업에 나타난 교사의 PCK 사례들을 분석하였다. 교육과정 지식은 학습 목표와 학습 활동의 관련성, 학습 목표 도출을 위한 동기 유발의 적절성, 교육과정 재구성 관점으로 범

주화하였고, 학생 이해 지식은 학습자의 수준을 고려한 학습 과제 및 평가, 학생 활동에 대한 피드백의 적절성, 감상 관점의 제시 및 감상 기회의 제공의 관점으로 범주화하였다. 또한 교수 전략지식은 교수 용어의 적절성, 학습 자료의 적절성 및 이용의 효율성, 판서의 적절성, 기타 교수 전략으로 범주화하였다. 각각의 범주화된 사례들은 강화 PCK사례와 개선 PCK 사례로 나누어 분석하여 음악교육의 질을 높이고자 하였다. 마지막으로 박정철(2013)은 수업의 중요한 수단이자 소재인 내러티브를 음악과 PCK 개발에 접목시키고자 시도하였다. 2009 개정 음악 교과서에 나타난 감상곡을 중심으로 내러티브의 방법을 활용하여 음악과 PCK의 구안 방법을 탐색하였다.

둘째로, PCK를 기준으로 한 내용 분석 연구는 다음과 같다. 윤성원(2014)은 교육현장에서 교육과정을 적용하여 수업하는 교사의 교수 역량 강화를 위해 교사에게 PCK의 구성요소 중 어떤 영역을 발달시켜 주면 좋을지에 대해 살펴보는 연구를 실시하였다. 선행연구를 통해 PCK의 구성요소를 교수전략 지식, 학생이해 지식, 교육과정 지식, 평가 지식, 환경 및 상황 지식, 교과 내용 지식, 교육목적 지식, 교육학 지식, 자료와 자원 지식으로 나누었으며, 이를 토대로 2009 개정 음악과 교육과정의 적용에 필요한 PCK의 요소를 알아보았다. 또한 그는 음악 PCK의 구성요소를 교수전략, 학생이해, 교육과정, 평가, 환경 및 상황, 교과내용으로 나누어, 이를 기준으로 음악교사 임용시험의 내용을 탐색함으로써 PCK에 근거한 음악교사 임용시험의 내용을 제시하기도 하였다(윤성원, 2015).

셋째로, 음악교사의 PCK와 다른 변인과의 관계를 알아보려고 하는 연구는 모두 예비음악교사들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연구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정연지(2015)는 예비음악교사들의 현대음악에 대한 PCK와 교수효능감 수준을 파악하고, 두 요인 사이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는 연구를 수행하였다. 연구결과 현대음악에 대한 PCK와 교수효능감 수준은 예비교사들의 전공과 현대음악 관련 강의 수강경험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으며, PCK가 높을수록 교수효능감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지희(2016)는 예비음악교사의 PCK 수준과 교수태도에 대해 조사하고, 각각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차이를 살펴본 후, 두 변인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는 연구를 수행하였다. 연구결과 예

비음악교사의 PCK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일반적 특성은 현재 학기, 전공, 국악 관련 강의 수강과목 수로 나타났으며, PCK와 교수태도는 정적 상관관계로 두 변인이 상호간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의 두 연구에서 정연지(2015)와 이지희(2016)는 교사의 PCK 수준을 파악하기 위해 박성혜(2003)의 과학 교과교육학지식 검사 도구를 각각의 목적에 맞게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김혜림(2015)은 예비음악교사의 타 전공 음악분야에 대한 PCK 수준과 교수불안의 정도에 대해 조사하고 양자 간의 상관관계에 대해 밝히는 연구를 수행하였다. 특히 연구자는 한국교육평가원에서 음악 PCK 분석기준으로 제시한 ‘2007 음악 수업 전문성 기준’을 사용하여 음악내용 및 방법지식, 수업설계, 학급운영, 수업실행, 전문성 발달의 영역으로 나누어 검사 도구를 구성함으로써 음악PCK의 수준을 측정하고자 하였다.

마지막으로 PCK에 대한 교사의 자성적 인식을 조사함으로써 교사의 PCK 수준을 알아보고자 한 연구는 예비 교사와 현직 교사 연구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예비 교사의 PCK에 대한 인식 조사 연구는 주희선(2014)의 교육실습여부에 따른 예비중등음악교사의 교과교육학지식(PCK)에 대한 인식 차이 조사 연구, 주희선(2015)의 교육실습 경험과 교수내용지식(PCK)에 대한 예비중등음악교사의 인식 조사 연구가 있다. 주희선(2014)은 예비중등음악교사의 PCK에 대한 인식 조사 연구를 실시하기 위해, 투안(2000)의 PCK 개념에 근거하여 박성혜(2003)가 제작한 과학 PCK 검사도구를 음악교과에 맞게 수정하여 사용했다. 연구결과 예비음악교사들은 교육과정 지식과 평가 지식을 가장 낮게 인식하고 있었으며, 환경상황지식을 가장 높게 인식하고 있었다. 또한 교육실습을 경험은 예비중등음악교사의 PCK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모의 수업시연 경험에 따른 PCK 인식 차이는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이후, 연구자는 예비중등음악교사들의 교육실습 경험과 이와 관련된 PCK 요인들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는 연구를 수행하였다(주희선, 2015). 이 연구에서는 그로스만(1990)이 개발한 PCK 인식조사도구에서 제시된 네 가지 하위요인인 교육학지식, 상황이해지식, 교과내용지식, 학생이해지식을 기준으로 인터뷰 질문 문항을 구성한 후, 포커스 그룹 인터뷰와 교육실습일지 분석을 통해 연구 결과를 얻었다. 연구결과 예비교

사들은 교육실습 경험이 PCK 향상에 도움이 된다고 인식하였으며, 교육실습을 통해 PCK의 교육학지식 상황이해지식, 학생이해지식과 연관성 있는 경험을 한 것으로 인식하였으나, 교과내용지식과 교육학지식에서 부족함을 느낀 것으로 나타났다.

현직 교사를 대상으로 한 PCK 인식 조사 연구는 장근주(2011), 김희숙(2015)의 연구 등이 있다. 중등학교 교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는 장근주(2011)의 음악교사의 교수내용지식(PCK)에 대한 인식 연구, 초등학교 교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는 김희숙(2015)의 초등교사의 국악 PCK 인식 및 형성 과정 연구이다. 장근주(2011)는 그로스만(1990)이 제작한 PCK 인식조사 도구를 토대로 하여 음악 PCK의 구성요소를 교과내용지식, 학생이해지식, 교육학지식, 상황지식으로 구분하고 설문 도구를 제작한 후, 중등 음악교사의 PCK에 대한 인식 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 교과내용지식과 상황이해지식은 비교적 높게 나타난 반면, 교육학지식과 학생이해지식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경력 10년 이상의 교사집단의 PCK 영역별 평균이 전반적으로 높게 형성되었으며, 그 중 학생이해지식과 교육학지식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난 것으로 드러났다. 김희숙(2015)은 초등교사가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는 국악 PCK의 요소와 형성과정을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통하여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교사들은 국악 실기 능력과 교육과정에 기반한 국악 교육내용을 가장 중요한 구성 요소로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국악PCK 형성은 입문, 관심, 발달 단계로 나누어 보았는데, 대부분의 교사들은 입문 단계에 머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 국악 교육에 대한 교사 인식 조사 연구

학교현장에서 실시되는 국악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국악교육에 대한 현황 및 실태 조사 연구는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현장 실태 조사 연구에서 국악교육의 가장 큰 문제이자 어려움으로 거론되는 것은 단연 교사의 국악에 대한 교수 능력과 전문성이라 할 수 있다. 장근주(2007)의 연

구에서도 학생들조차 국악교육의 문제를 음악교사의 전통음악에 대한 지식 부족으로 지적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따라서 최근에는 교육의 질을 높이는 데에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교사의 인식에 초점을 맞추어 국악 교육의 실태를 파악하고자 하는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국악 교육에 대한 교사 인식과 관련된 기존의 연구는 세 가지 측면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는, 국악 교육에 대한 교사의 전반적인 인식을 조사하는 연구이다. 정은경(2009)은 부산교육대학교 초등교육연구소의 교사 연수 프로그램에 참여한 부산, 경남, 울산 지역 거주 초등 교사들을 대상으로 국악교육 현황을 분석해 보고, 국악교육에 대한 관심이 어느 정도인지 국악교육 전반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는 연구를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국악연수 경험이 국악 및 국악교육에 대한 인식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되어 국악연수의 개발과 필요성이 강조된다고 보고하고 있다. 또한 황상아(2013)는 중등과정 예비음악교사들을 대상으로 하여 국악 교육 능력 파악, 국악 교육 필요성, 또한 그들이 희망하는 교육대학원 과정에서의 국악교과목으로 나누어 인식 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예비교사의 대부분은 국악에 대한 관심이 많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고, 국악 수업을 하는데 있어 국악 실기 능력을 상당부분 배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교육대학원에서 국악 개설이 충분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국악 전공 출신을 제외한 예비교사들은 거의 국악 수업을 실시할 준비가 되어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비교사들은 대부분 국악 교육은 우리의 전통음악이기 때문에 필요하며 서양음악과 국악이 동등하게 교육되어야 한다고 답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둘째는, 음악과 교육과정에 초점을 맞추어 국악교육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는 연구이다. 홍주희(2012)는 학교의 국악교육은 음악과 교육과정의 틀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음악과 교육과정의 국악 교육 내용이 어떤 모습으로 변화해 왔는지 변화 과정을 살펴보고, 제주지역 초등교사를 대상으로 실제 학교 현장에서의 국악교육 실태와 국악교육에 대한 교사의 인식을 분석하는 연구를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 교사들 중 많은 수가 ICT 및 멀티

미디어 자료에 의존해 국악 수업을 하고 있다고 하였으며, 국악 수업에 자신감을 가지고 있지 않는 것으로 응답하였다. 또한 교육과정에 제시된 국악 용어에 대해 잘 모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반면 김희숙(2013)의 연구는 음악과 교육과정 중 국악개념에 대한 교사의 이해와 중요도에 관한 인식 조사라는 점에서 홍주희(2012)의 연구와 구분된다. 그는 음악과 교육과정 편성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초등학교 교사 중 음악을 지도하고 있는 교사를 대상으로 하여 음악과 교육과정 국악개념 이해 수준과 중요도에 대한 인식 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 교사의 이해 수준에 따라 개념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정도가 다른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국악개념에 대한 교사의 이해 수준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마지막으로 국악교육에 대한 교사의 전문성 관점으로 교사의 인식 조사를 실시한 연구이다. 이지형(2002)의 연구는 국악교육에 대한 인식과 관련하여 교사의 지도 교수능력에 초점을 맞추어 실행되었다. 그는 초등학교 국악 교육의 문제점과 교사의 교수 능력에 대한 인식의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초등교사를 대상으로 국악교육 지도의 교수능력에 대한 자기 인식도를 조사하는 연구를 실시하였다. 그는 국악교육 지도 교수능력을 첫째, 교사의 음악 교과 지도 전반, 국악 영역의 지도에 관한 인식, 둘째, 국악의 가창 기악 창작 감상 국악 영역의 지도 능력에 대한 인식, 셋째, 교사 개인의 성향으로 영역을 나누어 살펴보았다. 또한 정길선(2008)은 중등학교 음악교사를 대상으로 국악교육 전문성에 대한 인식 조사 연구를 실시하였다. 그는 국악교육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교사들의 인식을 조사하고 분석함으로써 중등 음악교사의 국악교육 전문성 향상에 도움이 되고자 하였다. 설문은 크게 음악교사 전문성에 대한 인식, 중등음악교사 양성제도에 관한 인식, 국악교육의 실태, 국악교육의 발전방안에 대해 묻는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특히, 음악교사의 전문성에 대한 교사들의 인식을 알아보기 위해 음악교사로서 전문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지식과 능력에 관한 문항과 음악교사로서의 역할기대에 관한 문항을 설정하여 조사하고, 국악교육에 대한 교사들의 자신감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는 등 국악교육에 대한 교사의 전문성을 다방면에서 살펴보려고 하였다. 연구결과 교사들은 음악교사로서 전문적인 지식과 능력

중 가장 중요한 것으로 연주능력이라고 응답하였고, 음악교사로서 실기능력을 기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또한 국악교육에 대한 자신감은 보통수준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어 연수를 통해 국악교육에 대한 전문성과 자신감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다양한 기회 제공의 필요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였다.

지금까지 PCK의 개념 및 특성, PCK 연구, 음악과에서의 PCK 정의와 구성요소 및 선행 연구, 국악에 대한 인식 조사 연구에 대해 분석을 해 보았다. PCK는 교실 수업 상황에서 교사의 전문성을 드러낼 수 있는 핵심적인 지표로 음악 교육에 있어서도 교사의 교수 능력, 수업 전문성을 설명하고, 수업의 질을 높이기 위해 PCK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져 오고 있다. 이처럼 음악 교사의 PCK에 대해 비교적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어 오고 있기는 하지만 아직은 다른 교과에 비해 미비한 실정이다. 따라서 음악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현직 교사의 PCK를 중심으로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특히 실제 음악 수업에서 교사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악 내용 관련한 PCK 연구는 주로 초등 교사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중등음악교사에 대한 연구는 찾아보기 힘들다. 그러므로 중등학교의 국악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중등 음악 교사를 대상으로 한 국악 PCK 연구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선행 연구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PCK는 특정한 주제를 학생의 지식수준에 맞게 가장 잘 표현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교사의 이해로서 수업 상황에서 드러나는 교사의 지식이다. 이러한 이유로 교사의 판단에 의해 사용되지 않은 지식들은 관찰할 수 없고 수업에서 다루지는 교과내용에 대하여 부분적인 지식만을 관찰할 수 있다. 그러므로 PCK의 측정을 위해서는 교사들로 하여금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에 대해 설명할 수 있도록 해야 할 필요가 있다(Baxter & Lederman, 1999).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에서 제시한 PCK의 측정을 위한 여러 연구방법 중 인식 조사 방법을 사용하여 교사의 국악 PCK 수준에 대한 자성적 인식을 조사함으로써 중등음악교사의 국악 교수능력 및 전문성을 알아보고자 한다.

4. 국악 내용 교수 지식(PCK)

PCK에 관한 선행 연구 결과 PCK는 다른 직업과 구별되는 교사 고유의 전문적인 영역으로서, 고정된 지식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 특정 주제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며, 교수 경험에 대한 교사 자신의 반성을 통해 계속 변화하고 발전해가는 개념으로 정리할 수 있다. 또한 선행연구를 통해 밝혀진 바와 같이 PCK는 영역과 주제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서양음악과 국악으로 이분화 되는 우리나라의 특수한 음악교육 상황에서 음악교사의 PCK를 국악의 범위로 한정지어 살펴보려는 시도는 음악교사의 전문성에 관한 연구 차원에서 필요한 일임이 분명하다.

본 연구에서는 이경언과 최승현(2007)의 음악과 PCK의 정의를 수용하되, ‘음악과 내용’을 ‘국악 관련 음악과 내용’으로 한정 지어 국악 내용 교수 지식(PCK)을 정의하고자 한다. 즉, 본 연구에서의 국악 PCK는 ‘국악 관련 음악과 내용을 학생들이 이해할 수 있는 형태로 전환하는 교사의 지식으로, 특정 학년에 적절한 개념을 학생들이 최대한 이해할 수 있도록 지식을 표상하는 방법’이라고 정의한다. 또한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국악 PCK의 구성요소를 <표 II-8>과 같이 구분하였다. 국악 PCK는 위의 표와 같이 교과내용 지식, 교수방법지식, 평가지식, 학생이해지식, 환경상황이해 지식의 5가지 구성요소로 나누어 볼 수 있다. PCK의 구성요소는 각각 독립된 영역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다른 요소들과 상호작용을 통해 발현되고 변화될 수 있다. 첫째로, 교과 내용지식은 국악 이론적 지식, 국악 실기 기능, 국악 관련 교육과정 지식과 관련된 것이다. 둘째로, 교수방법지식은 국악에 적합한 교수 방법에 대한 지식을 포함한다. 셋째로, 평가지식은 국악 관련 내용의 평가에 대한 지식이다. 넷째로, 학생이해지식은 국악을 학습하는 학생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와 관련된 지식이다. 마지막으로, 환경상황이해지식은 국악을 학습하게 되는 교실 및 학교 환경 및 상황에 대한 이해, 수업을 실행하는 교사 자신의 상황에 대한 지식을 포함한다. 이 중 교과내용지식, 교수방법지식, 학생이해지식, 상황이해지식은 선행 연구에서의 일반적인 PCK의 구성요소로 각각의 영역을 가지고 있으나, 평가지식은 교수방법지식이나 교과

내용지식의 일부로 포함이 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평가지식은 다른 구성 요소와 마찬가지로 교과내용지식과 교수방법지식, 학생이해지식, 상황이해지식에 영향을 미치고, 상호작용할 수 있는 지식으로 판단하여, 본 연구에서는 국악 PCK의 구성요소 중 하나로 끌어내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선행연구를 통해 도출된 PCK의 5가지 구성요소를 중심으로 전개된다.

<표 II-8> 국악 내용 교수 지식(PCK) 구성요소

국악 내용 교수 지식 (PCK) 구성요소				
교과내용지식	교수방법 지식	평가지식	학생 이해지식	환경상황 이해지식
국악 이론적 지식, 국악 실기 기능, 국악 관련 교육과정 지식	국악에 적합한 교수 방법에 대한 지식	국악 관련 내용의 평가에 대한 지식	국악을 학습하는 학생에 대한 이해 지식	국악을 학습하게 되는 교실 및 학교 환경 및 상황에 대한 이해, 수업을 실행하는 교사 자신의 상황에 대한 지식

Ⅲ.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및 연구 방법

본 연구는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양적 연구와 질적 연구 방법을 모두 사용하였다. 중등음악교사의 국악교수내용지식에 대한 인식 수준을 알아보기 위해 설문 도구를 개발하고, 조사하는 양적 연구 방법을 통해 통계 결과를 도출해 낸 후, 양적 연구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통계 결과를 바탕으로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실시함으로써 질적 연구 방법을 병행하여 연구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다. 양적 연구를 위한 연구 도구는 ‘국악 내용 교수 지식(PCK)에 대한 인식 조사 도구’가 사용되었으며, 음악과 교육과정(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11-361호), 교사들의 과학 교과교육학 지식 측정 도구(박성혜, 2003), 음악교사의 교수내용지식에 대한 인식 조사 도구(장근주, 2011)를 참고하여 개발하였다. 개발된 조사 도구의 문항은 모두 긍정문항이며 문항반응은 리커르트식 5단계 척도를 사용하고 있으며, 질문지의 평가는 ‘매우 그렇다(5점)’, ‘그렇다(4점)’, ‘보통이다(3점)’, ‘그렇지 않다(2점)’, ‘전혀 그렇지 않다(1점)’으로 점수를 부여하여 통계처리 하였다. 또한 질적 연구 방법으로써 통계 결과를 토대로 인터뷰 대상과 질문을 선정한 후, 인터뷰를 실시하여 결론을 도출해 냈다.

가. 양적 연구

본 연구는 비확률 표본추출법 중 하나인 유목적적 표집방법(purposeful sampling method)을 사용하여 연구 대상자를 선정하였으며, 서울, 경기, 인천 지역에 있는 중등음악교사 12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실제 조사는 2014년 1월 6일부터 2014년 2월 28일까지 진행되었다. 교사 모임 및 연수 장소 등을 방문하여 연구의 목적과 취지, 설문내용과 기재방법

등에 대해 설명하고 설문지를 배부하였으며, 현장 또는 메일을 통해 설문지를 회수하였다. 본 연구는 12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나, 이 중 무응답 등 일부 결측값이 포함된 9명의 자료는 제외한 114명의 자료를 유효하게 보고 자료처리 하였다.

<표 Ⅲ-1> 설문 조사 대상

국악을 교육 받은 기간 교직 경력	2년 이하	2년 이상	국악 전공자	합계
10년 이하	25	21	8	54
11년 이상	36	21	3	60
합계	61	42	11	114

나. 질적 연구

본 연구에서는 양적 연구의 기준과 마찬가지로 교직 경력(10년 이하, 11년 이상) 요인과 국악을 교육 받은 기간(2년 이하, 2년 이상) 요인으로 영역을 구분하였으며, 설문 조사에 참여했던 교사 중 각 영역에 속하는 교사 6명을 포커스 그룹 인터뷰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인터뷰는 2016년 8월 5일부터 2016년 8월 23일까지 진행되었으며, 인터뷰 대상에 따른 구분과 세부 내용은 <표 Ⅲ-2>, <표 Ⅲ-3>과 같다.

<표 Ⅲ-2> 인터뷰 대상 구분

국악을 교육받은 기간 교직경력	2년 이하	2년 이상	국악전공자
10년 이하	A교사	B교사	E교사
11년 이상	D교사	C교사	F교사

<표 Ⅲ-3> 인터뷰 대상 세부 내용

면담 대상	학부전공	교직 경력	국악에 대한 음악적 경험	
			국악교육 기간	국악교육 내용
A교사	피아노	3년	1년	대학원 국악 수업 개인레슨 (단소, 민요)
B교사	피아노	8년	3년	1급 정교사 연수, 개인레슨 (해금, 민요, 단소)
C교사	음악교육	15년	9년	학부 및 대학원 국악수업, 국립국악원, 1급 정교사 연수
D교사	성악	20년	6개월	학부 국악이론 수업, 1급 정교사 연수
E교사	국악 (대금전공)	8년	13년	중·고·대학교 전공수업, 국악강사풀제연수, 1급 정교사 연수, 개인레슨(가야금, 전통무용)
F교사	국악 (가야금전공)	30년	16년	대학교 전공수업, 1급 정교사 연수, 문화센터(사물장구), 개인레슨(가야금, 해금, 단소)

2. 연구 도구 및 내용

가. 양적 연구

1) 국악 내용 교수 지식에 관한 설문조사 내용

교사의 국악 PCK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기 위해 앞서 도출된 국악 PCK의 구성 요소에 따른 하위 내용은 다음의 <표 Ⅲ-4>와 같으며, 총 38문항

으로 구성되었다.

첫째로, 교과내용지식은 교육과정, 표현, 감상 및 이해 영역으로 나뉘어 졌으며, 음악과 교육과정 내용과 국악 가창, 기악, 창작, 감상에 대한 지식에 대한 인식을 묻는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둘째로, 교수방법지식은 표현, 감상, 생활화로 구분되었고, 이것은 2011년도에 개정된 교육과정의 구분과 같은 것이다. 국악 가창, 기악, 창작, 감상, 생활화와 관련된 교수방법 지식을 묻는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셋째로, 평가지식은 평가 내용, 방법, 영역별 평가, 평가의 활용으로 구분되었으며, 교육과정에서 제시된 평가에 대한 지침을 기반으로 하여 문항을 작성하였다. 평가에 대한 문항에 대해서 본 연구에서는 국악에 대한 평가를 주로 묻고 있지만, 음악 수업 전반에서의 평가에 대한 지식을 묻는 것과는도 연관된다. 넷째로, 학생이해지식은 학생의 수준과 특성에 대한 이해와 학습에 대한 이해로 나뉘어 졌다. 국악학습에 대한 학생 집단의 전반적인 수준과 개별적인 수준 및 특성에 관한 것과, 국악 학습상황에서의 어려움 장점 등을 묻는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마지막으로 환경상황이해지식은 국악수업을 하는 학교와 지역 등 주변 상황과 여건을 묻는 문항과 교사 자신의 상황에 대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표 Ⅲ-4> 국악 내용 교수 지식에 관한 설문조사 내용

국악 내용교수지식 구성요소	소영역	하위내용	문항 번호
1. 교과내용지식	교육과정	음악과 교육과정	14,15
	표현	국악 가창 관련 지식	16,17,18
		국악 기악 관련 지식	19,20
		국악 창작 관련 지식	21
감상 및 이해	국악곡의 특징에 대한 지식	22	
	국악기의 특징에 대한 지식	23	
	민요의 음계(토리) 관련 지식	24	
2. 교수방법지식	표현	국악 영역 통합지도에 관한 지식	25
		국악 가창 지도에 관한 지식	26
		국악 기악 지도에 관한 지식	27,28
		국악 창작 지도에 관한 지식	29
감상	국악 감상 지도에 관한 지식	30,31	
생활화	국악의 생활화 관련 지도	32,33	
3. 평가지식	평가내용 및 평가방법	평가내용 및 평가방법에 대한 지식	34
		표현 활동 평가에 대한 지식	35
	평가활용	감상 평가에 대한 지식	36
		생활화 관련 평가에 대한 지식	37
		평가 결과 활용에 관한 지식	38
4. 학생이해지식	학생의 특성 및 지식수준	학생집단의 특성에 관한 지식	10
		학생의 개인차에 관한 지식	11
	학습에 관한 이해	학습 상황에서 학생의 어려움에 대한 이해 학습 상황에서 학생의 장점에 대한 이해	12 13
5. 환경상황이해 지식	환경 및 상황 이해	국악 수업의 필요성에 대한 이해	1
		수업 환경에 대한 이해	2
		지역, 학교에 대한 이해	3
		국악 관련 공연 및 행사에 대한 지식	4
	교사 자신의 상황 이해	교사의 반성적 지식 교사의 자신감 교사의 선호도 교사의 교수능력 교사의 지속적인 학습	5 6 7 8 9

2) 설문지의 타당도와 신뢰도

설문 문항의 타당도를 높이기 위해 음악교육전공 교수 1인과 박사학위 소지자 1인, 음악교육 박사과정에 재학 중인 현직교사 1인의 내용 및 문항 적합성에 대한 검정을 통해 수정 및 보완 후에 설문지를 완성하였다. 또한 완성된 설문 문항의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해 Cronbach's α 계수를 이용하였다. <표 Ⅲ-5>는 국악 PCK의 척도의 하위영역별 문항번호와 신뢰도이다. 분석결과 Cronbach's α 값이 .829~.913 으로 .60이상이므로 신뢰도에 부합된다.

<표 Ⅲ-5> 구성요소별 신뢰도

국악 내용 교수 지식 구성요소	문항번호	문항수	신뢰도
교과내용지식	14~24	11	.913
교수방법지식	25~33	9	.885
평가지식	34~38	5	.903
학생이해지식	10~13	4	.834
환경상황이해지식	1~9	9	.829
전체		38	.956

나. 질적 연구

인터뷰에서는 본 연구의 연구 문제인 ‘교사의 배경(경력, 국악을 교육 받은 기간)에 따라 국악 PCK에 차이가 있는가’에 대한 양적 연구의 연구 결과를 심층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교직 경력과 국악을 교육 받은 경험이 국악 PCK의 형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질문을 실시하였다. 또한 마지막 연구 문제인 ‘중등음악교사의 국악 PCK를 향상시키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에 대한 결론을 도출하기 위한 질문도 함께 실시하였다. 구체적인 인터뷰 내용은 <표 Ⅲ-6>과 같다.

<표 Ⅲ-6> 인터뷰 내용

1. 교직경력과 국악을 교육 받은 경험이 본인의 국악 PCK를 형성하는 데 있어 어떠한 영향을 주었다고 생각하는가?
2. 중등음악교사의 국악 PCK를 향상시키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3. 분석 방법

가. 양적 연구

수집된 자료는 SPSS 18.0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첫 번째 연구문제와 관련하여 ‘국악 PCK의 영역별 인식 수준’은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하여 영역별로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았다. 또한 두 번째 연구문제인 ‘교사의 배경에 따른 국악 PCK의 인식 수준 차이’는 독립표본 t-검정을 실시하여 통계적 의미를 살펴보았다. 본 연구에서는 교사의 배경요인을 교직 경력, 국악을 교육받은 기간으로 나누어 인식 차이를 살펴보았다. 교직 경력은 10년 이하, 11년 이상으로 구분하여 두 집단으로 나누었다. 또한 국악을 교육받은 기간에 대해서는 2년 미만, 2년 이상으로 구분하여 두 집단으로 나누었다. 이 때 국악을 전공한 교사의 국악 PCK는 비전공 교사에 비해 높을 것으로 생각되어 비전공 교사의 국악 PCK에 국악을 교육 받은 기간이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정확한 상관관계를 밝히기 위해 국악을 전공한 교사 11명은 제외하고, 비전공 교사만을 대상으로 두 집단으로 구분하여 자료를 분석하였다.

나. 질적 연구

인터뷰 결과는 모두 전사한 후, 반복하여 읽어봄으로써 질적 연구 분석의 중심 주제를 ‘국악 PCK의 형성과정’으로 정하였다. 인터뷰 질문을 통해 알아보고자 한 것은 크게 두 가지로 ‘교직 경력과 국악을 교육 받은 기간이 국악 PCK를 형성하는 데에 미치는 영향’과 ‘국악 PCK를 향상시키기 위해 필요한 것’으로, 이는 연구문제 2번, 3번과 관련된 것이다. 따라서 중심 주제를 ‘국악 PCK의 형성과정’으로 하여 인터뷰 내용을 분석함으로써 연구문제에 대한 결론을 도출해내고자 하였다. 또한 양적 연구 결과 국악을 교육 받은 기간이 국악 PCK 인식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국악 PCK의 형성과정’은 국악 전공 교사와 국악 비전공 교사(국악을 교육 받은 기간 2년 미만, 2년 이상)로 나누어 자료 분석하였다.

IV. 연구 결과

1. 중등 음악 교사의 국악 PCK에 대한 인식 조사 도구

가. 국악 PCK의 구성요소별 인식 수준

1) 전반적인 인식 수준

중등음악교사의 국악 PCK에 대한 인식 수준은 각 항목별로 평균 3.23~3.67로 나타났다. 구성요소별로 살펴보면, 학생이해지식(M=3.67), 교과내용지식(M=3.55), 평가지식(M=3.38)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반면, 환경상황이해지식(M=3.23), 교수방법지식(M=3.25)에 대한 인식수준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장근주(2011)의 음악에 대한 중등음악교사의 PCK 인식 수준에 대한 연구 결과(교과내용지식(M=4.16), 상황이해지식(M=4.24), 교육학지식(M=3.62), 학생이해지식(M=3.53))와 비교해 보았을 때 대체로 낮은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장근주(2011)의 연구에서는 교과내용지식이 다른 구성요소와 비교하여 가장 높은 평균값(M=4.16)나타났는데, 본 연구에서 국악으로 내용을 한정지어서 살펴본 결과 교사들의 교과내용지식은(M=3.55) 앞선 연구와 비교해 볼 때, 상대적으로 낮은 수치로 나타났다. 이는 중등음악교사의 국악 내용에 대한 교과지식이 음악의 다른 영역에 대한 지식보다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표 IV-1> 국악 PCK의 구성요소별 인식 수준

구성요소	N	최소값	최대값	평균(M)	표준 편차
교과내용지식	114	1.64	5.00	3.55	.68419
교수방법지식	114	1.33	5.00	3.25	.69953
평가지식	114	1.00	5.00	3.38	.77768
학생이해지식	114	1.75	5.00	3.67	.66708
환경상황이해 지식	114	1.33	5.00	3.23	.69580

2) 교직 경력에 따른 인식 수준 차이

경력별로 국악 PCK의 구성요소별 전체 평균의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았다. 학생이해지식 영역은 경력 11년 이상의 교사 집단의 평균값이 높았지만, 학생이해지식을 제외한 나머지 영역은 교직경력 10년 이하인 교사 집단의 평균값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그러므로 교직 경력에 따른 국악 PCK의 인식 수준은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표 IV-2> 교직 경력에 따른 인식 차이 집단통계분석

교직경력		N	평균	t	유의확률
교과내용지식	10년 이하	54	3.5194	.534	.594
	11년 이상	60	3.4535		
교수방법지식	10년 이하	54	3.3231	1.818	.072
	11년 이상	60	3.0923		
평가지식	10년 이하	54	3.4333	1.1781	.078
	11년 이상	60	3.1467		
학생이해지식	10년 이하	54	3.5787	-.522	.603
	11년 이상	60	3.6417		
환경상황이해 지식	10년 이하	54	3.5922	.824	.412
	11년 이상	60	3.5130		

3) 국악을 교육받은 기간에 따른 인식 수준 차이

교사가 국악을 교육받은 기간에 따라 국악 PCK의 구성요소별 전체 평균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았다. 결과에 따르면 국악을 교육받은 기간이 2년 이상인 교사 집단의 평균값이 2년 미만의 교사 집단 보다 모든 영역에서 높게 나타났다. 또한 학생이해지식을 제외한 나머지 항목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 < .05$). 그러므로 국악을 교육받은 기간은 국악 PCK에 대체로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겠다. 단, 학생이해지식은 국악을 교육받은 기간별 집단 간의 평균 차이가 가장 적게 나타났다. 앞선 결과에서 학생이해지식의 평균값이 교직 경력 10년 이상인 교사 집단이 높은 것으로 미루어 보아, 학생이해지식은 국악을 교육받은 기간보다는 교직경력에 의해 더욱 영향을 받는 것으로 보인다.

<표 IV-3> 국악을 교육받은 기간에 따른 인식 차이 집단통계분석

영역	기간	N	평균	t	유의확률
교과내용지식	2년 미만	61	3.3502	-3.547	.001*
	2년 이상	42	3.7921		
교수방법지식	2년 미만	61	3.1075	-2.312	.023*
	2년 이상	42	3.4043		
평가지식	2년 미만	61	3.1344	-2.687	.008*
	2년 이상	42	3.5667		
학생이해지식	2년 미만	61	3.5451	-1.572	.119
	2년 이상	42	3.7381		
환경상황이해 지식	2년 미만	61	3.4621	-2.970	.004*
	2년 이상	42	3.7598		

(* $p < .05$, ** $p < .001$)

나. 국악 PCK의 항목별 인식 수준

1) 교과내용지식

가) 전반적인 인식 수준

다음의 <표 IV-4>는 국악 PCK 중 교과내용지식의 인식 수준에 대해 평균값이 높은 문항부터 순서대로 제시해 놓은 것이다. 본 연구에서의 교과내용지식이란 음악 교과의 영역 중 국악과 관련한 음악교사의 이론적 지식, 실기 기능, 교육과정 지식을 뜻한다. 교과내용지식에 관한 문항은 총 33개의 문항 중 11개의 문항이다. 결과를 살펴보면, 장구 실기 능력과 관련된 20번 문항을 제외하고 평균값이 높은 5개의 문항은 국악의 이론적 지식과 교육과정 지식에 관한 것이다. 반면 평균값이 낮은 5개의 문항은 국악 실기 기능에 관련한 것이다. 따라서 국악에 대한 이론적 지식과 교육과정 지식의 인식 수준은 높지만, 장구 실기를 제외한 국악 실기 기능에 대한 인식 수준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보인다.

<표 IV-4> 교과내용지식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 수준

문항내용	N	평균	표준 편차
여러 지역 민요의 토리와 시김새의 특징을 비교하여 설명할 수 있다.	114	3.93	.883
교육과정에 명시되어 있는 국악 관련 내용을 이해한다.	114	3.89	.711
교과서에 제시된 장단을 장단의 세를 살려 장구로 연주할 수 있다.	114	3.81	.881
국악기의 특징(음색, 연주방법 등)을 설명할 수 있다.	114	3.75	.836
교과서에 제시된 국악곡의 특징(형식, 연주형태, 쓰임새 등)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114	3.74	.886
교육과정에 명시되어 있는 국악 관련 내용을 재구성하여 수업에 적용한다.	114	3.74	.828
국악기 중 가락악기 1가지 이상을 바른 자세와 정확한 주법으로 연주할 수 있다.	114	3.70	.958
교과서에 제시된 수준의 국악 가락 짓기를 할 수 있다.	114	3.48	1.043
교과서에 제시된 민요의 토리와 시김새를 살려 시범창 할 수 있다.	114	3.46	.977
교과서에 제시된 판소리 한 대목을 판소리의 특징을 살려 시범창 할 수 있다.	114	2.99	1.127
교과서에 제시된 가곡의 초장을 가곡의 특징을 살려 시범창 할 수 있다.	114	2.58	1.079

나) 교직 경력에 따른 인식 수준 차이

다음의 <표 IV-5>는 국악 PCK 중 교과내용지식에 대한 교직 경력에 따른 인식 수준의 차이에 대해 정리해 놓은 것이다. 결과에 따르면 교과내용지식의 문항에 대한 교직 경력에 따른 인식 수준은 경력 10년 이하 교사 집단이 11년 이상의 교사집단보다 대체로 평균값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총 11개 문항 중 경력 10년 이하의 교사집단이 경력 11년 이상 교사집단보다 평균값이 높은 문항은 8개이다. 반면 경력 11년 이상의 교사집단이 경력 10년 이하의 교사집단보다 평균값이 높은 문항은 3개로 14번, 17번, 18번 문항이 이에 해당한다.

11개의 문항 중 18번, 20번, 24번 3개의 문항에 대해 교직 경력에 따른 인식 수준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 < .05$). 18번 문항은 경력 11년 이상 교사의 평균값이 높은 반면, 20번 24번 문항은 경력 10년 이하 교사의 평균값이 높았다. 가곡의 실기 기능에 대한 인식 수준은 경력 11년 이상의 교사가, 장구 실기와 민요의 이론적 내용에 대한 인식 수준은 경력 10년 이하의 교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러한 결과는 오히려 교직경력이 교사의 국악 PCK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요인임을 뒷받침해주는 것이라 볼 수 있겠다.

<표 IV-5> 교과내용지식에 대한 교직 경력에 따른 인식 차이

번호	문항내용	집단	N	평균	표준편차	t	유의확률
14	교육과정에 명시되어 있는 국악 관련 내용을 이해한다.	10년 이하	54	3.81	.779	-.394	.694
		11년 이상	60	3.87	.623		
15	교육과정에 명시되어 있는 국악 관련 내용을 재구성하여 수업에 적용한다.	10년 이하	54	3.80	.762	1.577	.118
		11년 이상	60	3.57	.789		
16	교과서에 제시된 민요의 토리와 시김새를 살려 시범창 할 수 있다.	10년 이하	54	3.44	1.003	.424	.673
		11년 이상	60	3.37	.956		
17	교과서에 제시된 판소리 한 대목을 판소리의 특징을 살려 시범창 할 수 있다.	10년 이하	54	2.74	1.169	-1.640	.104
		11년 이상	60	3.08	1.062		
18	교과서에 제시된 가곡의 초장을 가곡의 특징을 살려 시범창 할 수 있다.	10년 이하	54	2.24	.989	-2.401	.018*
		11년 이상	60	2.70	1.046		
19	국악기 중 가락악기 1가지 이상을 바른 자세와 정확한 주법으로 연주할 수 있다.	10년 이하	54	3.61	.940	.064	.949
		11년 이상	60	3.60	.924		
20	교과서에 제시된 장단의 세를 살려 장구로 연주할 수 있다.	10년 이하	54	3.94	.738	2.391	.019*
		11년 이상	60	3.57	.945		
21	교과서에 제시된 수준의 국악 가락 짓기를 할 수 있다.	10년 이하	54	3.57	.983	1.604	.112
		11년 이상	60	3.27	1.056		
22	교과서에 제시된 국악곡의 특징(형식, 연주형태, 쓰임새 등)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10년 이하	54	3.80	.877	1.435	.154
		11년 이상	60	3.57	.831		
23	국악기의 특징(음색, 연주방법 등)을 설명할 수 있다.	10년 이하	54	3.70	.838	.132	.896
		11년 이상	60	3.68	.813		
24	여러 지역 민요의 토리와 시김새의 특징을 비교하여 설명할 수 있다.	10년 이하	54	4.06	.886	2.085	.039*
		11년 이상	60	3.72	.846		

(* $p < .05$, ** $p < .001$)

다) 국악을 교육 받은 기간에 따른 인식 수준의 차이

다음의 <표 IV-6>은 국악 PCK 중 교과내용지식에 대한 교사의 국악을 교육 받은 기간에 따른 인식 수준의 차이에 대해 정리해 놓은 것이다. 결과에 따르면 2년 이상 국악 교육을 받은 교사집단이 2년 미만의 교사집단보다 모든 문항에서 평균값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14번과 18번을 제외한 나머지 문항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p < .05$, $p < .001$). 특히 국악 관련 교육과정의 내용을 단순히 이해하는 것에는 국악을 교육 받은 기간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가 없지만, 교육과정을 재구성하고 수업에 적용하는 것에는 국악을 교육 받은 기간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국악에 대한 이론적 지식, 실기 기능 모두 국악을 교육 받은 기간이 길수록 인식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국악을 교육 받은 기간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표 IV-6> 교과내용지식에 대한 국악을 교육 받은 기간에 따른 인식차이

번호	문항내용	집단	N	평균	표준편차	t	유의확률
14	교육과정에 명시되어 있는 국악 관련 내용을 이해한다.	2년 미만	61	3.80	.726	-1.243	.217
		2년 이상	42	3.98	.643		
15	교육과정에 명시되어 있는 국악 관련 내용을 재구성하여 수업에 적용한다.	2년 미만	61	3.56	.786	-2.103	.038*
		2년 이상	42	3.88	.739		
16	교과서에 제시된 민요의 토리와 시김새를 살려 시범창 할 수 있다.	2년 미만	61	3.18	.992	-3.512	.001*
		2년 이상	42	3.83	.824		
17	교과서에 제시된 판소리 한 대목을 판소리의 특징을 살려 시범창 할 수 있다.	2년 미만	61	2.79	1.142	-2.118	.037*
		2년 이상	42	3.26	1.083		
18	교과서에 제시된 가곡의 초장을 가곡의 특징을 살려 시범창 할 수 있다.	2년 미만	61	2.36	1.017	-1.886	.062
		2년 이상	42	2.76	1.122		
19	국악기 중 가락악기 1가지 이상을 바른 자세와 정확한 주법으로 연주할 수 있다.	2년 미만	61	3.48	.959	-2.911	.004*
		2년 이상	42	3.98	.780		
20	교과서에 제시된 장단의 장단의 세를 살려 장구로 연주할 수 있다.	2년 미만	61	3.56	.904	-3.654	.000**
		2년 이상	42	4.14	.718		
21	교과서에 제시된 국악 가락 짓기를 수준을 할 수 있다.	2년 미만	61	3.25	1.059	-2.648	.009*
		2년 이상	42	3.79	.951		
22	교과서에 제시된 국악곡의 특징(형식, 연주형태, 쓰임새 등)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2년 미만	61	3.57	.903	-2.518	.013*
		2년 이상	42	3.98	.715		
23	국악기의 특징(음색, 연주방법 등)을 설명할 수 있다.	2년 미만	61	3.56	.807	-2.751	.007*
		2년 이상	42	4.00	.796		
24	여러 지역 민요의 토리와 시김새의 특징을 비교하여 설명할 수 있다.	2년 미만	61	3.75	.850	-2.101	.034*
		2년 이상	42	4.12	.842		

(* $p < .05$, ** $p < .001$)

2) 교수방법지식

가) 전반적인 인식 수준

다음의 <표 IV-7>은 국악 PCK 중 교수방법지식에 대한 인식 수준에 대해 평균값이 높은 문항부터 순서대로 제시해 놓은 것이다. 본 연구에서의 교수방법지식이란 국악에 적합한 교수 방법에 대한 지식을 뜻한다. 교수방법지식에 관한 문항은 총 33개의 문항 중 9개의 문항이다. 결과를 살펴보면, 구음을 활용한 기악 지도, 국악 감상 지도, 생활화 지도와 관련된 교수방법지식은 전체적으로 높은 평균값을 나타냈고, 국악 실기와 관련된 것은 대체로 낮은 평균값을 나타냈다. 구음을 활용한 기악 지도의 평균값이 높은 것은 교과서에 가장 많이 제시되는 장구, 단소, 소금, 가야금 등의 국악기를 학교의 여건과 수업환경에 따라 바로 연주하기 쉽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또한 교육과정에서 제시된 생활화 영역이 교수방법에 중요하게 반영된 결과 생활화와 관련된 문항의 평균값이 높게 나타난 것으로 추측된다. 국악감상 지도 시 교수방법지식 관련 평균값이 높은 반면 상대적으로 실기와 관련된 지식의 평균값이 낮은 것을 통해서는 현장에서의 국악 수업이 가창, 기악 실기보다는 감상위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유추해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교육과정에서는 신체를 활용하여 음악을 익히도록 제시되어있으나 실제 수업에서는 국악 학습에 있어 신체표현활동이 교수방법으로 잘 활용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7> 교수방법지식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 수준

문항내용	N	평균	표준 편차
국악기를 지도할 때 구음을 활용하여 자연스럽게 익히도록 한다.	114	3.70	.877
수업 시간에 국악의 가치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활동 및 기회를 제공한다.	114	3.68	.935
국악감상을 지도할 때, 학생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정간보와 구음보 등을 활용한다.	114	3.61	.967
국악감상을 지도할 때, 추임새 넣기 등을 통해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음악 감상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114	3.42	.984
학생들이 생활 속에서 국악을 즐길 수 있도록 국악 관련 음악 프로그램이나 연주회, 동아리 활동 등을 소개하여 참여할 수 있도록 권한다.	114	3.32	.952
국악 가창(가락, 시김새, 창법 등)을 지도할 때에는 손, 가락선 악보 등을 활용하여 다양하게 지도한다.	114	3.21	1.018
국악학습은 가능한 한 가,무,악이 통합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지도한다.	114	2.91	1.000
국악곡 만들기를 지도할 때, 국악기 연주로 국악의 특징을 표현하도록 한다.	114	2.85	1.006
국악기를 지도할 때 춤을 활용하여 장단감을 체득하도록 지도한다.	114	2.58	.984

나) 교직 경력에 따른 인식 수준 차이

다음의 <표 IV-8>은 국악 PCK 중 교수방법지식에 대한 교직 경력에 따른 인식 수준의 차이에 대해 정리해 놓은 것이다. 결과에 따르면 32번 문항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문항에 대해 경력 10년 이하 교사집단의 평균값이 11년 이상의 교사집단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 유의미한 차이 ($p < .05$, $p < .001$)가 있는 문항은 27번, 31번 문항으로, 경력 10년 이하 교사 집단의 국악교수내용지식 중 교수방법지식에 대한 인식수준이 경력 11년 이상 교사 집단보다 높았다. 따라서 경력 10년 이하 교사 집단이 경력 11년 이상의 교사 집단보다 국악에 대한 교수방법에 있어서 학생의 이해를 돕기 위해 구음, 구음보, 정간보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표 IV-8> 교수방법지식에 대한 교직 경력에 따른 인식 차이

번호	문항내용	집단	N	평균	표준 편차	t	유의 확률
25	국악학습은 가능한 한 가,무,악이 통합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지도한다.	10년 이하	54	2.96	1.045	.949	.345
		11년 이상	60	2.78	.976		
26	국악 가창(가락, 시김새, 창법 등)을 지도할 때에는 손, 가락선 악보 등을 활용하여 다양하게 지도한다.	10년 이하	54	3.35	.974	1.667	.098
		11년 이상	60	3.03	1.057		
27	국악기를 지도할 때 구음을 활용하여 자연스럽게 익히도록 한다.	10년 이하	54	3.96	.726	3.678	.000**
		11년 이상	60	3.40	.906		
28	국악기를 지도할 때 춤을 활용하여 장단감을 체득하도록 지도한다.	10년 이하	54	2.59	1.037	.512	.610
		11년 이상	60	2.50	.893		
29	국악곡 만들기를 지도할 때, 국악기 연주로 국악의 특징을 표현하도록 한다.	10년 이하	54	2.93	1.025	1.606	.111
		11년 이상	60	2.63	.920		
30	국악감상을 지도할 때, 추임새 넣기 등을 통해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음악 감상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10년 이하	54	3.46	.985	1.186	.238
		11년 이상	60	3.25	.932		
31	국악감상을 지도할 때, 학생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정간보와 구음보 등을 활용한다.	10년 이하	54	3.76	.867	2.628	.010*
		11년 이상	60	3.31	.969		
32	학생들이 생활 속에서 국악을 즐길 수 있도록 국악 관련 음악 프로그램이나 연주회, 동아리 활동 등을 소개하여 참여할 수 있도록 권한다.	10년 이하	54	3.24	1.027	-.243	.809
		11년 이상	60	3.28	.846		
33	수업 시간에 국악의 가치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활동 및 기회를 제공한다.	10년 이하	54	3.65	.955	.088	.930
		11년 이상	60	3.63	.843		

(* $p < .05$, ** $p < .001$)

다) 국악을 교육 받은 기간에 따른 인식 수준 차이

다음의 <표 IV-9>는 국악 PCK 중 교수방법지식에 대한 국악을 교육 받은 기간에 따른 인식 수준의 차이에 대해 정리해 놓은 것이다. 결과에 따르면 33번 문항을 제외한 나머지 문항 모두 국악을 교육받은 기간이 2년 이상인 교사 집단의 평균값이 높게 나타났다. 그 중 25번, 26번, 27번 28번 문항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p < .05$)가 나타났다.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낸 4개의 문항은 모두 국악 실기와 관련된 교수방법에 대한 문항이다. 따라서 국악 감상과 생활화 지도와 관련된 교수방법지식은 국악을 교육 받은 기간에 따라 큰 차이가 없지만, 국악 실기와 관련된 교수방법지식은 교사가 국악을 교육받은 기간이 지식 향상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인다.

<표 IV-9> 교수방법지식에 대한 국악을 교육 받은 기간에 따른 인식차이

번호	문항내용	집단	N	평균	표준 편차	t	유의 확률
25	국악학습은 가능한 한 가,무,악이 통합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지도한다.	2년 미만	61	2.70	1.038	-2.308	.023*
		2년 이상	42	3.17	.935		
26	국악 가창(가락, 시김새, 창법 등)을 지도할 때에는 손, 가락선 악보 등을 활용하여 다양하게 지도한다.	2년 미만	61	2.97	1.125	-3.314	.001*
		2년 이상	42	3.60	.798		
27	국악기를 지도할 때 구음을 활용하여 자연스럽게 익히도록 한다.	2년 미만	61	3.57	.865	-2.173	.032*
		2년 이상	42	3.93	.778		
28	국악기를 지도할 때 춤을 활용하여 장단감을 체득하도록 지도한다.	2년 미만	61	2.41	.938	-2.160	.033*
		2년 이상	42	2.83	1.034		
29	국악곡 만들기를 지도할 때, 국악기 연주로 국악의 특징을 표현하도록 한다.	2년 미만	61	2.69	1.025	-1.441	.153
		2년 이상	42	2.98	.950		
30	국악감상을 지도할 때, 추임새 넣기 등을 통해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음악 감상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2년 미만	61	3.23	1.055	-1.736	.086
		2년 이상	42	3.55	.803		
31	국악감상을 지도할 때, 학생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정간보와 구음보 등을 활용한다.	2년 미만	61	3.43	1.031	-1.407	.162
		2년 이상	42	3.69	.811		
32	학생들이 생활 속에서 국악을 즐길 수 있도록 국악 관련 음악 프로그램이나 연주회, 동아리 활동 등을 소개하여 참여할 수 있도록 권한다.	2년 미만	61	3.26	.964	-.248	.804
		2년 이상	42	3.31	.924		
33	수업 시간에 국악의 가치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활동 및 기회를 제공한다.	2년 미만	61	3.69	.941	.513	.609
		2년 이상	42	3.60	.857		

(* $p < .05$, ** $p < .001$)

3) 평가지식

가) 전반적인 인식 수준

다음의 <표 IV-10>은 국악 PCK 중 평가지식의 인식 수준에 대해 평균값이 높은 문항부터 순서대로 정리해 놓은 것이다. 본 연구에서의 평가지식이란 음악 교과의 영역 중 국악과 관련한 음악교사의 평가에 대한 지식을 뜻한다. 평가지식에 관한 문항은 총 33개의 문항 중 5개의 문항이다. 결과를 살펴보면, 중등음악교사의 국악 PCK 중 평가지식은 (평균값 3.15~3.57)로 대체로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중등음악교사들은 평가의 목적에 따른 적합한 평가 내용을 적용하고, 수업의 개선을 위해 평가 결과를 활용하는 지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중등음악교사들이 평가의 목적을 정확히 인지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러나 국악 감상 영역에 대한 평가의 평균값이 실기 기능이나 생활화 평가와 관련된 문항의 평균값보다 높은 것으로 볼 때, 현장에서의 국악 수업이 감상과 관련된 수업 및 평가 위주로 치우쳐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IV-10> 평가지식에 관한 전반적인 인식 수준

문항 내용	N	평균	표준 편차
국악에 대한 학습을 평가할 때, 적합한 평가 내용과 방법을 사용한다.	114	3.57	.835
평가 결과를 국악수업의 교수학습계획과 국악수업 방법 개선을 위한 자료로 활용한다.	114	3.40	.936
국악 감상을 평가할 때, 국악에 관한 포괄적 이해의 정도와 태도 등을 평가한다.	114	3.40	.880
국악 관련 표현 활동(가창, 기악, 창작 등)은 기초 기능, 음악적 표현, 태도 등을 고루 반영하여 평가한다.	114	3.36	.904
학교 내외의 국악 관련 음악활동에 참여하는 정도, 국악에 대한 태도와 생활화의 실천 정도 등을 평가한다.	114	3.15	1.014

나) 교직 경력에 따른 인식 수준 차이

다음의 <표 IV-11>은 국악 PCK 중 평가지식에 관한 교직 경력에 따른 인식 수준의 차이에 대해 정리해 놓은 것이다. 결과에 따르면 국악 PCK 중 평가지식은 모든 문항에 대해 경력 10년 이하 교사 집단의 평균값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문항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교사의 경력이 평가지식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표 IV-11> 평가지식에 대한 교직 경력에 따른 인식 차이

번호	문항내용	집단	N	평균	표준편차	t	유의확률
34	국악에 대한 학습을 평가할 때, 적합한 평가 내용과 방법을 사용한다.	10년 이하	54	3.63	.760	1.178	.241
		11년 이상	60	3.45	.862		
35	국악 관련 표현 활동(가창, 기악, 창작 등)은 기초 기능, 음악적 표현, 태도 등을 고루 반영하여 평가한다.	10년 이하	54	3.48	.818	1.672	.097
		11년 이상	60	3.21	.913		
36	국악 감상을 평가할 때, 국악에 관한 포괄적 이해의 정도와 태도 등을 평가한다.	10년 이하	54	3.41	.880	.489	.625
		11년 이상	60	3.33	.846		
37	학교 내외의 국악 관련 음악활동에 참여하는 정도, 국악에 대한 태도와 생활화의 실천 정도 등을 평가한다.	10년 이하	54	3.15	1.035	.425	.671
		11년 이상	60	3.07	.934		
38	평가 결과를 국악수업의 교수학습계획과 국악수업 방법 개선을 위한 자료로 활용한다.	10년 이하	54	3.50	.927	1.599	.113
		11년 이상	60	3.22	.899		

다) 국악을 교육 받은 기간에 따른 인식 수준 차이

다음의 <표 IV-12>는 국악 PCK 중 평가지식에 대한 국악을 교육 받은 기간에 따른 인식 수준의 차이를 정리해 놓은 것이다. 결과에 따르면 국악 PCK 중 평가지식에 관한 모든 문항에서 국악을 교육 받은 기간이 2년 이상인 교사 집단의 평균값이 2년 미만인 교사집단 보다 높게 나타났다. 하지만 38번 문항만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p < .05$). 따라서 평가 지식과 관련해서 국악을 교육받은 기간에 따라 큰 차이는 없지만, 국악을 교육받은 기간이 길수록 평가 결과를 더욱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표 IV-12> 평가지식에 대한
국악을 교육 받은 기간에 따른 인식 차이**

번호	문항내용	집단	N	평균	표준편차	t	유의률
34	국악에 대한 학습을 평가할 때, 적합한 평가내용과 방법을 사용한다.	2년 미만	61	3.44	.876	-1.498	.137
		2년 이상	42	3.69	.749		
35	국악 관련 표현 활동(가창, 기악, 창작 등)은 기초 기능, 음악적 표현, 태도 등을 고루 반영하여 평가한다.	2년 미만	61	3.25	.939	-1.937	.056
		2년 이상	42	3.60	.767		
36	국악 감상을 평가할 때, 국악에 관한 포괄적 이해의 정도와 태도 등을 평가한다.	2년 미만	61	3.29	.929	-1.757	.082
		2년 이상	42	3.60	.767		
37	학교 내외의 국악 관련 음악활동에 참여하는 정도, 국악에 대한 태도와 생활화의 실천 정도 등을 평가한다.	2년 미만	61	3.00	1.000	-1.665	.099
		2년 이상	42	3.33	.979		
38	평가 결과를 국악수업의 교수학습계획과 국악수업 방법 개선을 위한 자료로 활용한다.	2년 미만	61	3.22	1.018	-2.118	.037*
		2년 이상	42	3.62	.795		

(* $p < .05$, ** $p < .001$)

4) 학생이해지식

가) 전반적인 인식 수준

다음의 <표 IV-13>은 국악 PCK 중 학생이해지식의 인식 수준에 대해 평균값이 높은 문항부터 순서대로 정리해 놓은 것이다. 본 연구에서의 학생이해지식이란 음악 교과의 영역 중 국악을 학습하는 학생에 대한 지식을 뜻한다. 학생이해지식에 관한 문항은 총 33개의 문항 중 4개의 문항이다. 중등음악교사의 국악 PCK 중 학생이해지식은 (평균값 3.33~3.89)로 대체로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에 따르면 국악 수업을 받는 학생들의 전반적인 특성에 대한 이해는 높은 반면, 학생들의 개별적인 특성에 대한 이해는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러한 결과는 국악 수업에 참여하는 학생들의 개별적인 특성에 교사들이 더욱 관심을 가져야 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표 IV-13> 학생이해지식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 수준

문항 내용	N	평균	표준 편차
가르치고 있는 학생들의 음악에 대한 전반적인 특성(발달 단계, 능력 수준, 흥미도, 지역성 등)에 대해 이해하고 있다.	114	3.89	.715
국악 수업을 하는 동안 학생들이 무엇을 어려워하는지 알고 있다.	114	3.79	.792
국악 수업에서 학생들이 무엇을 잘하는지 알고 있다.	114	3.67	.815
학생들의 국악에 대한 내용지식 및 연주기능에 대한 개인차를 이해하며 다양한 측면(성차, 음악성, 음악적 환경 등)에서 파악하고 있다.	114	3.33	.929

나) 교직 경력에 따른 인식 수준 차이

다음의 <표 IV-14>는 국악 PCK 중 학생이해지식에 대한 교직 경력에 따른 인식 수준의 차이에 대해 정리해 놓은 것이다. 결과에 따르면 10번 문항을 제외한 나머지 문항에 대해서 경력 11년 이상 교사 집단의 평균값이 10년 이하의 교사집단 보다 높게 나타났다. 하지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문항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국악 PCK 중 학생이해지식에는 교사의 경력이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표 IV-14> 학생이해지식에 대한 교직 경력에 따른 인식 차이

번호	문항내용	집단	N	평균	표준편차	t	유의확률
10	가르치고 있는 학생들의 음악에 대한 전반적인 특성(발달 단계, 능력 수준, 흥미도, 지역성 등)에 대해 이해하고 있다.	10년 이하	54	3.91	.652	.675	.501
		11년 이상	60	3.82	.770		
11	학생들의 국악에 대한 내용지식 및 연주기능에 대한 개인차를 이해하며 다양한 측면(성차, 음악성, 음악적 환경 등)에서 파악하고 있다.	10년 이하	54	3.22	.861	-.266	.791
		11년 이상	60	3.27	.918		
12	국악 수업을 하는 동안 학생들이 무엇을 어려워하는지 알고 있다.	10년 이하	54	3.67	.752	-.691	.491
		11년 이상	60	3.77	.789		
13	국악 수업에서 학생들이 무엇을 잘하는지 알고 있다.	10년 이하	54	3.52	.841	-1.321	.189
		11년 이상	60	3.72	.761		

다) 국악을 교육 받은 기간에 따른 인식 수준 차이

다음의 <표 IV-15>는 국악 PCK 중 학생이해지식에 대한 국악을 교육 받은 기간에 따른 인식 수준의 차이에 대해 정리해 놓은 것이다. 결과에 따르면 10번 문항을 제외한 나머지 문항에서 국악 교육을 받은 기간이 2년 이상인 교사 집단의 평균값이 높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문항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국악 PCK 중 학생이해지식에는 국악을 교육 받은 기간이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표 IV-15> 학생이해지식에 대한
국악을 교육 받은 기간에 따른 인식 차이**

번호	문항내용	집단	N	평균	표준 편차	t	유의 확률
10	가르치고 있는 학생들의 음악에 대한 전반적인 특성(발달 단계, 능력 수준, 흥미도, 지역성 등)에 대해 이해하고 있다.	2년 미만	61	3.89	.733	.201	.841
		2년 이상	42	3.86	.647		
11	학생들의 국악에 대한 내용지식 및 연주기능에 대한 개인차를 이해하며 다양한 측면(성차, 음악성, 음악적 환경 등)에서 파악하고 있다.	2년 미만	61	3.18	.940	-1.380	.171
		2년 이상	42	3.43	.831		
12	국악 수업을 하는 동안 학생들이 무엇을 어려워하는지 알고 있다.	2년 미만	61	3.59	.824	-1.968	.052
		2년 이상	42	3.88	.670		
13	국악 수업에서 학생들이 무엇을 잘하는지 알고 있다.	2년 미만	61	3.52	.887	-1.729	.087
		2년 이상	42	3.79	.645		

5) 환경상황이해지식

가) 전반적인 인식 수준

다음의 <표 IV-16>은 국악 PCK 중 환경상황이해지식의 인식 수준에 대해 평균값이 높은 문항부터 순서대로 정리해 놓은 것이다. 본 연구에서의 환경상황이해지식이란 국악을 학습하게 되는 교실 및 학교 환경 및 상황에 대한 이해 및 수업을 실행하는 교사 자신의 상황에 대한 지식을 뜻한다. 환경상황이해지식에 관한 문항은 총 33개의 문항 중 9개의 문항이다. 결과에 따르면 중등음악교사들은 국악 수업의 필요성에 대해 매우 높은 인식률을 보이고 있다. 또한 교사의 태도가 국악수업을 받는 학생들에게 주는 영향, 연수나 재교육과정을 통해 국악 수업의 질을 향상시켜야 한다는 것 역시 매우 높게 인식하고 있다. 하지만 본인의 국악 교수능력과 국악 수업에 대한 자신감에 대해서는 매우 낮은 인식률을 보이고 있으며, 국악 수업과 관련한 수업 환경에 대한 이해나 국악 수업을 통한 교사의 반성 및 피드백 역시 낮은 인식률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결과에 비추어 볼 때, 현장에서 교사들은 국악 수업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 절감하고 있으며, 국악에 대한 교사의 태도가 수업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 역시 잘 알고 있다고 보인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교사들이 국악 수업과 국악 관련 교수능력에 대한 자신감이 부족하기 때문에 국악 수업을 비교적 적게 실시하므로 국악 수업과 관련한 환경을 이해하고 수업에 대한 반성 및 피드백을 스스로에게 제공할 기회를 갖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표 IV-16> 환경상황이해지식에 대한 인식 수준

문항 내용	N	평균	표준 편차
국악 수업은 필요하다.	114	4.46	.631
국악 수업에 대한 교사 자신의 선호도는 국악 교수 학습에 영향을 미친다.	114	4.37	.727
국악 수업의 질 향상을 위해 교사들이 재교육과 정이나 연수과정에 참여하는 것은 필요하다.	114	4.22	.784
국악 수업을 위해 필요한 교수 학습 시설 및 기자재를 파악하고 있다.	114	3.88	.855
국악 수업과 관련하여 지역과 학교의 실정 및 요구사항을 파악하고 있다.	114	3.42	.935
국악 수업에 대한 반성(reflection)을 통해 스스로 피드백을 제공한다.	114	3.26	.931
국악 관련 음악회와 같은 다양한 공연 및 행사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고 있다.	114	2.97	.949
국악 관련 교수능력은 충분하다,	114	2.96	.804
국악 수업에 자신이 있다.	114	2.90	.927

나) 교직 경력에 따른 인식 수준 차이

다음의 <표 IV-17>은 국악 PCK 중 환경상황이해지식에 대한 교직 경력에 따른 인식 수준의 차이에 대해 정리해 놓은 것이다. 결과에 따르면 12번, 3번, 4번 문항을 제외한 나머지 문항에 대해 경력 10년 이하 교사집단의 평균값이 11년 이상의 교사집단 보다 높게 나타났다. 하지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력 10년 이상의 교사가 높은 평균값을 보인 문항은 모두 국악 수업과 관련한 환경에 대한 문항이다. 그러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으므로, 교사의 경력이 환경상황이해지식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표 IV-17> 환경상황이해지식에 대한 교직 경력에 따른 인식 차이

번호	문항내용	집단	N	평균	표준편차	t	유의확률
1	국악 수업은 필요하다.	10년 이하	54	4.54	.605	1.168	.245
		11년 이상	60	4.40	.643		
2	국악 수업을 위해 필요한 교수 학습 시설 및 기자재를 파악하고 있다.	10년 이하	54	3.80	.855	-.334	.739
		11년 이상	60	3.85	.860		
3	국악 수업과 관련하여 지역과 학교의 실정 및 요구사항을 파악하고 있다.	10년 이하	54	3.37	.977	-.110	.913
		11년 이상	59	3.39	.910		
4	국악 관련 음악회와 같은 다양한 공연 및 행사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고 있다.	10년 이하	54	2.72	.920	-1.863	.065
		11년 이상	60	3.03	.863		
5	국악 수업에 대한 반성(reflection)을 통해 스스로 피드백을 제공한다.	10년 이하	54	3.30	.903	1.060	.292
		11년 이상	60	3.12	.904		
6	국악 수업에 자신이 있다.	10년 이하	54	2.91	.807	1.418	.159
		11년 이상	60	2.68	.873		
7	국악 수업에 대한 교사 자신의 선호도는 국악 교수 학습에 영향을 미친다.	10년 이하	54	4.44	.691	1.305	.195
		11년 이상	60	4.27	.756		
8	국악 관련 교수능력은 충분하다,	10년 이하	54	2.94	.738	.932	.353
		11년 이상	60	2.82	.725		
9	국악 수업의 질 향상을 위해 교사들이 재교육과정이나 연수과정에 참여하는 것을 필요하다.	10년 이하	54	4.31	.668	1.706	.091
		11년 이상	60	4.07	.861		

다) 국악을 교육 받은 기간에 따른 인식 수준 차이

다음의 <표 IV-18>는 국악 PCK 중 환경상황이해지식에 대한 국악을 교육 받은 기간에 따른 인식 수준의 차이에 대해 정리해 놓은 것이다. 결과에 따르면 7번 문항을 제외한 나머지 문항에 대해 2년 이상 교사집단의 평균값이 2년 미만 교사집단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 1번, 2번, 6번, 8번 문항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p < .05$, $p < .001$)를 보였으며, 이에 따라 국악을 배운 기간이 2년 이상인 교사집단은 2년 이하의 교사집단보다 국악수업에 대한 자신감과 국악에 대한 교수 능력에 대한 자신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국악 수업의 필요성과 국악 수업에 필요한 환경에 대한 지식에 대해서도 높은 인식률을 보였다. 분석 결과 국악을 배운 기간이 2년 이상인 교사집단은 국악수업 및 국악교수능력에 대한 자신감과 국악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높은 인식 수준을 바탕으로 국악수업을 실시하는 횟수가 많아 국악 수업을 위해 필요한 환경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교사의 국악을 교육 받은 기간이 환경이해지식에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표 IV-18> 환경상황이해지식에 대한
국악을 교육 받은 기간에 따른 인식 차이**

번호	문항내용	집단	N	평균	표준 편차	t	유의 확률
1	국악 수업은 필요하다.	2년 미만	61	4.38	.662	-2.250	.027*
		2년 이상	42	4.64	.533		
2	국악 수업을 위해 필 요한 교수 학습 시설 및 기자재를 파악하고 있다.	2년 미만	61	3.69	.923	-3.357	.001*
		2년 이상	42	4.19	.594		
3	국악 수업과 관련하여 지역과 학교의 실정 및 요구사항을 파악하 고 있다.	2년 미만	61	3.28	.933	-1.858	.066
		2년 이상	42	3.63	.968		
4	국악 관련 음악회와 같은 다양한 공연 및 행사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고 있다.	2년 미만	61	2.84	.952	-1.142	.256
		2년 이상	42	3.05	.882		
5	국악 수업에 대한 반 성(reflection)을 통해 스스로 피드백을 제공 한다.	2년 미만	61	3.16	.916	-1.199	.233
		2년 이상	42	3.38	.882		
6	국악 수업에 자신이 있다.	2년 미만	61	2.56	.827	-3.920	.000**
		2년 이상	42	3.19	.773		
7	국악 수업에 대한 교 사 자신의 선호도는 국악 교수학습에 영향 을 미친다.	2년 미만	61	4.43	.718	.797	.427
		2년 이상	42	4.31	.749		
8	국악 관련 교수능력은 충분하다,	2년 미만	61	2.69	.786	-3.687	.000**
		2년 이상	42	3.19	.594		
9	국악 수업의 질 향상 을 위해 교사들이 재 교육과정이나 연수과 정에 참여하는 것을 필요하다.	2년 미만	61	4.15	.771	-.718	.475
		2년 이상	42	4.26	.828		

(* $p < .05$, ** $p < .001$)

2. 질적 연구 결과

가. 국악 비전공中等음악교사의 국악 PCK 형성과정

국악을 전공하지 않은 음악 교사들은 국악 PCK의 형성에 있어서 교과 내용지식을 가장 중요한 요소로 보았고, 이 중 국악 실기 능력을 가장 중요하게 보았다. 이는 초등 교사들이 국악 PCK에서 국악 실기 능력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한 김희숙(2010)의 연구 결과와 같은 결과이다. 설문 조사 결과 국악 비전공 교사들은 대체로 학부에서의 국악 관련 수업, 임용고시를 위한 개인레슨, 국악에 관한 연수 등을 통해 국악에 대한 교과내용지식을 습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학부 때의 국악 관련 수업을 수강한 것만으로는 현장에서 국악 수업을 실행하기에 부족하다고 보았으며, 교사가 되기 위한 과정과 교사가 된 후에도 지속적으로 국악과 관련된 교과내용지식을 갖추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식하였다.

대학을 다니는 것만으로는 학생들에게 국악을 가르칠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C교사>

교과내용지식의 실기 기능이 정말 중요하다고 봐요. 일단 교사가 모델링을 기가 막히게 해 버리면 그만한 동기유발도 없고 같은 곡이라도 연주를 잘 하면 국악을 안 좋아하던 애들도 멋 있다 나도 해보고 싶은데 이런 생각이 들 수 있고. 내가 모델링을 잘한다는 것은 실기 능력이 좋다는 것이고 그럼 가르치는 것도 더 잘 가르칠 수 있다는 것이고. 그래서 국악을 잘 가르치고 열정도 있고 하면 개별적으로라도 계속 꾸준히 배우고 노력해서 교과내용지식 중 국악 실기 능력을 기르는 것이 필요한 것 같아요.
<B교사>

양적 연구 결과와 마찬가지로 국악 비전공 교사들은 국악을 배운 기간에 따라 자신의 국악 PCK를 인식함에 있어 차이를 보였다. 국악을 배운 기간이 2년 미만인 교사들은 자신의 국악 PCK를 낮은 수준으로 인식하였고,

2년 이상인 교사들은 자신의 국악 PCK를 높은 수준으로 인식하였다. 이에 따라 국악PCK 형성과정에서도 차이를 보였으므로, 국악 비전공 중등음악교사의 국악 PCK 형성과정은 국악을 교육 받은 기간에 따라 (2년 미만, 2년 이상) 구분하여 살펴보도록 하겠다.

1) 국악을 교육 받은 기간이 2년 미만인 교사의 국악 PCK 형성과정

양적 연구 결과와 마찬가지로 국악을 배운 기간이 2년 미만인 교사들은 자신의 국악 PCK를 대체로 낮은 수준으로 인식하고 있었고, 특히 국악 PCK 영역 중 교과내용지식에 대해 자신감이 없는 모습을 보였다.

저는 서양음악 전공했고 국악이라고 해봤자 전공했던 사람에 비하면 미미하게 배웠기 때문에..수업을 할 때에도 감상이나 이론 수업은 얼마든지 말로 설명하고 동영상 보여주고 흥미 유도 하고. 어느 정도 할 수 있겠다 싶은데 문제는 민요, 장구 장단 같은 실기는 뭔가 느낌이 안 나고 자신감이 없어요 또 제가 익숙하지 않아 하니까 학생들도 재미없어 하고.머리로는 알고 있는데 이게 소리로 나오지 않으니깐. 잘 못한다는 걸 내가 더 잘 알고 있고 한계에 직면하니 답답하죠. <A교사>

음악을 느끼려면 숙련이 되어야 해요. 감흥을 느낄 수 있기 위해서는 연주가 능숙하게 되어야 하고. 그런데 선생님들이 그런 부분이 부족하니까 많이 권하지 않게 되는 거죠. 자신이 더 좋아하는 것을 추구하게 되는 거죠. 국악을 아주 잘해서 거기서 희열을 느낄 수 있다면 애들한테 많이 가르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스스로 부족하다고 생각하니까 못 하는 거죠. 일단 자신감이 없으니깐. <D교사>

또한 국악 교육을 받은 기간이 2년 미만인 교사들은 국악과 관련한 교과내용지식의 자신감 부족으로 인해 교육과정 재구성을 할 때 국악 수업을

회피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었다. 교육과정 재구성의 권한은 현장에 있는 교사에게 있는데, 교사가 자율적 판단에 의해 교육과정을 재구성하다보니 교사가 자신이 없는 교과 내용은 적은 비중으로 다루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교사들은 국악과 관련한 교수학습경험을 많이 갖지 못하게 됨으로써, 국악 PCK를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경력이 지나도 이에 비례한 국악 교수학습경험을 갖지 못하게 되어 국악 PCK가 향상된다고 인식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교육과정은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거지 선생님들은 옛날부터 지금까지 같은 식으로 쪽 가르치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노래 부르고 감상만 하는 선생님들도 있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사고체계의 틀에서 가르칠 수밖에 없어요. 지도서도 내용이 부족하고, 강제적인 것도 아니니까. 그러니까 국악에 대해 자신이 없는 교사들은 교육과정 재구성할 때 국악내용은 제외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막연한 의무감으로 시험 대비 식으로 이론만 대충 가르치는 경우도 많은 것 같아요.

<D교사>

교육과정에서 국악을 빼다고 해도 누가 뭐라고 할 사람은 없잖아요. 그런데 수업을 하지 않다 보면 선생님들이 국악을 공부할 기회가 없어지게 되고. 이러한 이유로 경력이 국악 PCK 형성에 큰 영향을 준 것 같지는 않아요.

<A교사>

2) 국악을 교육 받은 기간이 2년 이상인 교사의 국악 PCK 형성과정

국악을 배운 기간이 2년 이상인 교사들은 자신의 국악 PCK를 대체로 높은 수준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교사들은 부족한 교과내용지식을 갖추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함으로써 국악 PCK를 향상시킬 수 있었다고 하였으며, 교과내용지식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자신감을 보였다. 그리고 단순히

교과내용지식의 습득 차원을 넘어서 그 과정을 통해 국악에 대한 심미적 체험을 경험한 것이 국악 PCK를 향상시키는 데에 큰 도움이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가르치는 것을 떠나서 개인적으로 국악이라는 음악 자체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국악을 꾸준히 배우고 관심을 가지면서 국악이 좀 더 좋아지고 국악이 그런 매력이 있구나. 느끼게 되었죠 그런데 그런 것을 내가 느낀다고 해도 학생들에게 어필은 할 순 없더라고요 그렇지만 내가 학생들한테 장단을 쳐 주거나 수제전을 설명을 해 주거나 이럴 때, 내가 전혀 모르는 어떤 음악을 설명하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선생님이 그 음악을 체험해 봤기 때문에 그 체험에 대한 내용은 아이들한테 말해 줬을 때, 학생들이 받아들이는 것은 다른 것이라 생각이 들어요 <C교사>

또한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교과내용지식을 습득한 이후에는 교수학습경험을 통해 시행착오를 겪고 수업에 대해 반성하는 과정을 갖는 것이 국악 PCK를 형성하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서는 국악을 교육 받은 기간이 2년 이상인 2명의 교사가 각각 상반된 진술을 함으로써 국악 PCK 향상에 있어 교수학습경험의 중요성을 드러냈다. 한 교사는 교직 경력이 지남에 따라 지속적으로 국악과 관련한 교수학습경험을 가짐으로써 자신의 국악 PCK가 향상될 수 있었다고 하였다. 반면 또 다른 교사는 학교의 여러 상황으로 인해 교과 재구성에서 국악 수업을 충분히 편성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하였다. 이에 따라 경력에 비례한 교수학습경험을 갖지 못했기 때문에 국악 PCK가 향상되는 것 같이 느껴지지 않고 오히려 수업에 대한 자신감이 떨어졌다고 진술하였다. 두 교사의 이러한 진술은 각각 국악과 관련한 교수학습경험이 국악 PCK 형성과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실제로 교직에 들어가서 제가 국악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음악을 많이 가르치게 되는 데요. 그런 경험을 통해 국악의 이런 부분은 이런 식으로 가르치는 게 어떨까라는 질문을 스스로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가르쳐 보고, 사실은 또 실패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경험을 교훈 삼아서 다른 방법으로 가르쳐 보고. 어느 정도 내가 지식을 갖고 교수학습경험을 계속 가지게 되면 교직경력에 따라서 학생들에게 정말 필요한 부분을 가르칠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C교사>

자율적인 교육과정은 구성하니까 국악이 교과서에 일정 부분 나와 있긴 하지만 어느 해에는 의논해서 별로 안 가르치는 해가 있기도 하고. 그래서 몇 년 또 많이 못하면서 뜸해지니까 자신감이 없어지고. 그러니까 더 하지 않게 되고요. 그렇다고 누가 우리 교과가 관심을 가지고 어느 것을 몇 퍼센트 다뤄야 한다고 강제하는 것도 아니고. 교과서에 있는 것을 다 다뤄야 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못 가르치고 자신이 없으면 제외시키자는 생각이 들게 되고. 그래서 교직 경력이 국악 PCK 형성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 같아요. 같아요.

<B교사>

이처럼 국악 관련 교수학습경험은 교사의 교과재구성에 의해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교과재구성은 교사 자신의 국악에 대한 지식⁴⁾ 및 국악 교육에 대한 필요성, 사명감, 선호도, 동기 등⁵⁾과 같은 교사에 의한 요인 뿐 아니라 학교의 상황에 의한 환경적인 요인에 의해서도 크게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국악 PCK 향상을 위한 지속적인 교수학습경험을 갖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국악에 대한 교과내용지식을 갖추고, 국악 교육에 대한 필요성, 사명감, 열린 마음을 가짐으로써 교과재구성 시 지속적으로 국악 수업을 일정 부분 포함시키려는 노력을 하는 것이

4) 김희숙(2015)은 교육과정에 나타난 국악 지식을 학생들의 수준이나 실태에 맞게 재구성하여 가르쳐야 하는데, 국악에 대한 기본 지식이 없는 경우에는 재구성하기가 어렵다고 하며, 교육과정 재구성 측면에서 교사의 풍부한 국악 지식은 매우 효과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하였다.

5) 본 연구의 설문 조사에서 교사들이 국악 수업의 필요성과 국악 수업에 대한 교사의 선호도가 교수학습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높은 수준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적어도 이런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것은, 이 음악이 이상하고 어색하게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자연스러운. 왜냐하면 그것은 교사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다문화 국가 음악, 예를 들어 잘 모르는 아프리카 음악을 들을 때 나도 낯설거든요. 그렇잖아도 그걸 알아 학생들이, 일반화하긴 어렵겠지만 국악이 많은 교사들한테 낯선 부분이 있는 것 사실이거든요. 그럼 저는 만약 제가 그게 낯설다면 가르치진 않겠죠. 적어도 저한테는 자연스러워서.

<C교사>

국악을 교육 받은 기간이 2년 이상인 교사 중 한 명은 자신의 국악 PCK 형성과정에서 도움이 되었던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도 소개해 주었다. 특히 교수방법지식을 향상시키기 위해 여러 음악교과서를 참고한 것이 도움이 되었다고 하였다. 요즘은 음악교과서가 다양하고 이에 따라 같은 내용에 대한 교수 방법이 다양하게 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 교과서와 지도서를 참고하면 교과 내용을 가르치는 구체적인 방법과 요령에 대해 참고할 부분이 많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학생이해지식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트렌드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항상 관심을 갖고 있다고 하였다. 학생들은 유행에 민감하고, 유행은 빠르게 변화하므로 학생들이 흥미를 가질만한 것에 관심을 가져 국악 수업과 연결시켜 제시할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하는 것이 국악 PCK 향상에 도움이 된다고 하였다.

다양한 음악교과서를 많이 보시는 것도 선생님들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교수방법의 적합성을 생각했을 때 내용에 대한 생각은 있지만 어떻게 가르칠지에 대한 의문이 들면 내가 보던 교과서만 보면 거기에 있는 방법은 알게 되는데 요즘에는 교과서도 다양하고 저자들도 굉장히 화려하고 다양하다보니까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허를 찌르는 재미있는 교수방법들이 많이 교과서에 구현이 되더라고요. 음악 선생님들이 손쉽게 할 수 있는 것은 다양한 음악교과서의 국악부분을 관심 있게 보고 최신의 트렌드나 어떤 학생들이 노출되어 있는 미디어를 봤을 때 국악이라는 요소들을 어떻게 끌어낼 수 있는지 고민하는 것. 이것은 음악 교사들도 손쉽게 접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또한 시대의 트렌드를 놓치지 않으려고 해요. 예를 들어 요즘 송소희 씨가 TV 프로그램에 나와 다른 가수들의 노래를 부르잖아요. 국악 창법으로 노래를 한단 말이예요. 그런 장면들은 생각을 하고 있다가 국악과 관련된 수업을 할 때 자료로 많이 활용하려고 노력을 해요. 그러면 아무래도 학생들의 이해도 훨씬 빠르고 관심도 더욱 갖게 되거든요. 현장에 있는 음악 교사가 다른 음악과 더불어서 국악을 가르치는 것은 아무래도 그런 어떤 시대적인 트렌드를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최전선에 있는 학생들을 가르치는 것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어떻게 했을 때 어떤 반응을 하고 어떤 것을 좋아하는지를 염두해 두고 거기에 맞춰서 풀어 가는 것이 중요할 것 같아요.

<교사>

나. 국악 전공 중등음악교사의 국악 PCK 형성과정

국악을 전공한 교사들은 자신의 국악 PCK에 대해 높은 수준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특히 국악 PCK의 영역 중 교과내용지식에 대해 자신감을 보였다. 이들은 교직 경력 초기에 교과내용지식에 대한 자신감을 바탕으로 국악 수업을 실행하지만, 교육학 및 환경상황과 관련된 지식이 부족해서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경력이 지나면서 국악 수업에 대한 실행과 수업 후 반성과 적용의 과정을 반복하고, 교육학 및 환경상황과 관련한 지식들을 축적함으로써 국악 PCK를 형성해 나가는 모습을 보였다. 따라서 국악전공 교사들은 국악 PCK를 발전시키기 위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교과내용지식을 토대로 하여, PCK의 영역 중 교육학 및 환경상황과 관련된 지식인 교수방법지식, 학생이해지식, 평가지식, 환경상황이해지식에 중점을 두고 노력하는 경향을 보였다.

교직경력 3년 차 때까지는 제대로 못 가르쳤던 것 같아요. 학생들이 어떤 걸 못하고, 잘하는지 잘 모르니까. 그래서 좀 지나고 아이들의 수준을 파악하고부터 많이 좋아졌던 것 같아요. 가르치는 방법이 좀 달라진 거죠. 그리고 이런 경험들이 쌓이면서 수업할 때 자신감이 생기

게 되었죠. 경력이 쌓이면서 이렇게 가르치면 재밌구나. 하는 포인트를 알게 되고. 실기도 계속 연습하기도 하고. 일단 내가 자신감 있는 모습을 보여줘야 학생들이 따라하니까. 그때부터 수업이 더 알차지고. 하여튼 자꾸 시도해보고, 수업에 대해 반성해보고.그러면서 가르치는 실력이 많이 향상된 것 같아요. 결국 내가 잘 가르치고 있는지 스스로 반성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E교사>

시행해보는 과정이 중요하죠. 이렇게 해보니 학생들이 흥미가 없구나. 혹은 저렇게 하면 학생들이 관심을 갖는구나. 일회성으로 끝나서는 되지가 않고 지속적으로 하는 부분이 결국은 나의 노하우로 쌓여졌던 것 같아요. 지속적으로 내가 지치지 않고 끝까지 해보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이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국악 수업을 재밌게 할 수 있을까 계속해서 고민하게 되는 것 같고요. 쉬 없이 공부하고 지속적으로 수업을 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래서 1년 시작할 때 국악파트에 대한 재구성을 나의 교육과정에 꼭 포함을 시켜야하지 않을까 하는 것이 저의 생각이예요.

<F교사>

또한 인터뷰 결과 환경이해지식이 국악 PCK를 형성하는 데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을 알 수 있었다. 다시 말해 국악교육에 대한 사명감과 열정을 바탕으로 국악 수업을 위한 환경적인 기반이 잘 갖추어질 수 있도록 끊임없이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는 것이 국악 PCK 형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교사의 국악교육에 대한 사명감 열정, 노력은 국악 수업을 위해 필요한 환경을 갖추는 데에 큰 역할을 하고, 결국에는 국악 PCK를 향상시키는 데에 기여를 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어떤 영역에서 지식을 획득하는 과정에서 동시에 그 영역에 대한 신념도 영향을 받는다는 마그누손 등의(1999) 주장과 맥을 같이 한다.

국악 수업을 제대로 하려면 사실 학교에서 협조사항이 있어야 해요. 학교의 관리자들도 국악교육이 필요하다고 하는 마인드 인식이 필요하다고 봐요. 학교에 국악 수업을 위한 환경이 잘 갖추어져 있지 않을 때에는 국악 수업을 제대로 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개인적으로 투자해서 단소 50개씩 구입해서 수업하고. 장구채도 한 학급이 다 돌아가도록 하고.그랬더니 학생들이

더 흥미와 재미를 느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축제나 발표에서 한 코너 맡아서 국악 연주 발표를 하기도 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학생들 뿐 아니라 전체선생님들, 관리자들에게도 국악에 대한 좋은 인식을 심겨주게 되어 결국 교재교구를 사주기도 하더라고요.

<F교사>

한편 국악 전공자라고 하더라도 교과서에 제시되어 있는 국악의 모든 내용과 영역에 대한 교과내용지식이 갖춰져 있지 않다고 인식했고, 자신의 전공 영역이 아닌 부분에 대해서는 어려움을 느끼고 있었다. 따라서 자신의 전공 영역 이외의 국악 관련한 교과내용지식을 습득하고 실기 능력을 연마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교과내용지식을 얻기 위해 국악 교육을 받을 때, 교수자의 교수방법지식도 함께 배우는 것이 국악 PCK를 향상시키는 데에 도움이 될 것으로 진술하였다.

사실 시조나 판소리의 목을 푼기 위한 단가는 실기로 다루진 못했어요. 이것은 주로 감상으로 하는데, 가장 대중적인 춘향가 사랑가 부분 1-2대목 같이 흥내를 내고. 나도 전공은 이게 아니기 때문에 맛만 보자 해서 가사 바꾸기 이정도만 하고 감상위주로 했지요.

<F교사>

임용 배운 때 레슨 배우고 고등학교 때 했던 것을 가지고 하게 되는 것인데 그걸 바탕으로 해서 내가 하려고 하는 자료를 찾아서 전공자들이 하는 것을 애들이 이렇게 하면 쉽게 하겠구나. 생각해서 하는 것인데 이게 정말 전공자들이 하는 건가. 국악은 이렇게 가르쳐도 되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서 더 전공자에게 제대로 배워서 전공자들이 어떻게 가르치는지 방법도 내가 배워야겠구나. 노래나 이런 것 뿐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떻게 가르쳐야 실기 능력이 길러지는지 이런 걸 배워야겠더라고요. 그냥 국악전공자고 이정도 수준이면 애들이 할 수 있어. 이러한 생각으로 여기에 그치면 수업을 더 잘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지는 않아요.

<E교사>

교직 경험을 통해 형성된 국악 전공 교사들의 국악 PCK는 국악 비전공 음악 교사들의 국악 PCK를 향상시키는 데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 국악을 전공한 교사 중 한 명은 현장에 있는 많은 교사들이 국악 수업에 대한 교과내용의 부족함으로 인해 교수방법, 평가까지 많은 부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진술하였다. 그리고 본인의 국악 수업을 공개하고 노하우를 나눔으로써, 다른 교사들이 국악에 대한 교수방법지식, 평가지식을 형성하는 데에 도움을 줄 수 있었다고 하였다. 따라서 국악을 전공한 교사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자신의 수업을 공개하거나 수업 나눔 동호회 등을 통하여 교수방법지식과 평가지식과 관련한 노하우들을 나눈다면 중등 음악교사들의 국악 PCK를 향상시키는 데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악 관련 교사 연수를 가면 대부분 교수님들이 많이 와서 강의를 해요. 내용 지식에 대한 전달은 훌륭하지만 그 분들은 현장의 소리를 가까이에서 듣지는 못해요 그래서 실질적인 부분들이 소통이 안 되고, 교류가 안 되니 어려움이 있어요. 이번에도 연수를 받는데, 외부에서 와서 국악교육의 필요성 이런 것만 하는 거예요. 필요성은 그 분들을 초청하지 않아도 너무 잘 알아. 사실 실질적으로 어떻게 교육하고 평가해야 하는지 많은 질문과 문제점을 들어주고 답변을 해 주고 하는 것이 더 필요하지. 그런데 그런 부분은 현장에 있는 국악을 전공한 교사들이 더 크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현장에 있는 선생님들은 국악 전공자들이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데. 너무나 어려워한다는 거죠. 그러니 이렇게 쉽게 소통할 수 있는 장을 만드는 것이 중요할 것 같아요.

<F교사>

V. 논의 및 결론

1. 논의

가. 국악 PCK에 대한 인식수준

중등음악교사의 국악 PCK의 전반적인 인식수준은 학생이해지식, 교과내용지식, 평가지식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환경상황이해지식, 교수방법지식에 대한 인식수준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국악 PCK 항목별 인식수준은 평균 3.23~3.67로 나타남으로써 장근주(2011)의 음악 전체에 대한 PCK 인식 수준(평균 3.53~4.24)에 대한 연구 결과와 비교해 볼 때,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결과는 중등음악교사의 국악 내용에 대한 PCK가 음악의 다른 영역에 대한 PCK보다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는 것으로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구성요소별로 살펴보면 교과내용지식은 국악에 대한 이론적 지식, 교육과정 지식과 관련한 지식은 높지만, 국악 실기 기능에 대한 지식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수방법지식에 대해서는 구음을 활용한 기악 지도, 국악 감상 지도, 생활화 지도와 관련된 지식은 높지만, 국악 실기와 관련된 지식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평가지식도 국악 감상 평가에 대한 지식은 높고, 국악 실기 및 생활화 관련된 평가에 지식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학생이해지식에 대해서는 국악 수업을 받는 학생들의 전반적인 특성에 대한 이해는 높지만, 학생들의 개별적인 특성에 대한 이해는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환경상황이해지식에 있어서는 교사들이 국악 수업의 필요성 및 국악에 대한 연수 및 재교육과정에 대한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고, 교사의 태도가 국악수업을 받는 학생들에게 주는 영향에 대해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본인의 국악 교수능력과 국악 수업에 대한

자신감은 낮은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PCK는 교수경험을 통해 오랜 시간을 거쳐 점진적으로 발달하므로 교사의 교수 경험이 없거나 적은 교과 영역이나 주제에 대해서는 거의 없거나 낮은 수준으로 간주되는 특성이 있다. 따라서 국악 이론, 감상 같은 이론과 설명 위주의 설명에 대한 PCK 인식 수준이 높고, 국악 가창 및 기악과 같은 실기 관련된 PCK의 인식 수준이 낮게 나타난 위의 결과로 미루어 보아, 실제 교육 현장에서 국악 가창 및 기악과 같은 실기 관련된 수업보다는 국악 이론, 감상과 같은 이론과 설명 위주의 수업이 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교사들은 국악 수업의 필요성에 대해 절감하고 있지만 자신의 교수능력에 대한 자신감이 부족해 현실적으로 국악수업을 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교사들을 대상으로 실제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국악 연수 및 재교육과정의 필요성을 뒷받침해준다.

교사들의 국악 PCK를 구성하는 교사지식의 여러 요소들은 통합하여 국악 PCK 형성에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PCK의 특성에 따라 교사들의 전반적인 국악 PCK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PCK의 각 구성요소를 개발시키려는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따라서 국악 PCK 형성과정을 통해 살펴본 ‘국악 PCK를 향상시키기 위해 필요한 것’을 구성요소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교과내용지식을 갖추기 위해 교사들은 교과서에 제시되어 있는 국악의 이론적 지식 뿐 아니라 실기 기능을 습득하고 연마하기 위해 계속하여 노력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교과내용지식의 단순한 습득 차원을 넘어서 그러한 과정을 통해 국악에 대한 심미적 체험을 하는 것이 국악 PCK를 향상시키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수방법지식의 경우는 여러 음악 교과서를 참고하여 다양한 교수 방법에 대한 지식을 얻는 것과 교과내용지식을 습득하기 위해 실기 기능을 학습할 때 교수자가 사용하는 교수학습방법을 통해 교수방법지식을 관찰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하였다. 이와 더불어 국악을 전공한 교사들이 자신의 수업을 공개하거나 수업 나눔 동호회 등을 통해 교사 연수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교수방법지식과 평가지식에 대한 노하우를 제공한다면 교사들의 국악 PCK 향상에 도움

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학생이해지식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빠르게 변화하는 유행에 민감한 학생들이 흥미를 가질만한 것에 관심을 가져 국악 수업과 연결시켜 제시할 수 있도록 시대의 트렌드를 놓치지 않고 민감하게 반응하고 관심을 가지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환경상황 이해지식 측면에서 국악교육에 대한 사명감과 열정을 바탕으로 국악 수업을 위한 환경적인 기반이 갖추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자세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나. 교직 경력에 따른 국악 PCK 인식 수준 차이

중등음악교사의 교직경력에 따른 국악 PCK 인식 수준에 대해서는 대체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국악 PCK의 구성 요소 중 교수방법지식에 대해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문항이 일부 있었다. 이를 통해 경력 10년 이하 교사 집단이 경력 11년 이상 교사 집단 보다 국악에 대한 교수방법에 있어 구음, 구음보, 정간보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제외한 나머지 구성요소와 문항에서는 유의미한 차이는 발견되지 않았으나, 국악 PCK는 학생이해지식을 제외하고는 10년 이하인 교사 집단이 11년 이상인 교사 집단보다 평균값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중등음악교사의 음악 PCK의 인식을 조사한 장근주(2011)의 연구에서 교직경력이 10년 이상인 교사 집단의 PCK의 평균값이 10년 이하의 교사 집단 보다 전반적으로 높게 형성되었다는 결과와는 반대되는 결과이다. 즉, 기존 연구와 달리 본 연구에서 국악으로 PCK의 영역을 한정시켜 살펴본 결과 교직경력에 국악 PCK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평균값으로 봤을 때 오히려 교직경력이 10년 이하인 교사 집단의 인식수준이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 것은 교육 현장에 서양음악을 전공한 교사들이 많아 국악을 가르치기 위해서는 교사들이 꾸준히 노력을 해야 하지만 교사의 내적 외적 요인들로 인해 국악 PCK를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것이 어려워지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이처럼 교직 경력이 국악 PCK의 수준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원인은 연구 결과 교육과정 재구성에 대한 자율성에서 찾을 수 있었다. 인터뷰 결과 중등음악교사들의 국악 수업 편성 비중은 교육과정 재구성에 대한 자율성에 의해 교사마다 차이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교사들은 교직 경력에 비례하여 국악 교수학습경험을 갖는 것이 아니므로 교직 경력은 국악 PCK 형성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국악 PCK의 형성과정을 살펴본 결과 교과내용지식이 갖춰진 교사들(국악을 교육 받은 기간이 2년 이상인 교사, 국악 전공자)은 대체로 교육과정 재구성을 통해 국악 교수학습경험을 지속적으로 갖고자 노력함으로써 자신의 국악 PCK를 발전시켜나가는 경향을 보였다. 그러므로 교직 경력이 국악 PCK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는 국악 PCK의 구성요소 중 교과내용지식이 충분히 갖추어져 있어야 한다는 것과 국악 교수학습경험을 지속적으로 가져야 한다는 두 가지 조건이 반드시 갖추어 져야 한다고 할 수 있겠다.

다. 국악을 교육 받은 기간에 따른 국악 PCK 인식 수준 차이

중등음악교사의 국악을 교육받은 기간에 따른 국악 PCK의 인식 수준의 차이는 국악을 교육받은 기간이 2년 이상인 교사 집단의 평균값이 2년 미만의 교사 집단보다 모든 영역에서 높게 나타났으며 학생이해지식을 제외한 나머지 항목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따라서 국악을 교육 받은 기간은 전반적인 국악 PCK의 인식 수준에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겠다. 다만 학생이해지식의 경우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교직경력이 11년 이상인 교사 집단이 높은 평균값을 보였으므로 국악을 교육 받은 기간보다는 교직경력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으로 보인다.

구성요소별로 살펴보면 교과내용지식에서 국악 관련 교육과정의 내용을 단순히 이해하는 지식에는 차이가 없지만, 교육과정을 재구성하고 수업에 적용하는 지식은 국악을 교육 받은 기간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국악에 대한 이론, 실기 기능에 대한 지식은 모두 국악을 교육 받은 기간이 길수록 인식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수방법지식에서는 국악 감상과 생활화 지도와 관련된 지식은 차이가 없으나 국악 실기 지도에 대한 지식은 국악을 교육받은 기간이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가지식은 국악을 교육받은 기간에 따라 대체로 큰 차이는 없으나, 국악을 교육 받은 기간이 길수록 평가 결과를 더욱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이해지식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환경상황이해지식에 있어서는 국악을 배운 기간이 길수록 국악수업 및 국악 교수능력에 대한 자신감, 국악 수업의 필요성과 국악수업에 필요한 환경에 대한 지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국악을 교육 받은 기간에 따라 국악 PCK 인식에 차이를 보이는 원인에 대해서는 국악을 교육 받은 기간이 국악 PCK 구성요소 중 교과내용지식의 형성에 직접적으로 기여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국악을 교육 받은 기간이 2년 미만인 교사들은 자신의 국악 PCK에 대해 낮은 수준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국악을 교육 받은 기간이 2년 이상인 교사들과 국악 전공 교사들은 자신의 국악 PCK에 대해 높은 수준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특히 교사들은 국악을 교육 받은 기간에 따라 교과내용지식에 대한 자신감에 큰 차이가 있었다. 이러한 교사들의 교과내용지식에 대한 자신감은 교육과정 재구성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교육과정 재구성 측면에서 교사의 풍부한 국악지식이 효과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한 김희숙(2015)의 연구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정리하면 국악을 교육 받은 기간에 따른 교과내용지식의 차이는 교육과정 재구성에 의한 국악 교수학습경험의 차이로 이어지고, 이는 결국 국악 PCK의 수준에 대한 차이를 발생시키는 원인이 되는 것으로 보인다.

2. 결론 및 시사점

본 연구는 중등음악교사의 국악 내용 관련 내용 교수 지식(PCK)에 대한 인식 수준 조사를 통해 중등음악교사의 국악 PCK를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국악교육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목적으로 진행되었다. 본 연구를 위하여 중등음악교사의 국악 PCK에 대한 자성적 인식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연구 문제를 심층적으로 탐구하기 위해 인식 조사의 결과를 토대로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실시함으로써 최종적인 결론을 도출하였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첫째, 중등음악교사의 국악 PCK 인식 수준은 국악 이론, 감상 영역이 국악 가창, 실기 영역보다 높은 것으로 드러났고, 많은 교사들이 자신의 교수능력에 대한 자신감이 부족해 국악 수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교육과정 재구성에 의해 중등음악교사들의 국악 교수학습경험에 차이가 발생하게 됨으로써 교직경력에 국악 PCK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국악을 교육 받은 기간은 국악 PCK 구성요소 중 교과내용지식의 형성에 직접적으로 기여함으로써 중등음악교사의 국악 PCK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상의 연구 결과를 토대로 국악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중등음악교사의 국악 PCK 향상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교사양성과정에서의 질 높은 국악 교육을 통해 국악 PCK의 구성요소 중 교과내용지식을 갖추는 것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국악을 교육 받은 기간이 국악 PCK 구성요소 중 교과내용지식의 형성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므로 교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부터 양질의 국악 교육을 통해 충분한 기간 국악을 학습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듯 교사들이 교사양성과정에서부터 교육과정에 제시되어 있는 국악에 대한 내용, 교과서에 제시되어 있는 국악 내용에 대한 이론적 지식, 실기 기능 등을 충분히 갖추도록 해야 이를 바탕으로 교직 현장에서의 교수학습경험을 통해 국악 PCK를 향상시켜나갈 수 있을 것이다.

둘째, 교사 연수와 재교육과정을 통해 국악 교육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

는 실제적인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한다. 많은 교사들이 국악 수업의 필요성에 대해 절감하고 있지만 자신의 교수능력에 대한 자신감이 부족해 현실적으로 국악수업을 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따라서 교사양성과정에서 뿐 아니라 현직 교사들을 대상으로 한 국악 내용 관련 교사 연수와 재교육 과정의 제공을 통해 교사들의 국악 PCK를 향상 시킬 수 있도록 도와야 할 것이다. 특히 교사들의 국악 PCK는 국악 이론, 감상과 같은 이론적 지식에 치우쳐져 있으므로 국악 가창 및 기악과 같은 실기 관련된 국악 PCK가 향상될 수 있도록 국악 실기 기능을 키워줄 수 있는 다양한 연수 프로그램이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많은 교사들이 국악 연수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대부분의 교사들은 연수 프로그램에 대한 참여 의지가 있어도 학교에서의 과도한 업무와 일정 등으로 인해 현실적으로는 참여하는 것이 쉽지 않다. 따라서 교과외의 전문성을 높일 수 있는 연수에 참여하는 교사들에게 점수와 혜택을 주는 등의 격려와 더불어 교사들이 의무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각 학교 및 교육청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 특히, 국악 PCK의 인식 수준 평균값이 교직 경력 10년 이하인 교사들이 11년 이상인 교사들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교직 경력이 지남에 따라 주기적으로 연수와 재교육과정에 의무적으로 참여하여 국악에 대한 전문성을 높일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넷째, 교과재구성 과정에서 국악 수업을 의무적으로 편성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기준을 제공해야 한다. 국악 PCK는 교과내용지식을 갖추는 것과 더불어 지속적인 국악 교수학습경험의 기회를 가짐으로써 자신의 수업에 대해 반성, 적용의 과정을 통해 교수방법지식, 평가지식, 학생이해지식, 환경상황지식의 요소들을 함께 개발시켜나가야 향상될 수 있다. 그러나 교육과정 재구성에 대한 자율성에 의해 각 학교별, 교사별로 국악수업을 편성하는 비중에 차이가 발생하고, 이는 곧 교사의 국악 PCK 수준의 차이로 이어지며 결국 학생들이 받는 국악 교육의 질에 차이를 가져오게 된다. 그러므로 교과재구성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이유로 국악 수업이 제외되지 않도록 최소한의 의무적 편성 기준을 제공하여 교사들의 국악 PCK를 향상시킬 수 있

는 기회를 마련함으로써 국악 교육의 질을 높이도록 해야 한다.

다섯째, 국악 전공 교사를 비롯한 국악 PCK 수준이 높은 교사들을 중심으로 국악의 영역별 주제별 PCK 사례를 나눌 수 있는 장을 마련해야 한다. PCK는 교수 상황에서 발현되는 교사의 지식으로 특정한 영역과 주제에 따라 달라지는 특성이 있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교사들은 국악 PCK 수준이 높은 교사들의 수업을 관찰함으로써 자신의 국악 PCK와 비교 및 반성을 하고 동료교사의 국악 PCK를 배울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게 된다. 또한 PCK는 한 번에 관찰될 수 있는 지식이 아니므로 교사 스스로 PCK에 대해 설명하도록 함으로써 교사가 가지고 있는 PCK의 실체를 파악할 수 있다. 따라서 교사 동호회, 모임 등을 마련하여 국악 PCK 수준이 높은 교사들이 가지고 있는 국악 PCK 사례를 나눔으로써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국악 교육에 대한 현장 경험이 풍부한 선배 교사들이 후배 교사들의 국악 수업을 컨설팅 하도록 함으로써 실제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수업 컨설팅은 수업 능력이 검증된 교사가 동료 교사의 수업 개선을 위하여 지도와 조언을 하는 일련의 체계적인 과정을 의미한다(권덕원, 송정희, 2007). 수업 컨설팅은 기존의 장학과 달리 본인의 수업에 대한 개선을 위해 자발적으로, 자기주도적으로 참여를 할 때 이루어질 수 있다. 따라서 교사들은 자신의 국악 수업에 대한 어려움을 해결하고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의지와 열정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수업 컨설팅을 요청하는 자세를 갖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각 교육청이나 교과 모임에서는 전문성을 가지고 교사들의 국악 수업을 컨설팅 해줄 수 있는 컨설턴트, 즉 국악 교육에 대한 현장 경험이 풍부한 교사들의 발굴에 힘써 후배 교사들의 국악 수업의 전문성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도와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 교육과학기술부 (2011).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음악과 교육과정.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11-361호. 서울: 저자.
- 권덕원, 송정희 (2007). 음악 교과 수업 컨설팅 연구: 모형 및 매뉴얼 개발을 중심으로. *경인교육대학교 교육논총*, 27(특집호), 203-240.
- 권덕원 (2009). 2007년 개정 음악과 교육과정에 기초한 국악교육의 방향. *국악과 교육*, 27, 7-23.
- 김방희, 김진수 (2013). STEAM 교육의 PCK 유형 탐색을 위한 분석틀 개발. *한국기술교육학회지*, 13(2), 63-85.
- 김희숙 (2010). 자진모리장단에 대한 초등교사의 PCK 연구. *음악교육연구*, 39, 77-90.
- 김희숙 (2013). 2009 개정 음악과 교육과정 국악개념에 대한 교사의 이해 및 중요도 인식 조사. *음악교육공학*, 16, 179-192.
- 김희숙 (2015). 초등교사의 국악 PCK 인식 및 형성과정. *음악교육공학*, 22, 45-61.
- 김혜림 (2015). 예비음악교사의 타 전공 음악분야에 대한 교수내용지식 수준과 교수불안 정도.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문공주 (2008). 과학교사 교수내용지식(PCK)의 구조와 형성과정 탐색: 근거 이론에 의한 접근.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박성혜 (2003). 교사들의 과학 교과교육학 지식 측정도구 개발. *한국교육연구*, 20(1), 105-134.
- 박정철 (2013). 내러티브를 활용한 음악과 PCK 모형 개발. *경북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윤성원 (2014). 음악과 교육과정의 적용에 필요한 내용교수지식. *음악교육공학*, 21, 65-84.
- 윤성원 (2015). PCK에 근거한 음악교사 임용시험의 내용 탐색. *음악교육공학*, 22, 147-168.

- 이경언, 최승현 (2007). 교육과정 개정에 따른 음악과 내용 교수 지식(PCK) 연구.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연구보고 RRI 2007-3-5.
- 이경은 (2007). 수업실제에서 나타나는 교사의 Pedagogical Content Knowledge에 관한 사례 연구: 중학교 도형의 성질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이지형 (2002). 국악교육 지도의 교수능력에 대한 초등학교 교사들의 자기 인식도 조사연구. 청주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이지희 (2016). 국악에 대한 중등과정 예비음악교사의 교수내용지식(PCK) 과 교수태도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임청환 (2003). 초등교사의 과학 교과교육학지식의 발달이 과학 교수 실제 와 교수 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지구과학회지, 24(4), 258-272.
- 조희형, 고영자 (2008). 과학교사 교수내용지식의 재구성과 적용방법. 한국 과학교육학회지, 28(6), 618-632.
- 정길선 (2008). 중등학교 음악교사의 국악교육 전문성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정연지 (2015). 현대음악에 대한 중등과정 예비음악교사의 교수내용지식 (PCK)과 교수효능감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정은경 (2009). 초등교사의 국악교육에 대한 인식 조사 연구. 국악과 교육, 28, 183-212.
- 장근주 (2007). 중학교 전통음악 교육의 실태조사. 예술교육연구, 5(1), 71-80.
- 장근주(2011). 음악교사의 교수내용지식(PCK)에 대한 인식. 음악교육공학, 13, 41-58.
- 주희선 (2014). 교육실습여부에 따른 예비중등음악교사의 교과교육학지식 (PCK)에 대한 인식 차이 조사.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4(2), 91-106.

- 주희선 (2015). 교육실습 경험과 교수내용지식(PCK)에 대한 예비중등음악 교사의 인식 조사.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5(10), 799-821.
- 최윤경 (2012). 초등학교 음악 창작 수업에서 나타난 교사의 PCK 사례 분석. *예술교육연구*, 10(3), 199-226.
-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2013). 2013 예술강사 사업 관련 교과 교육과정 분석연구. 서울: 저자.
- 홍주희 (2012). 음악과 교육과정에서 국악의 변화와 제주지역 초등교사의 국악교육에 대한 인식. *교육과학연구*, 14(2), 75-85.
- 황상아 (2013). 국악교육에 대한 중등과정 예비음악교사의 인식조사, 숙명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Ballantyne, J. & Packer, J. (2004). Effectiveness of preservice music teacher education programs: Perceptions of early-career music teachers. *Music Education Research*, 6(3), 299-312.
- Ballantyne, J. (2006). Reconceptualising preservice teacher education courses for music teachers: the importance of pedagogical content knowledge and skills and professional knowledge and skills. *Research Studies in Music Education*, 26(1), 37-50.
- Bexter, J. A. & Lederman, N. G. (1999). Assessment and measurement of pedagogical content knowledge. In Gess- Newsome, J. & Lederman, N. G. (Eds.), *Examining pedagogical content knowledge* (147-161). Dordrecht, The Netherlands: Kluwer Academic Publishers.
- Cohran, K. L., DeRuiter, J. A. & King, R. A. (1993). Pedagogical content knowing: An integrative model for teacher preparation. *Journal of Teacher Education*, 44(4), 263-272.
- Conway, C. M. (1999). The development of teaching cases for instrumental music methods courses. *JRME*, 47, 343-356.
- Gess-Newsome, J. (1999). Pedagogical content knowledge: An introduction and orientation. In Gess- Newsome, J. & Lederman, N. G. (Eds.), *Examining pedagogical content*

- knowledge* (3–17). Dordrecht, The Netherlands: Kluwer Academic Publishers.
- Grossman, P. L. (1990). *The making of teacher: Teacher knowledge and teacher education*. New York: Teachers College Press, Teachers College Columbia University.
- Haston, W. & Leon–Gerrero, A. (2008). Sources of pedagogical content knowledge: reports by preservice instrumental music teachers. *Journal of Music Teacher Education*, 17(2), 48–59.
- Jang, S. J., Guan, S. Y., & Hsieh, H. F. (2009). Developing an instrument for assessing college students' perceptions of teachers' pedagogical content knowledge. *Procedia Social and Behavioral Sciences*, 1(1), 596–606.
- Jang, S. J. (2011). Assessing college students' perceptions of a case teacher's pedagogical content knowledge using a newly developed instrument. *High Educ*, 61, 663–678.
- Kagan D. M. (1990). Ways of evaluating teacher cognition: Inferences concerning the goldilocks principle. *Review of Educational Research*, 60(3), 419–469.
- Koehler, M. J. & Mishra, P. (2008). Introducing TPACK. In AACTE Committee on Innovation and Technology (Eds.). *Handbook of Technological Pedagogical Content Knowledge (TPCK) for educators* (3–29). New York: Routledge Publishers.
- Lee, E., Brown, M. N., Luft, J. A., & Roehring, G. H. (2007). Assessing beginning secondary science teachers' PCK: pilot year results. *School Science & Mathematics*, 107(2), 52–60.
- Leong, S. (1996). The relationship between music competencies perceived as important for novice teachers and the professional expectations of high school music teachers in Australia, Ph. D. thesis, University of Western Australia.

- Loughran, J., Milroy, P., Berry, A., Gunstone, R., & Mulhall, P. (2001). Documenting science teachers' pedagogical content knowledge through PaP-eRs. *Research in Science Education*, 31(2), 289–307.
- Loughran, J., Mulhall, P. & Berry, A. (2004). In search of pedagogical content knowledge in science: Developing ways of articulating and documenting professional practice. *Journal of Research in Science Teaching*, 41(4), 370–391.
- Magnusson, S., Krajcik, J. & Borko, H. (1999). Nature, sources and development of pedagogical content knowledge for science teaching. In Gess-Newsome, J. & Lederman, N. G. (Eds.). *Examining pedagogical content knowledge* (95–132). Dordrecht, The Netherlands: Kluwer Academic Publishers.
- Millican, J. S. (2008). A new framework for music education knowledge and skill. *Journal of Music Teacher Education*, 18, 67–78.
- Millican, J. S. (2013). Describing instrumental music teachers' thinking: implications for understanding pedagogical content knowledge. *National Association of Music Education*, 31(2), 45–53.
- Park, S. & Oliver, S. (2008). Revisiting the conceptualization of pedagogical content knowledge (PCK): PCK as a conceptual tool to understand teachers as professionals. *Research in Science Education*, 38, 261–284.
- Shulman, L. S. (1986). Those who understand: Knowledge growth in teaching. *Educational Researcher*, 15(2), 4–14.
- Shulman, L. S. (1987). Knowledge and teaching: Foundation of the new reform. *Harvard Educational Review*, 57(1), 1–22.
- Smith, P. S. & Banilower, E. R. (2015). Assessing PCK. In Berry, A., Friedrichsen, P. & Loughran, J. (Eds.).

Re-examining Pedagogical Content Knowledge in Science Education (88–103). New York: Routledge Publishers.

- Tuan, H. L. (1996). Pedagogical content knowledge – a revelation for the reform of future science teacher education. *Proceedings of the First Mathematics and Science Teaching and Teacher Education conference*, 118–143.
- Tuan, H., Chang, H., Wang, K. & Treagust, D. (2000). The development of an instrument for assessing students' perceptions of teachers' knowledge. *International Journal of Science Education*, 22(4), 385–398.
- Van Driel, J. H., Verloop, N., & De Vos, W. (1998). Developing science teachers' pedagogical content knowledge. *Journal of Research in Science Teaching*, 35(6), 673–695.
- Veal, W. R., & Makinster, J. G. (1999). Pedagogical content knowledge taxonomies. *Educational Journal of Science Education*, 3(4), 1–14.

<부록>

중등음악교사의 '국악 내용 교수 지식'에 관한 설문지

안녕하십니까?

음악교육의 발전을 위하여 교육현장에서 항상 최선을 다하시는 선생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현재 중학교 음악교사로 서울대학교 대학원에서 음악교육을 전공하고 있으며, 중등음악교사의 국악 내용 관련 내용 교수 지식(Pedagogical Content Knowledge)에 대해 석사학위 논문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번거로우시더라도 학교의 음악교육과 국악교육의 현황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위하여 평소의 생각을 그대로 응답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모든 데이터는 무기명으로 처리되며, 본 연구의 목적 외에는 사용되지 않을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소중한 시간을 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서울대학교 대학원
협동과정 음악교육 전공
석사과정
김 승 연 드림

연구 참여자 서명_____ (인)

표. 국악 내용 관련 내용 교수 지식에 대한 질문

※ 음악과에서의 내용 교수 지식 (PCK: Pedagogical Content Knowledge)은 음악과 내용을 학생들이 이해할 수 있는 형태로 전환하는 교사의 지식으로, 특정 학년에 적절한 개념을 학생들이 최대한 이해할 수 있도록 지식을 표상하는 방법입니다(이경언, 최승현, 2007). 본 연구에서는 음악과 내용 중 국악 관련 교수내용지식(PCK)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고자 합니다. **해당되는 칸에 V표 해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환경상황이해지식에 대한 문항입니다.(1-9)

번호	항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국악수업은 필요하다.	①	②	③	④	⑤
2	국악수업을 위해 필요한 교수 학습 시설 및 기자재를 파악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3	국악 수업과 관련하여 지역과 학교의 실정 및 요구사항을 파악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4	국악 관련 음악회와 같은 다양한 공연 및 행사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5	국악수업에 대한 반성(reflection)을 통해 스스로 피드백을 제공한다.	①	②	③	④	⑤
6	국악수업에 자신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7	국악수업에 대한 교사 자신의 선호도는 국악 교수 학습에 영향을 미친다.	①	②	③	④	⑤
8	국악 관련 교수능력은 충분하다.	①	②	③	④	⑤
9	국악 수업의 질 향상을 위해 교사들이 재교육과정이나 연수과정에 참여하는 것은 필요하다.	①	②	③	④	⑤

※ 다음은 학생이해지식에 대한 문항입니다.(10-13)

번호	항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0	가르치고 있는 학생들의 음악에 대한 전반적인 특성(발달 단계, 능력 수준, 흥미도, 지역성 등)에 대해 이해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11	학생들의 국악에 대한 내용지식 및 연주기능에 대한 개인차를 이해하며 다양한 측면(성차, 음악성, 음악적 환경 등)에서 파악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12	국악 수업을 하는 동안 학생들이 무엇을 어려워하는지 알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13	국악 수업에서 학생들이 무엇을 잘하는지 알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 다음은 교과내용지식에 대한 문항입니다.(14-24)

번호	항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4	교육과정에 명시되어 있는 국악 관련 내용을 이해한다.	①	②	③	④	⑤
15	교육과정에 명시되어 있는 국악 관련 내용을 재구성하여 수업에 적용한다.	①	②	③	④	⑤
16	교과서에 제시된 민요의 토리와 시김새를 살려 시범창 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17	교과서에 제시된 판소리 한 대목을 판소리의 특징을 살려 시범창 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18	교과서에 제시된 가곡의 초장을 가곡의 특징을 살려 시범창 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19	국악기 중 가락악기 1가지 이상을 바른 자세와 정확한 주법으로 연주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20	교과서에 제시된 장단을 장단의 세를 살려 장구로 연주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21	교과서에 제시된 수준의 국악 가락 짓기를 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22	교과서에 제시된 국악곡의 특징(형식, 연주형태, 쓰임새 등)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23	국악기의 특징(음색, 연주방법 등)을 설명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24	여러 지역 민요의 토리와 시김새의 특징을 비교하여 설명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 다음은 교수방법지식에 대한 문항입니다.(25-33)

번호	항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25	국악학습은 가능한 한 가,무,악이 통합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지도한다.	①	②	③	④	⑤
26	국악 가창(가락, 시김새, 창법 등)을 지도할 때에는 손, 가락선 악보 등을 활용하여 다양하게 지도한다.	①	②	③	④	⑤
27	국악기를 지도할 때 구음을 활용하여 자연스럽게 익히도록 한다.	①	②	③	④	⑤
28	국악기를 지도할 때 춤을 활용하여 장단감을 체득하도록 지도한다.	①	②	③	④	⑤

29	국악곡 만들기를 지도할 때, 국악기 연주로 국악의 특징을 표현하도록 한다.	①	②	③	④	⑤
30	국악감상을 지도할 때, 추임새 넣기 등을 통해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음악 감상에 참여 할 수 있도록 한다.	①	②	③	④	⑤
31	국악감상을 지도할 때, 학생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정간보와 구음보 등을 활용한다.	①	②	③	④	⑤
32	학생들이 생활 속에서 국악을 즐길 수 있도록 국악 관련 음악 프로그램이나 연주회, 동아리 활동 등을 소개하여 참여할 수 있도록 권한다.	①	②	③	④	⑤
33	수업 시간에 국악의 가치에 대해 생 각해 볼 수 있는 활동 및 기회를 제공한다.	①	②	③	④	⑤

※ 다음은 평가지식 관련 문항입니다.(34-38)

번호	항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34	국악에 대한 학습을 평가할 때, 적합한 평가내용과 방법을 사용한다.	①	②	③	④	⑤
35	국악 관련 표현 활동(가창, 기악, 창작 등)은 기초 기능, 음악적 표현, 태도 등을 고루 반영하여 평가한다.	①	②	③	④	⑤
36	국악 감상을 평가할 때, 국악에 관한 포괄적 이해의 정도와 태도 등을 평가한다.	①	②	③	④	⑤
37	학교 내외의 국악 관련 음악활동에 참여하는 정도, 국악에 대한 태도와 생활화의 실천 정도 등을 평가한다.	①	②	③	④	⑤

38	평가 결과를 국악수업의 교수학습계획과 국악수업 방법 개선을 위한 자료로 활용한다.	①	②	③	④	⑤
-----------	---	---	---	---	---	---

※ 설문에 끝까지 응답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Abstract

A Study of Secondary Music Teacher's Pedagogical Content Knowledge of Korean Traditional Music

Seungyeon Kim

Major in Music Education
Department of Education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With a growing emphasis on Korean traditional music in Korea's national curriculum, the ability to teach traditional music has become an essential quality of an effective music teacher. The lack of such an ability poses a serious challenge to the development and implementation of the curriculum, potentially undermining the quality of traditional music education. The improvement of educational quality calls for an assessment of teachers' pedagogical skills to teach traditional music as well as a commitment to continued efforts. Using the theoretical perspective of Pedagogical Content Knowledge (PCK), this thesis

examines the pedagogical skills of secondary music teachers in delivering Korean traditional music education. A primary goal of this thesis is to inspire a boost in the quality of traditional music education by introducing a set of measures to improve PCK of Korean traditional music.

For the purpose of this study, PCK of Korean traditional music is divided into knowledge of subject matter, knowledge of instructional strategies, knowledge of evaluation, knowledge of learners and their characteristics and knowledge of environmental context. Based on these elements, an assessment tool was developed to measure the perception of Korean traditional music PCK. This assessment tool was employed in a survey of 123 secondary music teachers in the Seoul metropolitan area including Seoul, Gyeonggi Province and Incheon. After data collection, a descriptive statistical analysis was carried out to determine general perceptions of music teachers regarding Korean traditional music PCK. In addition, a t-test was performed on the same data to identify a difference in perception for each PCK element, depending on teachers' background (e.g. teaching experience, duration of traditional music training, etc.). The survey was followed by an interview of a focus group consisting of six secondary music teachers for an in-depth exploration of survey results and the research topic. The interviews, thoroughly transcribed verbatim, served as the basis for an analysis on the "formation of Korean traditional music PCK" and its findings.

The analysis led to the following findings. First, secondary music teachers were found to have higher perceptions of Korean traditional music PCK in terms of music theory and appreciation than singing and practice. Most teachers lacked confidence in their pedagogical skills, which was cited as an obstacle to teaching Korean traditional music. Second, teaching experience was determined to be insignificant in

shaping Korean traditional music PCK, primarily due to a curriculum reform which resulted in varied experiences for secondary music teachers in teaching and learning of traditional music. Third, duration of traditional music training contributed directly to the formation of one of the PCK elements, knowledge of subject matter, and was found to have influenced the traditional music PCK levels of secondary music teachers.

Based on the above findings, this thesis intends to shed light on several measures to increase Korean traditional music PCK in secondary music teachers. First, among the PCK elements, knowledge of subject matter should be given priority in teacher preparation programs by delivering high-quality education of Korean traditional music. Second, teacher training and retraining need to be organized to offer hands-on experience that can be readily applied to classroom settings. Third, there is a need for an institutional system that encourages active participation of teachers in training and retraining programs. Fourth, a minimum standard should be in place to ensure that Korean traditional music becomes a compulsory part of the curriculum. Last, a platform is essential in stimulating exchange of ideas and good practices for each PCK domain of traditional music education among teachers who majored in Korean traditional music and who have high PCK levels on the subject.

keywords : Korean traditional music, Pedagogical Content Knowledge,
PCK, Secondary music teacher.

Student Number : 2011-21500